

제434회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임시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26년4월3일(금)

장 소 문화체육관광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2217938)
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나. 국가유산청 소관
2. 2026년도 국민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17941)
3. 2026년도 문화예술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17942)
4. 2026년도 관광진흥개발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17943)
5. 2026년도 영화발전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17944)

상정된 안건

1.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2217938) 2
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나. 국가유산청 소관
2. 2026년도 국민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17941) 2
3. 2026년도 문화예술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17942) 2
4. 2026년도 관광진흥개발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17943) 2
5. 2026년도 영화발전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17944) 2

(14시58분 개의)

○소위원장 박수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4회 국회(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오늘 심사는 문화체육관광부, 국가유산청 소관 순서로 진행하며 사업 분류는 회계별
기준 실국별 소관 사업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배부해 드린 소위원회 심사자료의 사업별로 전문위원의 설명과 정부 측의
의견을 들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거쳐 결정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배석하고 계신 분이 답변을 하는 경우 원활한 회의 진행과 속기록 작성을 위하여 소
속, 직위, 성명을 먼저 밝힌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부 측에서는 수용 의견일 경우에는 취지만 간
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바로 다음 사업에 대해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다만 정부가 불수용하거나 위원님들 간 논의가 길어지는 사업의 경우에는 심사를 보류

하고 보류 사업 심사 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2217938)

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나. 국가유산청 소관

2. 2026년도 국민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17941)

3. 2026년도 문화예술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17942)

4. 2026년도 관광진흥개발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17943)

5. 2026년도 영화발전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17944)

(15시00분)

○소위원장 박수현 의사일정 제1항 문화체육관광부 및 국가유산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국민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문화예술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관광진흥개발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5항 2026년도 영화발전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문화체육관광부1차관 소관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박재유 수석전문위원께서 심사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하시기 전에 한말씀드리면 우리가 지난 본예산안 심사 때는 워낙 많기 때문에 정부가 수용 의견일 때는 스킵을 하고 넘어가는 그런 거였습니다만 추경안은 정부가 수용하더라도 수석전문위원의 간략한 설명은 듣고 넘어가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김승수 위원 위원장님, 관련해서 잠깐 질문 좀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수현 예.

○김승수 위원 차관님, 이번 추경은 사실은 우리나라에 전쟁이 벌어진 것도 아닙니다만 전쟁추경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긴급하게 추경예산이 편성돼야 된다 이렇게 해서 편성한 것 아니겠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예, 그렇습니다.

○김승수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경편성 요건은 그대로 법에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또 그 추경편성 요건에 맞는 예산들, 가뜰이나 지금 우리가 재정이 풍부한 것도 아닌 상황에서 추경을 편성했으면 그게 요건에 맞는 사업이라 하더라도 선후 완급을 따져가지고 꼭 필요한 사업, 꼭 필요한 예산만큼만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정부안만 하더라도 여러 가지 사업들이 불요불급하거나 추경 목적에 맞지 않거나 또 이미 본예산에 편성된 예산들이 아직 집행조차 안 된 것들에 대해서 추가 증액이 되거나 심지어는 집행 부진으로 문제 사업으로 보조금성과평가에서 지적받은 사업들까지 정부안에 편성이 됐단 말이지요. 지금 정부안 중에서도 상당히 삭감돼야 되거나 조정이 돼야 될 사업들이 많은데, 오늘 심사자료를 보니까 굉장히 두꺼워요. 사실은 정부안에 들어가 있는 사업들

은 예산은 한 5800억 정도 증액돼 있습니다만 그렇게 사업 꼭지가 많은 건 아닌데 이렇게 심사자료가 많은 것은 이게 국회에 와서 문체위에서 이렇게 증액이 됐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대부분 사업들을 저도 급하게 훑어보니까, 자료가 오늘 들어왔기 때문에 급하게 훑어볼 수밖에 없는데 거의 추정 목적과 관계없는 사업들, 본예산 때 들어왔다가 본예산에조차도 들어가지 못했던 사업들 또 신규로 지역사업이라든지 개인민원성 사업 이런 것들이 막 여기 다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정부는 그런 것에 대해 가지고 추정 목적에 맞는지 안 맞는지조차도 검토가 없고 또 실제적으로 추정 목적을 떠나서 이 예산이 진짜 필요한 사업인지 이런 데 대한 검토 없이 전부 다 수용, 수용, 수용 이렇게 해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수석전문위원이 앞서 위원장님 말씀처럼 검토보고 할 때, 정부안이 전부 다 수용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추정 목적에 맞는 사업인지 그리고 지난 본예산 때 들어왔던 사업인데 그때 통과된 사업이 다시 또 끼어들어온 사업인지, 실질적으로 그동안 여건 변화로 본예산에서 잡지 못했던 불요불급한 그런 사업인지를 잘 판단해서 가지고 검토의견 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수현 김승수 위원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박재유 수석전문위원님께서 심사자료를 설명해 주시되 대체로……

○진종오 위원 위원장님.

○소위원장 박수현 진종오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진종오 위원 회의 시작 전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년은 정부 스스로 선포한 K-스포츠의 해입니다. 이번 6월 북중미 월드컵, 9월의 나고야 아시안게임부터 전 세계가 대한민국 스포츠를 주목하는 역사적인 해이기도 한데 이번 추경에서 체육 분야 반영액이 0원입니다. 문체부 추경 총액 5834억 원 중 관광 3454억, 문화예술 1029억, 영화 746억 반영됐습니다. 그런데 체육은 945억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단 1원도 포함되지 않았습시다.

9월 아시안게임을 앞두고 국가대표 선수들의 해외 전지훈련 예산 승인이 4월에 났습시다. 아시안게임이 코앞인데 선수들은 나가서 훈련할 예산조차 제때 승인받지 못한 것이고, 지금 추경에서 체육이 0원이 된 것이 어찌면 우연이 아닐 수도 있겠다고 보여집니다.

문체부장관 그리고 문체부의 체육에 대한 무관심이 일관되게 이어지는 건 아닌지 의심스럽고 아니면 정치적으로 계산된 선거와 표심을 위해 체육을 이용한 게 아닌가 의심스럽습시다. 체육인들의 피땀으로 조성된 국민체육진흥기금 2318억 원이 이번 추경에서 문화예술 758억, 영화 546억, 관광 1014억으로 전출되었습니다. 체육 예산은 0원이면서 체육인이 만든 돈은 고스란히 남의 잔치상으로 쓰인 것입니다.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유소년 스포츠 프로그램, 동계 종목 훈련시설처럼 국민 건강과 미래를 위한 체육 사업은 단 하나도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대한체육회와 17개 시·도 체육회, 83개 종목단체가 한목소리로 외치고 있습니다. 체육에 대한 관심 좀 가져 달라고 말습시다. 말뿐인 K-스포츠의 해는 593만 체육인을 기만한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체육인의 기금을 가져다 쓰면서 체육인에게는 한 푼도 돌려 주지 않는 이 구조, 지금 이 자리에서 문체부가 바꾸겠다는 의지를 보여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전지훈련 때 예산도 제때 못 받고 추경에서도 0원, K-스포츠의 해에 체육 예산은 0원, 이것이 이 정부가 체육을 바라보는 현주소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수현 진중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재원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재원 위원 이번 추경의 전체적인 목적은 결국은 우리가 호르무즈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무너져 갈 이 생태계를 어떻게 바로잡느냐 그리고 움직이는 동력을 만들 것이냐, 더 나아가서는 구조를 확립시킴으로써 사태가 장기화돼도 우리가 충분히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드느냐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문화예술체육관광의 특성상 생태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판이 벌어져야지 거기 플레이어들이 끼어들고 그다음에 투자가 붙고 플레이어들과 투자가 붙으면 그다음에 판이 벌어진 그 안에서 어떠한 행사라든지, 체육행사라든지 공연 등등이 이어지면서 그 다음에 사람들이 이것을 구경하러 가는 그런 구조인 거지요, 크게 보자면.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 대한 직접지원도 필요하지만 이런 구조를 마련하는 것도 물론 필요하고, 사람들이 그런 것을 향유를 충분히 하실 수 있도록 전체적으로는 동기부여 측면에서 굉장히 위축돼 가지고 다음 사업을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는 게 이번 추경의 목적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일반 상품을 생산하거나 투자를 하는 방향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먼저 문화예술체육관광의 그런 생태를 이해를 해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추경이 호르무즈 사태가 얼마나 장기화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 대비하는 측면에서 혹은 미래에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하는 혹은 쌓아 놔야 하는 그런 이익 창출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 보는 그런 추경이 되었으면 좋겠고.

지금 마련해 놓지 않으면 이 사태가 장기화됐을 때 문화예술체육관광이 어떻게 버틸 수 있을지도 생각을 해 봐야 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서의 증액 부분들 같은 경우에 우리가 충분히 받아들여야 하고 오히려 더 부족한 부분이 없는지를 살펴봐야 하는 그런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수현 조계원 위원님.

○조계원 위원 이러한 호르무즈 사태의 위기, 전쟁 위기로 인해서 대한민국 또한 그 위기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공감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적기에 필요한 추가 추경편성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고, 더구나 이재명 정부는 국가채무를 끌어들여서 추경을 편성한 게 아니고 이재명 정부가 그동안 국정운영을 잘해서 초과 세수로 얻어진 것으로 추경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박수를 쳐 주고 격려해 주는 게 좀 타당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 전쟁 추경은 무엇보다도 골든타임이 중요합니다. 위기 대응에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되기 때문에 사실상 비상한 마음으로 여야가 함께 대응해 주실 것을 촉구하고요.

또한 진중오 위원님이 말씀하신 체육 분야에 대해서 너무 지금 소외감을 느낄 수 있는 예산편성이 아닌가. 체육이라고 해서 민생과 직결되지 않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더구나 정말 우리 체육계에는 국위선양을 위해서 동계올림픽, 지난 하계올림픽에서 엄청나게 좋

은 성적을 냈고 세계에 K-스포츠의 자긍심을 심어 줬습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에 전혀 체육계의 요구가 반영되지 않은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니겠는가. 그래서 이번 문체위 예산소위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적극적으로 우리 여야가 함께 보완책을 제시해 나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박수현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 질의가 없으시면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 주신 김승수 위원님, 진종오 위원님, 김재원 위원님, 조계원 위원님의 말씀 모두가 정말 하나도 빠트림 없이 오늘 우리가 추경예산안을 심사해야 할 기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기준들에 맞춰서 저희가 한번 잘 살펴보도록 하되, 위원장으로서 오늘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석전문위원은 건건이 설명을 하는 것보다는 10여 건씩 어떤 기준을 가지고 그룹별로 설명을 한 번에 해 주시고 그다음에 심하게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오늘 바로 여기서 결론을 내지 않고 보류심사로 바로 넘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류심사를 다시 하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문체부 소관에서 1차관, 2차관 소관 그다음에 국가유산청 소관까지 즉 한번 전체를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류심사에서도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 경우는 지난번 본예산 심사 때처럼 양당의 간사 역할을 하시는 위원님들과 정부 측 함께 모여서 잠시 회의를 통해서 조절한 다음에 다시 진행하는 효율적 방법을 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어떤 방법을 택하더라도 지금 말씀 주신 위원님들의 귀한 말씀이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명심해야 할 것 같습니다.

박재유 수석전문위원께서 심사자료를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재유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2페이지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연번 기준으로 대략 10개 정도씩 묶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승수 위원 위원장님, 10개씩은 너무 많고 한 5개 정도씩 어떻습니까?

○소위원장 박수현 그러세요.

○수석전문위원 박재유 예, 알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연번 1번은 전국민 인문향유 활성화 사업에서 인문향유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인문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하여 35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며, 3페이지 연번 2번은 한글문화예술행사지원 사업에서 세종 전통예술경연대회 사업 추진에 부족한 비용 3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며, 연번 3번은 학교문화예술교육 지원 사업에 예술강사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강사료 88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연번 4번은 서울예술단 사무국의 광주 이전 비용 지원을 위하여 3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며, 연번 5번은 국악 대표 공연 브랜드인 The ARI Project를 정례화하기 위하여 1억 5500만 원을 신규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이상 여기까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수현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십시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1번부터 5번까지 증액안에 대해서 수용합니다.

○소위원장 박수현 위원님들 의견이요.

정연욱 위원님.

○정연욱 위원 4번의 서울예술단 광주 이전에 대한 부분이 아마도 정부가 작년 11월에 국립공연예술기관 지역 확산 기초 연구에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지역예술계, 특히 8개 광주시립예술단 공공노조가 반대의견을 제시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광주시립예술단과의 협의가 계속 진행 중이라고 정부 측 차원에서는 답변하는데 과연 예술단원들의 의견을 제대로 수렴했는지, 절차가 미흡했다는 지적이 많았고요. 그러니까 서울예술단 노동조합에 따르면 문체부와 일곱 차례 간담회가 있었지만 이전 결정이라는 통보만 있었고 의견수렴 절차는 실질적으로 미흡했고 구체적인 로드맵 제시가 거의 없었다.

그래서 큰 취지에는 저희가 공감을 합니다만, 그런데 서울예술단 광주 이전 외에 추가 추진 계획이 없고 서울예술단도 이전 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인 세부적인 전략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할 때 구체적으로 좀 디테일한 논의들이나 큰 그림에 대한 얘기들이 공유가 없으면 해당 노조나 해당 이해당사자들의 반발은 불을 보듯 뻔한 것 아닙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예술단 노조를 포함해서 단원들하고 계속해서 지금 협의를 진행 중이고요. 아직도 미진한 점이 좀 있는 것 같은데 더 노력하겠습니다.

○정연욱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계속 분란의 소지를 만드는 상황에서 이렇게 일방적으로 얘기가 진행될 경우에 이 부분들은 충분히 논의 절차를 진행시켜야 된다는 부분을 감안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도 그런 절차가 어느 정도 진행되는 과정에서 논의가 좀, 예산 문제가 처리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유보해서 논의를 좀 더 진행시켜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소위원장 박수현 정부 측 답변할 것 있습니까?

말씀해 보세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담당 국장이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예술정책관 이용신 예술정책관 이용신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당사자들 간의 협의가 중요하다는 인식을 하고 있고 최근에도 노조하고 두 번에 걸쳐서 대화를 했고 저희가 관련 단체, 서울예술단과 광주 지역의 어떤 예술계하고 공청회도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그리고 위원님, 여기 3억 원에는, 이전하는 단원들을 대상으로 수당이 필요하거든요. 그 수당도 1억 3200 들어가서 꼭 필요한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박수현 알겠습니다.

정연욱 위원님, 이 문제는 어떻게, 보류로 일단 분류를 할까요?

○정연욱 위원 예, 잠깐 보류를 해서 논의를 좀 진행시켜서 그때 보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수현 일단 보류로 분류를 해 놓고요.

○김승수 위원 정부 측이 각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다른 사업

들?

○소위원장 박수현 정부 측은 다 수용을 한다고 지금 얘기를 하신 거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수용을 했는데……

○김승수 위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어떤 의미에서…… 1번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이게 왜 지금 이 추경에 시급하게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사업 내용도 그냥 보지도 않고 그 부분에 대한 검토도 없이 수용으로 이렇게 말씀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이렇게 됐기 때문에 추경 목적에 적합하고 이번에 안 하면 굉장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들어왔다’ 그런 말씀을 해 달라는 겁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위원님, 위원님 말씀하신 1번의 경우에는 청년문화예술인들이 사실은 제일 취약한 부분입니다. 제일 먼저, 코로나 때도 일반 소비가 2% 빠졌을 때 문화예술·여가 소비는 33%나 빠졌습니다. 더군다나 갓 시작하는 청년예술인들은 굉장히 취약하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해서 35억 원 증액하는 것은 꼭 필요한 돈입니다.

○김승수 위원 지금 여기 말고도 이미 정부안에도 청춘마이크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청년 일자리 사업들이 들어가 있는 것 아니에요? 거기다가 이 35억 또 추가로 증액을 한다는 부분이고 뒤에 세종대왕 탄신일 전통예술경연대회도 본예산에 이게 잡혀 있는데 3억 예산이, 행사성 예산이 지금 왜 들어가야 되느냐 그 부분도 이해가 안 되고요. 예술장사 처우개선 이것은 여러 위원님들이나 저도 주장했기 때문에 기존에 받던 액수에 비해 가지고 50%밖에 못 받는 그런 상황을 고려해서 증액이 돼야 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견 동의를 합니다.

정연욱 위원님이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서울예술단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국립예술단의 지방이전과 관련돼 가지고 일단은 시범적으로 영남권, 호남권 이렇게 해서 서울예술단 또 국립오페라단 이야기돼 있다가 또 그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잠정 보류하는 듯한 스탠스로 문체부에서는 진행이 돼 오다가 갑자기 또 서울예술단은 광주로 옮기는 걸로, 그리고 다른 데 대해 가지고는 구체적으로…… 왜 서울예술단만 갑자기 이렇게 하는가에 대해서도 대통령 말씀 한마디에 이렇게 하는 것 외에는 다른 전체적인 계획에 따라서 하는 그런 것들이 없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문체위원들조차 왜 서울예술단이 갑자기 이렇게 하나만 뚝 떨어져 가지고 옮겨가는데 대한 전후 맥락이라든지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을 들은 적이 없어요.

저는 이전하는 것에 대해서 찬성은 하는데 당초에 계속 이야기돼 왔던 영남권과 호남권에 하나씩 시범 이전하는 것에서 갑자기 왜 서울예술단만 가게 됐는지 또 그러면 나머지 예술단에 대해서는 어떤 단계적인 이전 계획을 가지고 추진할 건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되고 계획이 잡히고 나서 예산이 이렇게 증액돼야 되는데 그 부분도 없이 그냥 추경에 3억 증액이, 그러면 이번 추경안이 없었으면 이게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 부분이 그렇다는 거고.

그 뒤에 존경하는 임오경 위원님이 증액 요구했던 ARI Project 이게 공연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정례화하기 위한 돈을 증액, 신규사업…… 일회성도 아니고 정례화하기 위해서 증액을 시키는 그런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견 추경 사업이 아니지요. 본예산에서도 이게 여러 가지 문화행사들, 국가에서 지원해야 될 중요한 사업에 들어가야 되느냐 그 부분부터 검토가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데 대해서 아무런 내용에 대한 설명 없이

무조건 수용, 수용.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마찬가지로 문체부차관님 말씀도 마찬가지고 그런 맥락이 전혀 없다는 거지요. 그 부분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ARI Project는 이제 지금 국악진흥법 시행령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태까지 되지 못하고 있었던 거라 추경을 계기로 해서 들어가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례적으로 그렇게 하는 게 하루라도 더 빨리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다음에 한글문화예술행사는 이제 사실은 세종대왕 전통예술경연대회 사업을 위한 거고 위원님 말씀하신 한글문화예술행사 본예산은 사실 세종대왕 전통예술경연대회가 아닌 다른 한글 선양 본예산입니다. 그래서 필요합니다.

○임오경 위원 저도 한말씀드릴게요.

일단 먼저 지난 전체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다른 위원님들이 서면질의를 이기헌 위원님과 본 위원에게 요청을 해서 아마 예산안 요청에 두 위원의 이름이 많이 보일 겁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

차관님, 위원님들이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에 있어서 답변을 제대로 하셔야 되는 게, 2026년도 본예산에 저희가 작년 연말에 제대로 신지 못한 것 그것을 먼저 인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지금 국악에 관련돼서도 말씀하셨는데 국악진흥법이 발표되고 국악의 날이 지정됐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맞습니다.

○임오경 위원 이것에 관련돼서도 본예산에 원래는 실어야 되는 게 맞는 건데, 정례화 하기 위해서는 본예산에 실었어야 되는데 본예산에 실지 못하고 지금 추경에 올라온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예.

○임오경 위원 그래서 본예산이 얼마큼 중요한지를 인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실을 때 위원들 한 분 한 분에게 왜 필요한지를 정확하게 설명드리면 이 추경예산심의에서 이런 얘기가 안 나온다는 거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예.

○임오경 위원 그렇기 때문에 2026년도 본예산에 제대로 담지 못한 것은 문체부의 잘못 아닙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저희의 노력이 부족했습니다.

○임오경 위원 노력이 부족했다라는 점을 인정하시고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을 좀 설득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1번에서도 지역청년예술인들은 예술활동만으로 생계 유지가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예술인들이 전공을 활용해서 창작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 제공을 위해서 이 예산이 추가적으로 필요한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그렇습니다.

○임오경 위원 그러한 부분을 위원님들에게 설명을 잘해 주셔야 된다고 보고.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에 있어서 4번에 보게 되면 제가 볼 때는 문화예술단체 운영 지원 관련돼서도 원래는 서울예술단에서 한 13억~15억 정도 요청한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다 받아 주지는 못하는 거지요. 하지만 우리가 이전을 하는 데

있어서 최소 비용으로서 이전 비용 정도는 필요하다 그런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그렇습니다.

○임오경 위원 왜 또 제가 설명을 해야 됩니까? 이 짧은 시간에 저도 이 자료를 보고 왔지만 여당이라고 해서 여당 위원님들께 별도로 설명해 주신 적 있으십니까? 이번 주 안에 추경 상정하고 심의하고 의결해야 되는 이런 사안을 저희한테도 지금 이렇게 가혹하게 해 주셨어요. 윤석열 정부 때 이렇게까지는 안 했습니다. 그래도 사전에 와서 설명은 한 번 해 주셨습니다.

이런 절차, 과정에 있어서 양당 간사 간의 잘못도 있겠지만 이게 지금 호르무즈 전쟁으로 인해서 이 추경이 좀 빠르게 진행돼야 된다는 그런 긴급함이 있기 때문에 야당 위원들에게도 저희가 요청을 해서 지금 이렇게 긴급하게 짧은 시간에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하고 있지만 차관님의 설명이, 정부 측의 설명이 제대로 돼야지만 이 시간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저도 드립니다.

○소위원장 박수현 김재원 위원님.

○김재원 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문화예술체육관광 분야는 생태가 확실히 다른 산업 분야랑은 다른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미리 준비해야 된다, 미리 준비를 탄탄히 해야 된다 그런 것에서 벗어나지 말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지금 존경하는 임오경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본예산 때 편성하지 못한 문체부의 잘못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보시면 인문 그다음에 국악 또 한글문화예술행사 지원 이런 것들이 다 분야가 달라요. 단순히 문화예술 그다음에 체육관광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한 덩어리로 묶어서 여기 지원했는데 왜 다른 것 또 중복 지원을 해야 되느냐 이렇게 보는 것은 마땅치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국가적 위난상황이나 재난상황에서 가장 많이 타격을 받는 게 문화예술체육관광인들인데요. 그런데 그 안에 수많은 세부항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중에서 그 업종사를 하고 있는 청년들 같은 경우에 제일 많이 타격을 받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세부적인 항목으로 나눌 수밖에 없는 거고 거기마다 예산이 다 필요한 겁니다. 기획예산처에 그 부분을 확실히 설명하지 않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차관님께서서는 반드시 명심을 하셔서 이 예산들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피력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예.

○임오경 위원 한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정부 예산으로 지금 총 5843억이 잡혀 있잖아요. 그런데 저희에게 필요한 예산은 2000억 가까이 더 증액을 시켜서 지금 올라온 상태잖아요. 이번에 정부 측에서는 정부안대로 가겠다라는 의지가 강한 것 같아요, 저 또한 언론을 통해서 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예결위에 반드시 이것을 증액해서 올려야지만, 거기에서 저는 대부분 다 삭감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당 위원님들에게도 제가 요청드리지만 여기서 저희가 증액시킨다 그래서 증액되는 건 아닙니다. 분명히 예결특위 종합질의에서 이 부분에서 정부안 외에는 반드시 다 삭감될 거라고 보지만 그래도 우리가 여기에서 삭감보다는 증액을 시켜서 보내야지만 그래도 현장에 있는 사람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는 추경 예산이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려 봅니다.

○김승수 위원 저번 본예산 심의 때도 그런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위원들이 예산심의를

하는 데 있어 가지고 굉장히 시간을 절약하면서 합리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사전검토를 하라는 것이 정부고 또 입법조사관들 아니겠습니까?

물론 정부에서는 이걸 다 치열하게 기획예산처 논의를 통해서 왔기 때문에 정부안에 대해서는 정부는 최대한 방어하려고 하겠지요.

그런데 국회에 들어와서 위원들이 이렇게 여러 가지 예산을 요구하는 부분들은 위원들이 진짜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주변에서 협단체나 이런 쪽에서 부탁을 해서 의뢰해 가지고 들어오는, 사전 스크린 없이 들어오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부 측이라든지 입법조사관들이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 제대로 검토해서 수용, 수용 불가 이런 안을 제시해 줘야 되는데 무조건 수용, 수용, 수용……

그리고 이번 추경은 본예산하고 더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추경이기 때문에 본예산보다는 더 엄격하게 사업들에 대해서 검토해서 수용을 최소화해서 와야 정부안을 원안 그대로 통과시키는 데 그게 도움이 되는 거지 실질적으로 이게 그런 데 대한 검토도 없이 우리가 무작정 증액을 시켜서 예결위에 들어가면 오히려 필요한 예산들은 빠지고 불필요한 예산들이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거지요. 그러면 우리가 어렵게 해서 올린 것들이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되는 거 아닙니까, 예결위 가 가지고 다 삭감되니까?

이번에 들어온 사업들 중에서도 보면 실컷 우리는 문체위 안에 담아서 올렸는데 예결위 가서 삭감된 사업들이 다시 들어온 것들이 꽤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저는 다 이렇게 수용, 수용 해 가지고 지금 예산심의를 할 의미가 있는가 싶습니다.

○소위원장 박수현 알겠습니다, 김승수 위원님.

정리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십시오.

지금 김승수 위원님을 비롯한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말씀을 정리해 보면 이것이 전쟁 추경이다라고 해서 국민께 보고를 드리고 있는데 이게 전쟁과 무슨 상관이 있는가라고 하는 관점을 우리가 지금 굉장히 좁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전쟁 추경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상황이 그런 것이고 올해 국가의 경제는 좋아졌지만 바닥까지 온기가 아직 내려가지 않고 있는 이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조계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추가 세수를 가지고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 추경을 하는 것이고 거기에 전쟁 상황까지 겹쳐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인데 마치 우리가 이 전쟁 상황이라고 하는 위급한 상황만을 대비하기 위한 추경이다라고 좁혀서 보면 지금 김승수 위원님처럼 이런 모든 문제에 대한 지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쟁 추경이라는 그 이미지는 벗어 버리고 좋아진 국가 경기가 어떻게 밑바닥까지 내려갈 수 있도록 하는 데 우리 문화·체육·예술 분야에서 이것이 필요한 것인가를 폭넓게 설명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중에는 임오경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난 본예산에 이런 것 때문에 이것이 꼭 필요한데 처리하지 못했다는가 있는 그대로 설명을 하시고 너무 좁혀서 전쟁에만 딱 초점을 맞춰서 설명하시면 설명이 안 됩니다.

그렇게 폭넓게 위원님들의 이해를 구하시고 너무 전쟁 상황, 전쟁 추경이라는 데 위축이 되어서 좁게 설명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면 논리도 안 맞고 설명도 안 돼요.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전체적으로 국민경제, 국가경제, 민생을 활성화하기 위한 추가 세수를 이용한 그런 추경이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전체적으로 위원님들의 의견은 의견대로 꼭 다 듣겠습니다. 듣고, 꼭 필요한 보류할 사항만 해 주시면 그건 보류로 넘겨서 하고 가급적 위원님들의 의견은 속기록에 남기면서 의견을 존중하되 모든 것을 다 이렇게 하나씩 하다 보면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우선 전문위원의 보고와 위원님들의 의견을 꼭 한번 들어 보면서 꼭 보류할 사항만 우선 일차로 보류사항으로 하고 나머지는 또 한 번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행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다음 설명하시지요.

○수석전문위원 박재유 이어서 계속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승수 위원 위원장님, 앞에……

○소위원장 박수현 그러면 앞에서는 정연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4항 문화예술단체 운영 지원 건만 보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승수 위원 4항하고 2항하고 같이 보류를 해 주십시오.

○소위원장 박수현 좋습니다. 2항, 4항 보류입니다.

그다음에 6항부터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재유 계속 이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임오경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의견 차이가 있을 때 무조건 보류하자고 그래서 보류 의견만 들으시면 이견 안 되지 않습니까? 찬성 의견이 나오는 것도 들어 주셔야지요.

○조계원 위원 다시 논의하는 거 아니에요?

○소위원장 박수현 좋습니다. 그러면 보류 주장이 나왔을 때 다른 위원님들의 그에 대한 의견과 특히 이 안을 내신 위원님들의 의견을 필히 듣도록 그런 절차로 진행하겠습니다.

우선 넘어가고요.

다음 진행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재유 5페이지입니다.

연번 6번 문화예술 창제작 거점 조성과 관련하여 문화예술 전국 유통지원 사업에 지역 전시 개최 확대를 위하여 1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지방중소도시에서 뮤지컬 순회공연을 실시하기 위하여 5억 원을 신규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연번 7번은 예술활동증명 사업에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인력과 심의비 등을 위하여 13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며, 연번 8번은 문화창작공간조성 사업에 당인리 문화창작발전소 조성 사업 공사의 적기 완료를 위하여 180억 28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7페이지입니다.

연번 9번은 도서관 기반 조성 사업에 청년 인턴 400명 파견을 위하여 75억 원 증액 필

요 의견과 지역 작은 도서관에 냉난방비 등 운영비 지원을 위하여 37억 2100만 원 증액 필요 의견 그리고 도서관 이용 장벽이 큰 지역을 중심으로 팝업도서관 지원을 위하여 31억 8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각각 제시되었습니다.

연번 10번 박물관·미술관 진흥 지원과 관련하여 유가 상승 등으로 인한 공립·사립 박물관 및 미술관의 운영상의 어려움을 지원하기 위하여 52억 5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K-뮤지엄 지역 순회 전시 및 투어 지원 사업의 사업 대상을 확대하기 위하여 30억 원 증액 필요 의견이 각각 제시되었습니다.

여기까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수현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증액에 대해 다 수용이고요.

우선 6번 문화예술 전국 유통지원 이건 지역 대표 예술단체를 발굴하는 사업이라 꼭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6번 밑의 5억 원 증액하는 것도 역시 지역문화균형발전 뮤지컬 순회공연이라 꼭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6쪽 7번 예술활동증명 이건 지금 너무 지체가 되고 있어서 예술활동증명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합니다. 13억 증액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문화창작공간 조성, 당인리 문화창작발전소 조성하는 데 지금 꼭 필요한 최소한으로만 넣었습니다.

그다음에 7쪽 9번 도서관에 청년 인턴들이 가서, 청년들한테 일자리가 필요하니까 꼭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37억 이건 냉난방비입니다. 이것도 꼭 필요합니다. 다음, 8쪽 위의 도서관 기반 조성 31억 이건 팝업도서관으로 해서 접근 장벽이 높은 곳에 도서관이 가주는 겁니다. 꼭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10번 공사립 박물관·미술관 보조인력 지원 이것도 300명 해서 청년들 인건비 지원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9쪽의 K-뮤지엄 지역 순회 전시 및 투어 지원 이건 공사립 확대하는 겁니다. 이걸 꼭 필요합니다, 30억.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수현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김승수 위원 수석전문위원님, 지금 예술인 창작안전망 구축 관련해 가지고 7억 증액을 해 왔는데 김재원 위원님이 13억 증액을 또 이렇게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증액 이게 타당하냐는 거지요.

○수석전문위원 박재유 위원님들께서 대체토론이나 서면질의서상으로 제시한 의견에 대해서 저희 전문위원이 검토를 하는 데에는 일정 부분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

○김승수 위원 아니, 지금 우리 문체위 검토보고에 보면 7억도 세부적으로 내역을 분석해 보니까 1억 2000 정도 과다 편성됐다는 그런 의견이 여기 검토보고서에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7억에 플러스 김재원 위원님 13억 증액까지 이렇게 있는데 수석께서 결재하셨을 거 아닙니까, 검토보고서 했을 때?

그리고 당인리 같은 경우에도 이미 본예산에 253억이나 편성이 돼 있어요. 그걸 추경에…… 지금 2/4분기도 채 안 지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려 또 180억을, 거의 본예산 편성된 것만큼을 증액시킨다는 것 자체가 이게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까?

그다음에 도서관하고 박물관 300명, 400명 이렇게 해서 75억 또 52억 이렇게 해 왔는데…… 수요조사를 했냐? 수요조사를 했을 리가 없지요, 지금 정부안에도 안 들어갔고

여기에 바로 들어갔는데.

도서관하고 박물관 수요조사했습니까, 차관님?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담당 국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지역문화정책관 김용섭 지역문화정책관입니다.

도서관·박물관계랑 저희가 이야기는 나누었습니다. 나누었고, 실질적으로 작은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인력 부족을 겪고 있는 상황이어서 도서관계에 진출하려고 하는 청년 인턴 지원이 필요하다는 그런 의견이 있었어요.

박물관 같은 경우에도 전반적으로 인력 부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지금 물가도 올라가고 유가도 올라가고 그런 상황에서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가 사업을 반영했습니다.

○김승수 위원 도서관은 청년들에게 경험 제공한다 그래 놓고 또 뒤에 박물관·미술관은 운영상의 피해 복구를 위해서 보조인력 인건비를 제공한다.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안 돼요, 이것도. 운영상의 피해 복구하고 보조인력 인건비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지역문화정책관 김용섭 저희가 박물관·미술관 같은 경우에 일단 전문 인력하고 예비인력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서 인력들은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외에 그분들을 보조하거나 박물관의 어떤 행정적인 일이나 그런 것들을 보조하는 인력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금 52억을 하는 겁니다.

○김승수 위원 그러니까 운영상의 피해하고 인건비 제공하고 어떤 관계가 있느냐는 거지요. 유가 상승으로 인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기본, 오히려 고정적인 경상경비 지원 같으면 또 모르겠어요. 그거하고 인건비 지원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는 거지요.

○문화체육관광부지역문화정책관 김용섭 위원님, 박물관·미술관 같은 경우에 운영비용을 저희가 볼 때 인건비 쪽이 사실은 비율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높아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지원하기 위해서 보조인력 인건비를 추가한 거고요. 어쨌든 이 부분은 청년 일자리 창출하고 박물관·미술관의 인건비 비중이 워낙에 높기 때문에 그런 인건비를 지원하는 예산들을 올린 겁니다.

○김승수 위원 마무리를 하자면 7번은 오히려 감액을 실제 수요에 맞게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당인리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추가 증액은 불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청년 도서관 인턴하고 국공립 박물관·미술관 보조는 보류해서 실질적으로 수요조사, 어떤 식으로 배치하고 돈을 나눠 줄 건지 구체적인 계획서를 보고 결정을 했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소위원장 박수현 잠시만요.

우선 김승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김재원 위원께서 증액을 요구하신 예술인 창작안전망 구축에 대해서 김재원 위원님 의견을 한번 들어 보고 다음 진행하겠습니다.

○김재원 위원 안을 올린 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예술활동증명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술활동증명이 도입된 지가 꽤 되었는데 도입 당시에 등록을 한 인원이 상당히 많고 재등록을 해야 되는 시기가 거의 비슷하게 도래를 합니다.

지금 현재 예술활동증명 같은 경우에는 그 시스템이 상당히 노후해서 작년에 상임위 때였는지 국감 때였는지 제가 질의를 해서 이 시스템을 전부 개선해야 되는 게 아니냐는 말씀을 드렸었고 지금 여기 자료에는…… 상담 지원, 행정 인력, 발급 지원 이런 데 인건비라든지 처리 인력과 관련해서 또 심의비 등이 추가로 필요하다 이렇게 했는데 여기는 ‘등’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 안에 시스템 구축이 빠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3억 원이라는 돈이 거의 크지 않은 걸로 알고 있고요. 이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그때 제가 얘기 듣기로도 몇 억 정도가 소요된다 그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아직까지 처리가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최초 도입 이후에 예술활동증명 신청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서 지금 한 20만 명 되나요?

○문화체육관광부예술정책관 이용신 예술정책관입니다.

15만 4000명입니다.

○김재원 위원 거의 15만이 넘어가는 상황이라서 예전부터 예술인복지재단에는 인력이 많지 않았었기 때문에 최초 도입할 당시에 일주일간 집에 못 가고 잠서 근처 찜질방 같은 데 기거를 하고 씻고 그 처리를 하기 위해서 밤을 새고 그랬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도 그렇게 크게 나아지지 않았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또 예술인복지재단뿐만이 아니라 지역문화재단에서도 행정을 하거든요. 행정 심의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도 인력이 필요한 부분인데 15만이라는 예술인력 이것이 직접 지원을 하기 위한 자격요건을 갖추는 데 필수적인 부분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추경을 하는데 있어서 이 부분이 빨리 해결이 되지 않으면 직접 지원 부분을 집행할 수가 없는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시급한 거 아니겠습니까, 차관님?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예, 맞습니다. 지금 그 직원이 현원 9명인데 그중에 정규직은 4명밖에 안 되고 그래서 여기 추경 정부안으로 해도 10명밖에 못 늘립니다. 그래서 추가 제기한 13억으로 해 주시면 행정인력을 15명까지 더 늘릴 수 있어서 이렇게 되면 지금까지 적체된, 예술활동증명 발급이 안 된 것들을 그래도 조금이라도 좀 빨리 해소시키고자 하는 그런 노력입니다.

○김재원 위원 예술인들이 전체가 다 같은 연령대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시스템이라든지 서류 등록 같은 것에 굉장히 애로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상담 인력이 꼭 필요한 것도 맞고 행정을 도와줄 수 있는 인력이 상당히 필요하고요.

또 이 당인리 문화창작발전소 같은 경우에 이것이 올해 완공되기로 했는데 못 됐잖아요. 이것이 만들어지면, 이게 지금 창작공간조성입니다. 여기에서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지고 창제작에 도움이 되는, 예술인들에게 바로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그런 공간을 제공하자는 것인데 이게 올해 완공이 못 되고 있어요.

이것도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일환 아닙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예.

○김재원 위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빨리빨리 할 수 있는 것들은 우리가 구조와 공간을 만들고 이 전쟁 사태가 끝날 때까지 버티는 거, 직접 지원 이외에도 그 이후에도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어쨌든 우리가 그것을 넘어서 저축을 해 놓을 수 있는 그런 바탕을 만드는 게 이번 추경의 목적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수현 자, 그러면 이렇게 하세요.

지금 예술인 창작안전망 구축이라는 것은 이 어려운 시기에 꼭 필요해 보이고요. 또 김재원 위원님의 설명을 듣고 저도 지난 국감 때 하셨던, 시스템 구축까지 말씀하셨던 내용이 떠오르거든요. 그래서 전문위원이 어떤 이유로 검토보고서에서 이것이 좀 부적절하다는 취지의 의견을 냈는지 모르겠으나 김승수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이 분야 전문가이신 김재원 위원님의 설명이 매우 이해가 되는 측면이 있어서 김승수 위원님께서 이 부분을 오히려 감액해야 된다는 의견을 좀 양보를 해 주시되, 다만 김승수 위원님 의견 중에 청년 인턴 400명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산출 근거 그다음에 계획서 이런 것들을 추가로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고, 김승수 위원님께서 이 문제를 보류하자고 하셨으니 이 문제는 보류하고 나머지는 결정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김승수 위원 저는 당인리도 실질적으로 집행이 가능한 건지……

이게 김재원 위원님 말씀처럼 저도 돈이, 여력이 허락하면 진행 중인 사업들은 빨리 빨리 마무리하는 것이 맞지요. 그런데 지금 예산이 그렇게 풍족한 게 아니라는 거지요. 심지어 지방자치단체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까지 삭감하는 그런 정도로 어려운 재정 상황에 있기 때문에, 특히 추정 예산안은 굉장히 알뜰하게 쓰자는 부분이고.

예술활동증명과 관련해서는 시스템 구축뿐만 아니고 전체적으로 예술인복지재단에서 발급을 다 일괄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냐, 시도의 문화재단에서 어떤 식으로 역할 분담을 해야 될 것이냐. 이 부분도 보면 체계가 새롭게 정립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보면 오히려 지방의 예술인들 같은 경우에는 예술인복지재단까지 이 두 번의 절차를 거쳐서 와야 되는 그런 문제도 있고 서울까지 오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발급하는 사람들도 힘이 들지만 예술인들도 또 힘이 든단 말이지요, 예술활동 증명하는 데 있어 가지고. 그 부분을 어떻게 개선할 건지 그것도 같이 검토가 돼야 된다는 거거든요.

○소위원장 박수현 그 부분에 대해서, 김승수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일단 설명을 좀 드리시도록 하고요.

효율적 진행을 위해서 김승수 위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번 9번의 청년 인턴 파견 75억 원 증액 건에 대해서 보류하고 나머지는 일단 결정을 하고 넘어간 후에……

○김승수 위원 9번과 10번입니다.

○이기현 위원 저도 발언을, 아무리 손을 들어도 안 시켜 주시니까……

○소위원장 박수현 이기현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이기현 위원 9번, 10번 관련해서 발언하려고 계속 손 들었는데 계속 패싱당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박수현 손을 드신지 못 봤습니다.

○이기현 위원 경제위기입니다. 그리고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에서 넘어온 배들이 안 들어오기 시작해서…… 배가 오는 데 20여 일이 걸리고요 한국에 아직 유조선이 꽂기지 않았습시다. 곧 꽂깁니다. 제가 알고 있는 통계로는 4월 4일서부터 일주일간 유조선은 한 대도 안 들어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유가가 정유사에 묶여 있을 뿐이지 실제로 정유사도 가지고 있는 기름들이 소진되고 이제 정말 위기가 시작되는 겁니다. 대체 원유선 확보도 녹록지 않습니다. 그런 와중에 이번 추경이 계획되었는데, 저는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심사하는 과정에서 가장 차가운 데는 어디인지 또 가장 고통을 먼저 당하는 곳은 어딘지를 보고 추경을 잡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9번에 나와 있는 인턴 400명에 대한 수요 조사가 부족하다고 말씀 주셨고 또 10번에 나와 있는 보조인력 300명 인건비 지원 52억 5000만 원 이런 내용 관련해서는 저희가 이것에 대한 면밀한 검토도 중요하지만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는 다른 문제, 당인리 발전소 180억 얘기는 제가 뭐라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당인리 발전소는 계획대로 못 가고 있었어요. 굉장히 늦어지고 있어서 지금 원안대로 가는 것을 맞추기 위해서 180억이라고 하는 많은 예산을 증액한 것으로 이해를 해서 제가 동의를 했던 건데…… 그렇습니다. 계획대로 안 가는 건설 현장으로 돌려야 되겠지요. 또 문화 향유의 공간도 빨리 만들어야지요. 서울시민들, 특히 마포와 서울 서북부 시민들에게 당인리 발전소가 문화공간으로 조성되는 데 대한 많은 기대가 있었는데 벌써 10년 넘게 속도가 굉장히 늦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한 예산이라고 생각했고.

인턴 400명과 보조인력 300명의 문제는 청년들의 실업 문제, 그리고 청년들이 오히려 이제는 취업을 포기하는 상황까지 가 있습니다. 저는 문화 인력들에 대해 이럴 때일수록 조기에 기회라도 제공해 줘서 이분들이 이곳에서 일하면서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특히 전쟁으로 인한 경제위기를 조금이라도 더 피해 갈 수 있는 자리를 문화체육계 공간에서 만들어 주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9번과 10번에 대해서 저는 원안 통과를 요청합니다.

(박수현 소위원장, 임오경 소위원장직무대리와 사회교대)

○소위원장직무대리 임오경 잠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회법 제57조제3항에 따라 본 위원이 사회를 진행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보류 의견도 나왔고 찬성 의견도 나왔는데,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9번에 관련해서 도서관 분야로 진로를 계획하는 청년들의 구직활동 어려움 증가에 따른 직무경험 기회, 저 또한 지금 이 상황에서 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요. 또한 도서관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이나 도서관 방문이 어려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서비스를 통한 문화격차 해소도 저희가 계속해서 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 또한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요. 박물관·미술관 운영 부담에 따른 일자리 침체가 이어질 수 있어 일자리의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와 관련된 거기 때문에 10번에 관련해서도 지원 사업이 저 개인적으로도 필요하다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다른 위원님 의견 없으십니까?

지금 김승수 위원님은 9번, 10번 보류를 하자고 하셨나요?

○김승수 위원 예.

○소위원장직무대리 임오경 위원님들께서 의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류 의견도 있고 찬성 의견도 있고 그런데 계속해서 이것을 보류로 남겨야 되는 건지 아니면 우리가 건바이 건으로 여기서 거수로 의결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조계원 위원 아까 박수현 위원장님께서 신속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일단 합의가 안 되면 보류로 넘기기로 했으니까 전체적으로 신속하게 검토하고 나중에 시간이 된다면 보

류 안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하는 걸로 하시지요.

○소위원장직무대리 임오경 그러면 9번, 10번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유 수석전문위원께서는 심사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재유 이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연번 11번 국립중앙박물관 운영과 관련하여 청사관리 및 환경개선 사업에 41억 500만 원 증액 필요 의견과 관람 편의 개선 사업에 개방형 지식정보센터 신규 조성을 위하여 23억 5400만 원 증액 필요 의견과 고객정보통합관리 플랫폼 구축을 위하여 6억 7000만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함께 제시되었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연번 12번 도서관정보서비스 구축 운영과 관련하여 AI 시스템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35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국립중앙도서관 디지털화 원문을 인공지능 학습데이터로 구축하기 위하여 2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연번 13번은 당초 제시되었던 감액 의견이 철회되었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연번 14번은 콘텐츠 분야 우수인재 연계 기업인턴십 사업에 소요되는 추가 운영비 지원을 위하여 4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2026 대중문화예술인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사업의 장르 확대 및 교육 내실화를 위하여 4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14페이지입니다.

연번 15번 영상콘텐츠산업 육성과 관련하여 IP활용·청장년층·극장용 애니메이션 제작 지원 사업에 제작지원 물량 확대를 위하여 5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폐지된 신규 캐릭터 IP 기획·개발 사업 지원 예산을 복원하기 위하여 3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오늘의 우리만화 사업 지원을 위하여 1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각각 제시되었습니다.

여기까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직무대리 임오경 다음은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9쪽 11번 국립중앙박물관 운영, 청사관리·환경개선 사업하고 관람 편의 개선 두 건이 있는데 국립중앙박물관에 요즘 워낙 사람이 많이 몰리고 외국에서 오신 관람객들도 많이 오기 때문에 꼭 필요한 사업들입니다. 수용하고요.

그다음에 11쪽 도서관정보서비스 운영 이것은 35억, 20억 증액 의견이 있는데 AI에 대응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수용합니다.

그다음에 13번 철회되었고.

14번 콘텐츠산업 생태계 조성은 인턴십하고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이거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음 14쪽 15번 영상콘텐츠산업 육성은 애니메이션하고 캐릭터하고 만화 이 세 가지인데 꼭 필요했던 사업들입니다. 수용합니다.

○소위원장직무대리 임오경 이어서 위원님들 질의·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수 위원** 차관님, 여기 국립중앙박물관 개방형 지식정보센터 신규 조성 사업 좀 설명해 주세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이것은 27년 하반기 관람료 유료화 시행과 연계해서 관람객 편의시설 확충하고 고품질 문화서비스 확대 제공을 위해서 개방형 지식정보센터 구축·운영하는 예산입니다.

○**김승수 위원** 그러면 개방형 지식정보센터는 내용이 뭐예요? 어떤 거 신규 조성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문화체육관광부지역문화정책관 김용섭** 지역문화정책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개방형 지식정보센터는 저희가 보존과학센터를 건립하면서 원래 보존과학부가 있던 자리에 지금 관람객도 많고 대기하시는 분도 많고 하기 때문에 개방형 편의시설로 저희가 만들려고 하는데, 이 안에 들어가는 게 라키비움 형태의 북카페가 들어가고 문화상품점이 들어가고 전시 체험할 수 있는 공간, 그래서 어쨌든 관람객을 분산하면서 관람객들의 편의를 좀 높이기 위한 그런 공간을 저희가 지식정보센터라는 이름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승수 위원** 지식정보센터 그러니까 무슨 IT 관련되는 사업처럼 보이잖아요.

그다음에 아까 차관님은 뒤에 도서관정보서비스 구축, AI 관련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그러는데 저도 필요한 사업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만 이게 추경에 이런 식으로 들어가야 될 사업이나.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정부안에 담으려다 못 들어간 거예요, 아니면 정부안과 관계도 없이 이번에 그냥 불쑥 이렇게 들어온 거예요? 이것도 좀 설명해 주세요.

○**문화체육관광부지역문화정책관 김용섭** 위원님, 이게 저희가 25년도에 25억을 가지고 학습데이터 구축 사업을 했는데요 작년도에 본예산에 사실은 담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을 통해서 도서관에서 갖고 있는 저작권이 해결된 AI 학습데이터를 구축하는 사업들을 계속 추진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추경에 불가피하게 담게 되었습니다.

○**김승수 위원** 그러니까 이게 보면 밑에 사업이 그런 거 아니에요. AI 데이터 구축 관련해 가지고 학습데이터로 한다는 게 그거잖아요. 그런데 위에 것은 또 별개의 사업 아니에요?

○**문화체육관광부지역문화정책관 김용섭** 그런데 AI 텍스트 데이터 구축하면 그것을 관리하는 서버나 이런 것들을 개방하는 그런 인프라도 필요하기 때문에 같이 연계해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김승수 위원** 그러니까 정보시스템 마스터플랜 수립하고 이런 게 35억 원으로 될 사업이 아니라고 지금 생각이 든다는 거지요. 이것은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만약에 또 여러 가지 정보시스템 구축에 따른, 그것을 거쳐서 해도 이게 제대로 구축이 돼서 작동을 할까 말까 한데 이런 식으로…… 예결위 가도 통과 안 될 것 같습니다마는 밑에는 이미 저번에 했던 것에 대해서 추가적인 사업이라 이해가 된다 하더라도 위의 것은 이번 추경에 이런 식으로 갑자기 넣어야 될 사업이 아니다 이렇게 판단이 된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저는 12번 사업에 대해서는 위의 것은 일단은 반대를 하고 밑의 것만 찬성을 합니다.

○소위원장직무대리 임오경 저도 정부 측에다 질문 한번 할게요.

국립중앙도서관 디지털화 원문을 AI 학습데이터로 구축하기 위하여 20억이 증액되기를 원한다고 했어요. 2026년도 본예산에도 담지 못했다고는 하는데 지금 시스템 인프라 구축이 먼저 아닌가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예, 위원님 정확하십니다. 그러니까 시스템 인프라 구축을 35억으로 하고 그다음에 학습데이터로 가는 게 순서인데요. 밑의 것 20억만 가면 이게 약간 좀 뜁니다.

○소위원장직무대리 임오경 그러니까 지금 이것을 보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AI 시스템 인프라를 구축을 해 놓고 그리고 학습데이터를 구축하기 위해서 AI를 활용해야 되는데 밑의 것은 학습데이터를 구축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해서 시스템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이 없다고 하면 이게 가능한 겁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둘 다, 그러니까 앞의 게 사실은 선행 사업이고 뒤의 게 후행이니까 같이 가는 게 좋습니다.

○소위원장직무대리 임오경 그래서 차관님, 제가 설명을 좀 잘해 주시라고 하잖아요. 저는 지금 이 자료를 보고 질문을 한 겁니다.

○김승수 위원 차관님이 그렇게 설명하시면 안 되지요. 뒤의 학습데이터는 중앙도서관 내부적으로도 할 수 있고 이것은 학습데이터를 통해서 일반인들한테 공개를 해 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일반 국민들도 활용하기 위한 그런 데이터를 구축한다는 부분이고 위의 것은 중앙도서관 내에 이런 식으로 인공지능 활용을 위한 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예, 그게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김승수 위원 당연히 연계는 되는데 위의 것이 굉장히 기본적인 시스템 구축 사업이기 때문에 이렇게 추진하는 것이 맞나 하는 의문점을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주권 AI가 굉장히 급한데 사실 1년이 급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이걸 사실 지난 본예산에 못 넣었는데 지금이라도 넣어서 5월부터라도 구축이 되고 올해 안에 학습데이터 제공이 되면 주권 AI뿐만 아니라 우리 중소기업이나 이런 데 큰 도움이 될 걸로 생각합니다. 이것은 수용해 주시면……

○김승수 위원 알겠습니다.

○소위원장직무대리 임오경 그러니까요. 제가 들어 봐도……

○김승수 위원 다른 낭비성 사업보다는, 또 어차피 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준비를 제대로 해야 돼요, 이것 통과가 쉽지 않을 거지만.

○소위원장직무대리 임오경 다음은 박재유 수석전문위원께서 심사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재유 이어서 15페이지 연번 16번입니다.

음악산업 및 대중문화산업 육성과 관련하여 다장르 음악 제작 지원사업에서 인디음악의 지원 확대를 위하여 7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대중음악공연 지역개최 활성화 지원사업에서 장거리 운송이 전제되는 지역의 대중음악공연 개최 확대를 위하여 7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공정한 음악 유통 환경 조성 지원사업에서 암호신고센터 확대, 현장 모니터링단 운영 등을 위하여 60억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두

루두루 찾아가는 대중음악콘서트 사업 지원을 위하여 15억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국민한마음대축제 개최 지원을 위하여 10억 원을 신규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연번 17번 게임산업 육성과 관련하여 이스포츠 국제경쟁력 강화 사업 지원을 위하여 6억 원을 신규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과 연번 18번 온라인동영상서비스 특화 콘텐츠 제작 지원사업의 제작 지원 물량 확대를 위하여 5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연번 19번은 온라인 저작권침해 재택 모니터링 사업에서 모니터링단을 70명 증원하기 위하여 4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20페이지입니다.

연번 20번은 대한민국 전통 정신문화 해외 홍보 및 교류 사업을 위하여 10억 원을 신규로 반영하려는 것이며, 연번 21번은 전통사찰보존 사업의 소방시설 구축 지원 예산 22억 5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여기까지 일반회계에 대하여 보고드립니다.

○소위원장직무대리 임오경 다음은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먼저 15쪽 16번 이것은 인디음악 지원을 위한 거고요.

16쪽의 70억 원은 지역개최 활성화고 장거리 운송이 필요한 곳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그 밑의 60억은 이번에 압표를 근절하기 위한 공연법이 통과되어서 그 시행이 되면 꼭 필요한 돈입니다. 60억 원이 증액이 되어야 합니다.

그다음 17쪽 두루두루 찾아가는 대중음악, 국민한마음대축제 이것은 둘 다 지역문화 진흥에 관계되어 있어서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다음에 18쪽 17번 이것은 저희가 이스포츠 중주국으로서 꼭 필요한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18번 온라인동영상(OTT) 특화 콘텐츠 제작 지원은 우리가 스스로 자체 제작하는 것이 점점 줄고 있어서 이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19쪽 19번 저작권 보호 활동 이것도 역시 아까 압표와 같이 저작권법 개정이 있었는데 개정된 다음에 모니터링이 정말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20쪽 종교문화활동 지원, 대한민국 전통 정신문화 해외 홍보 및 교류 사업입니다. 10억 원 증액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음, 21번 전통종교 문화유산보존 이것은 전통사찰 보존이 방재시스템은 거의 구축이 됐는데 소방시설이 지금 구축이 안 돼 있어서 우선 시작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22.5억 필요합니다.

○소위원장직무대리 임오경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수 위원 차관님, 여기 다장르 음악 제작 지원 세 분 위원님께서 70억 증액. 저도 인디음악 지원 이런 데 추가적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는 생각을 합니다마는 이게 본예산이 13억 원인데 추경에 인디음악에 대해서 다장르 음악, 여러 음악 있지 않습니까? 포크, 록, 밴드음악 쪽 있는데 인디음악 지원에 70억 증액이라는 것이 타당성이 있느냐. 예결위

가서도 여러 가지로 문제 제기가 되겠습니다만 그래도 기본 상식선에서 예산안을 수정 수용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리고 그다음에도 마찬가지로입니다. 고유가 여파로 물류비도 70억, 대중음악공연 개최를 위해서 70억 증액, 이 70억 같으면 물류비도 물론 증가되겠지만 지역마다 예술인들이 있는 것 아니에요. 물류비 70억 증액할 것 같으면 지역에 있는 문화예술인들을 활용해 가지고 음악공연 지원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으로 맞는 것 아니에요? 이런 부분도 상당히 저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압표, 당연히 공연법 시행에 따라서 추가적인 예산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60억 증액이 맞는 건지 꼭 필요한 예산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자료를 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종교와 관련해서 국가브랜드 강화 및 전통불교문화의…… 이게 아주 두리몽실하고 아무런 내용도 없는 것 같아요. 그냥 10억. 이게 무슨 사업계획이 있습니까? 20번이요, 20페이지의. 사업계획 있나요, 이것?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담당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종무1담당관 김재춘 종무담당관 김재춘입니다.

동 사업은 한국 불교전통문화 콘텐츠의 국제 민간 교류 지원 차원으로 저희가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김승수 위원 그러니까 그런 두리몽실한 사업에 대해 가지고 추경에 10억을 넣는 것이 맞느냐는 거지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6번 사업에 대해서는 보류로, 또 그리고 20번 사업은 제가 반대 입장을 분명히 말씀드렸고 16번 사업에 대해서는 보류해서 구체적인 내역이나 이런 것들 보고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위원님, 16번 사업은 정말 세 가지 다 절실하거든요. 그러니까 우선 인디음악은 작년에 30대 이하 비율이 84%였습니다, 지원한. 경쟁률이 13대 1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수요가 엄청 많고 젊은이들이 하려고 하는데 이게 돈이, 본예산이 워낙 적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꼭 좀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김승수 위원 제가 지금 이 사업이 불필요하다는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규모 말씀하시는데……

○김승수 위원 본예산에 13억 원 잡혀 있는데 여기에 70억, 뒤에 물류비 70억, 140억 원 증액이 가당키나 하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수요가 충분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 두 번째 70억 장거리 운송은 위원님이 계속 주장을 해 주셔서 가지고 저희가 찾아가는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서울·경기권의 좋은 공연이나 전시가 지역으로 찾아가 수 있도록 많이 준비를 해 놔는데 그것들이 고유가로 인해서 운송비가 많이 늘어날 것으로 생각해 가지고 올린 거고요. 그다음에 60억도 모니터링단 운영을 위해서 꼭 필요합니다.

이 세 가지는 꼭 필요한 걸로 저희들이 봤습니다.

○김승수 위원 그러니까 보류해 가지고 이 액수가 필요한지를 구체적으로 보여 달라는 거지요.

○소위원장직무대리 임오경 일단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없어

서.

16번 음악산업 및 대중문화산업 육성 관련해서 제가 한말씀드리면 경기침체, 투자 위축으로 또 우리 소규모 저예산 위주인 포크, 록, 밴드, 재즈 종사자 등 이탈 및 청년 일자리 감소가 우려되는 만큼 정부 차원에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저는 필요하다라고 보는 입장이고요.

또 20번을 말씀하셨는데 종교문화 활성화 지원 관련해서 국제문화행사지원법이 제정법이 통과가 되었지요. 이것 민간 사업이라고 그래서 무조건 다 수용을 하는 건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것을 문체부에서 잘 검토를 해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아마 이게 올라온 사업이 제가 알기로는, 통도사 성과 스님입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예, 조계종……

○소위원장직무대리 임오경 제가 알고 있는 거예요. 알고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민간이 K-컬처를 위해서 미국까지 직접 가서서 하버드대에서 강연을 하시고 전시회를 하시면서 K-컬처를 알리는 사업을 계속해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 얘기를 계속해서 들으면서, 한두 번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 해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민간이지만 우리 K-컬처를 위해서 종교에서 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은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요청을 드린 건데 정부 차원에서도 또 김승수 위원님 말씀을 하셨는데 꼭 저 개인에서 생각을 한 것만은 아니고 진짜 이것 K-컬처에 큰 역할을 해 주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반대의견 나온다면 저는 이것 철회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김승수 위원님, 20번은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이 있는 면이 사실이기 때문에 이것은 철회가 돼도 사실 정부도 반대를 못 하겠는데요. 그런데 16번의 70억, 70억, 60억 이것은 꼭 고려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승수 위원 그것은 제가 반대한다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역을 좀 보여 주면……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예, 알겠습니다.

○김승수 위원 그리고 뒤의 20번 같은 경우에도 왜 제가 반대를 했느냐면 ‘성과선예’, 큰스님의 예술성, 불교예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도 누구보다도 참 존경하고 공감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널리 알려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걸 떠나서 종교문화활동 지원 예산이 228억 있지 않습니까, 기존에?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여러 종교단체에서 문화예술활동을 요청한다고 해서 그냥 하던 대로 지원해 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액수가 딱 한정돼 있다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이렇게 총액으로 들어와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기존에 본예산 편성할 때 절차나 이런 것들 추경에 같이해서 추가 공모를 해서, 특정 사업을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어느 정도 액수를 잡아서 추가로 공모해서 한다는 지 이런 식으로 절차를 밟아 달라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사업이 하나로 들어와서 가 버리면 기본적으로 본예산 할 때 여러 가지 체계나 이런 것들이 흐트러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반대의견 냈던 겁니다.

○소위원장직무대리 임오경 조계원 위원님.

○조계원 위원 17페이지 두루두루 찾아가는 대중음악 콘서트 이걸 15억 원이나 증액했는데 콘서트가 몇 건이나 되는 겁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담당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계원 위원 신규사업으로 편성돼 있는데……

준비하는 동안, 또 그 밑의 국민한마음대축제 이 축제는 여러 건인가요, 아니면 1건 사업에 10억 원 증액입니까?

○문화체육관광부콘텐츠미디어산업관 최성희 지금 3·1절이나 광복절 등 국경일 계기로 여러 건 제기한 사업입니다.

○조계원 위원 대략 몇 건 정도예요? 음악 콘서트…… 예정돼 있는 겁니까? 그리고 그 건 공모 방식인가요, 아니면……

○문화체육관광부콘텐츠미디어산업관 최성희 공모 방식으로 해야 할 것 같고요, 지금 한 3회 정도 예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하신 두루두루 찾아가는 대중 콘서트 같은 경우도 전국 순회형으로 하는…… 그러니까 다회, 여러 군데를 다니면서 하는 콘서트 개최 계획입니다.

○조계원 위원 이것은 공모로 하겠다?

○문화체육관광부콘텐츠미디어산업관 최성희 예, 맞습니다.

○조계원 위원 국민한마음대축제는요?

○문화체육관광부콘텐츠미디어산업관 최성희 국민한마음대축제도 공모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계원 위원 공모로요.

그러면 축제는 몇 건 정도?

○문화체육관광부콘텐츠미디어산업관 최성희 국민한마음대축제는 3회 정도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조계원 위원 이것도 3회요?

○문화체육관광부콘텐츠미디어산업관 최성희 예.

○소위원장직무대리 임오경 김재원 위원님.

○김재원 위원 저는 16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디음악이 무엇이냐? 인디음악이야말로 지역에 있는 예술인들이 밴드를 결성해서 하는 다양한 장르가 많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소규모이기 때문에 이런 재난 사태에 인기가 어느 정도, 중급 이상 정도 되는 음악팀들은 살아 남는 경향이 조금 있어요. 그러나 인디 밴드들은 제일 먼저 죽습니다, 행사 다 없어지고요 그다음에 개런티를 주겠다는 곳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인디의 그런 특성상 전국에 다 퍼져 있다는 겁니다. 사실은 지역예술인들을 위한다고 그런다면 주로 청년층인 이러한 다양한 장르에, 전국에 퍼져 있는 인디를 돕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본예산 13억 원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장르의 음악 제작에 투입이 된 돈이었고 지금 여기의 70억 원 증액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뿐만이 아니라 뒤의 대중음악하고도 연동해서 지역 콘서트 같은 것들을 개최하겠다는 뜻으로 들리거든요. 이런 데서도 개런티를 못 받으면 어떻게 먹고살겠습니까?

아까 처음부터 제가 여러 번 강조했던 부분이지만 판이 갈아져야 거기서 돈을 벌어서 살 수 있는 게 예술인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열을 올리면서 말씀을 드려서 참 죄송한데요 그런 부분에서 음악 제작 지원이 본예산에 편성되었다면 지금 같

은 시기에 이런 판을 깔아 주는 게 부모의 마음 아니겠느냐, 국가의 마음 아니겠느냐.

제가 한번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기획사하고 소송이 나서 한참 쉬고 있을 때가 있었어요. 어머니가 뭐라도 해 보라고 돈을 주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음악학원을 차리고 겨우 살아남아서 겸임교수도 하고 가수 활동도 다시 하게 됐습니다. 몇 년간이나 그렇게 틀어박혀 있어야 될지도 모르는 그런, 아주 침체된 그런 분위기 속에서 이 사람들을 방치하면 그대로 방 안에 주저앉게 됩니다.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국가에서는 부모의 마음으로 이 사람들을 지원해 줘야 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직무대리 임오경 위원님들이 좋은 의견들을 많이 주셨는데 수익성 악화로 지역 공연이 위축될 수 있는 만큼 저는 지역 공연 접근성 제고 및 지역 소비 관광 연계 효과 유지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규 사업으로 들어와 있지만 조계원 위원님이 질의한 것처럼 이게 공모사업이든 직접지원이든 잘 검토하셔서 진짜 모든 지역 간에 차이가 없도록 잘 지원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으로 저도 수용합니다. 그리고 20번은 철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유 수석전문위원께서 심사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재유 16번은 그러면 보류 사업이 아닌……

○소위원장직무대리 임오경 아닌 걸로.

○수석전문위원 박재유 예, 알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부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지역지원계정입니다.

연번 1번 국민문화활동지원과 관련하여 22페이지 부분은 당초 제시되었던 감액 의견이 철회되었으며, 문화가 있는 날 기획프로그램 운영 사업에 민간협력마케팅 85억 원, 산업단지 문화뉴딜 100억 원, 복지시설 문화뉴딜 100억 원, 총 285억 원을 증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과 문화선도산단 지원 사업에서 지역 노후 산단 2개소를 추가로 선정하여 특화 문화프로그램 기획·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24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지역 국제문화예술교류 활성화 지원 사업을 위하여 8억 1000만 원을 신규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각각 제시되었습니다.

연번 2번은 폐산업시설 등 유희공간 문화재생 운영 지원을 하기 위하여 182억 원을 신규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26페이지입니다.

연번 3번 지역 콘텐츠산업 균형발전 지원과 관련하여 26페이지의 감액 의견은 철회가 되었으며, 문화가 있는 산업단지 조성 사업에서 지역 노후 산단 2개소를 추가로 선정해 특화 문화프로그램 등을 지원하기 위해 10억 원을 증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이어서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특별회계입니다.

연번 1번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3.0 수립 방안 연구를 위하여 14억 원을 신규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고, 연번 2번은 아시아 역사문화단지 사전타당성조사 용역을 위

하여 1억 원 증액을, 그리고 연번 3번은 지역 소상공인과 함께하는 문화예술 협력사업 추진을 위하여 10억 원을 각각 신규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일단 여기까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직무대리 임오경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우선 23쪽 문화가 있는 날이 매주 수요일로 확대되면서 꼭 필요한 돈입니다. 수용합니다.

그다음 24쪽……

○소위원장직무대리 임오경 잠깐만요, 차관님. 문화의 날이 매주 수요일이라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꼭 필요합니다’ 이 한 말씀만 하하지 마시고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급해서……

○조계원 위원 매월에서 매주로 바뀐 것 아니에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예, 매주로 바뀌는데 이게 여태까지는 그냥 매월 마지막 수요일에 한 번 하고 그것을 그냥, 사실은 정책적인 의지를 크게 안 실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매주 수요일로 바뀌면서 전국에서 수요일은 진짜 문화로 실컷 놀자 그런 취지이기 때문에 그 정도의 규모와 사업 용량이면 285억 정도는 필요합니다.

그다음, 24쪽 문화선도산단 이것은 저희 부랑 산업부, 국토부 같이 해서 합동으로 하는 노후 산단에 대한 지원인데 굉장히 수요도 높고 반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2개소 더 추가로 선정하겠다는 뜻으로 24억 추가했고요.

그다음, 25쪽 지역 국제문화예술교류 활성화 지원은 아시아, 아프리카, 남미지역까지 같이 해서 다양한 문학, 시각예술, 다큐 이런 분야까지 분야를 좀 넓혀서 시상도 하고 포럼도 하고 하자는 사업입니다. 8억 1000만 원 필요합니다.

다음, 폐산업시설 등 유휴공간 문화재생 운영 지원 사업 이것도 역시 폐산업시설을 활용하는 사업입니다. 필요하다고 봅니다. 수용합니다.

다음, 27쪽 문화가 있는 산업단지 조성 이것도 아까 처음 말씀드린 산단 그것하고 같은 사업인데 같이 선정해서…… 부서가 달라 가지고 이렇게 좀 다르게 돼 있습니다. 10억 원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음, 28쪽 아시아문화중심도시 3.0 수립 방안 이것은 지난번에 전남 광주 통합, 유효기간이 연장되는 법률 개정안이 통과됐으니까 이것을 연구할 필요가 있어서 연구용역비를 14억 추가했습니다. 필요합니다.

다음, 29쪽 아시아 역사문화단지 아트-헤리티지 특화거리 조성 이것은 새로운 사업이기 때문에 사전타당성 용역조사에 1억 원 필요합니다.

다음, 지역 소상공인과 함께하는 문화예술 협력사업 이것도 지역예술로 지역경제를 진흥하자는 사업입니다. 10억 원 꼭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직무대리 임오경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수 위원 차관님, 지금 설명하신 사업 내역들 다 검토해 보셨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예, 실무부서에서 다 검토를 거쳐서……

○김승수 위원 아니, 차관님이 내용을 파악하고 계시냐는 거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예, 저도……

○김승수 위원 여기 국민문화활동지원의 민간협력마케팅 85억, 산업단지 문화뉴딜 100억, 복지시설 문화뉴딜 100억, 이 사업들 내역이 어떻게 됩니까?

○문화체육관광부지역문화정책관 김용섭 지역문화정책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민간협업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사립 박물관·미술관·도서관, 민간 문화예술기관 특화프로그램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100개소 해서 한 8000만 원씩 지원하는 걸로 잡고 있고요.

산업단지 문화뉴딜 사업은 전국에 산업단지가 한 1330개소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 중에 한 10개 정도 선정해서 거기서 수요일 날 공연, 전시 이런 문화프로그램들을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복지시설 문화뉴딜 같은 경우에는 전국에 복지시설이 4만 개 정도 되는데 노인·아동·장애, 그러니까 취약계층을 위한 수요일 문화프로그램들을 복지시설과 같이 연계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4만 개인데 일단 100개소 정도 해서 개소당 한 9000만 원 정도 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김승수 위원 산업단지 문화뉴딜이 그러면 10개소 같으면 10억씩 준다는 거예요?

○문화체육관광부지역문화정책관 김용섭 9억 정도 됩니다.

○김승수 위원 9억을 줘 가지고 공연은 몇 번 한다는 겁니까?

○문화체육관광부지역문화정책관 김용섭 공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사실은 매주 문화가 있는 날이 됐기 때문에 공연은 공연 규모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는데 공연, 전시 이런 것들을 같이 엮어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공연 같은 경우는 산단별로 한 3억 정도씩 저희가 배정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전시는 2억, 기타 축제 같은 것들을 같이 할 계획입니다.

○김승수 위원 그러니까 10개 단지만 한다고 하면서…… 그러면 10개 단지에 각각 아까 얘기했던 3개 프로그램 예산을 같이 준다는 겁니까?

○문화체육관광부지역문화정책관 김용섭 예, 그렇습니다. 지역에 있는 문화재단하고 저희가 연결해서 지역 산단에 있는 근로자 대상으로 문화가 있는 날 프로그램들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김승수 위원 이게 보면 그러는 것이 너무 지역적으로 편중된 지원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지요. 또 민간협력마케팅 이런 것들은 민간 박물관이나 이런 데 돈을 그냥 나눠 주겠다는 그거네요? 이 부분을 어떻게 선정할 것인지 그런 계획 좀 서 있습니까?

그리고 뒤에 노후 산단 2개소, 문화환경이 취약한 데 특화프로그램 24억 증액하겠다는 문화선도산단 지원 사업, 또 뒤에 10억 지원하겠다는 문화가 있는 산업단지 조성하고 이 사업의 연계성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추가로 진행하겠다는 산단 2개소는 같은 산단인 거예요?

○문화체육관광부지역문화정책관 김용섭 문화선도산단은 저희가 산업부 국토부 문체부 같이 해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김승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 24페이지에 있는 것하고 27페이지에 있는 사업하고 24억, 10억의 연계성이 어떻게 되느냐고요.

○문화체육관광부지역문화정책관 김용섭 일단은 저희가 추가 공모해서 2개가 추가되면

12억하고 10억이 그 산단에 같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사업 내용이 좀 다르고요.

앞에 있는 24억짜리는 문화프로그램 운영하는 사업이고요. 뒤의 10억짜리는 지역……

○**김승수 위원** 그러면 2개 합치면 34억 아니에요. 산단 2개소가 각각 다른 산단이에요, 아니면 같은 산단이에요, 2개소 추가로 한다는 것이?

○**문화체육관광부지역문화정책관 김용섭** 2개가 같은 산단입니다.

○**김승수 위원** 그러면 본예산은 지금 15억밖에 안 됐는데 산단 몇 군데에 15억 주려고 그랬나요?

○**문화체육관광부지역문화정책관 김용섭** 저희가 문화선도산단은 본예산에 3개소 하는 걸로 반영돼 있습니다.

○**김승수 위원** 36억하고 이쪽의 15억하고 해 가지고 그러면 51억이네요.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부지역문화정책관 김용섭** 예, 그렇습니다.

○**김승수 위원** 그러니까 여기는 몇 개 산단에 얼마씩 주려고 했던 거예요?

○**문화체육관광부지역문화정책관 김용섭** 문화선도산단은 산단별로 17억씩 들어갑니다. 12억 플러스 5억씩 해서 각각 1개 산단에 17억씩 들어갑니다.

○**김승수 위원** 일단 앞서 말씀드린 대로 뉴딜사업들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일단 액수가 너무 크니까 보류해 가지고 구체적인 사업 내역을 보고 결정하도록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아특 관련해 가지고 아시아문화중심특별회계, 이게 완전히…… 용역비가 14억, 사실은 뒤의 역사문화단지 사전타당성 용역비 해서 용역비가 15억 원이나 들어가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의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사업에 대해서 전체적인 틀을 새롭게 정립하기 위한 그런 용역으로 봐야 된단 말이에요. 이런 예산은 이런 추경에 들어갈 예산이 아니라고 저는 확실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내년도 본예산에, 용역이 필요하면 용역비가 이 정도 필요한지 여부를 꼼꼼히 따져서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뒤의 몇 가지 10억짜리 사업들 이런 것들도 보면, 지금 기존의 본예산만 하더라도 아시아문화전당 콘텐츠 및 운영에 벌써 700억 이상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추가적으로 새롭게…… 매년 아시아문화전당의 여러 가지 사업들이 집행 부진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지적을 받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기존에 있는 사업 가지고 조정을 해도, 보면 오히려 더 이야기를 들어야 될 텐데 계속 정부 예산에다가 국회에 들어오면 추가되고 또 추경에까지 들어가야 될 예산이나……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좀 반대를 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지역문화정책관 김용섭** 지역문화정책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연구용역 사업을 담은 것은 저희가 광주전남통합시가 되면서 환경 변화가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저희가 22년도에 3차 수정계획을 해서 5년마다 종합계획 수정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종합계획 수립 방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전반적으로 수정 종합계획을 하기 위한 연구용역비가 들어가 있는 부분이고요.

뒤의 아시아 역사문화단지 조성 같은 경우에는 작년 본예산에 담지 못한 부분이 좀 있어서 기본계획 타당성조사 예산이 1억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김승수 위원** 기본적으로 아특법은 이미 다 끝났어야 될 사업을 지금 몇 번 기간 연

장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아시아문화중심도시는 광주지 전남 지역이 아니에요. 그런데 통합하고 이것하고 왜 같이 갖다 붙이려고 그래요? 지역의 범위를 그런 식으로…… 그러면 또 법을 바꿔야지요. 그게 아시아문화중심도시가 아니지요.

○문화체육관광부지역문화정책관 김용섭 그런 환경 변화가 있고요. 5년마다 저희가 종합계획을 수정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요, 위원님.

○김승수 위원 그러니까 5년마다 종합계획 세우는 것 같으면 당연히 그에 맞춰서 본예산에 들어가면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왜 이것을 추경에 갖고 오느냐는 거지요.

○문화체육관광부지역문화정책관 김용섭 그리고 마지막 지역 소상공인 이 부분은 전당 사업인데요, 전당 사업은 사실 집행률 부분에서 문제는 없고요. 지역의 지역경제 활성화,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12월 중에 지역 소상공인하고 같이하는 행사들을 저희가 준비하면서……

○김승수 위원 그러면 아특회계로 전당 사업에 들어가는 예산이 연간 얼마입니까? 지금 여기 이 세목만 하더라도 700억이 넘잖아요. 지금 문체부에서 내려가는 예산이 다른 지역에 100억 넘는 데가 있나요? 지금도 엄청나게 많이 가져가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사업들이 들어와요. 그리고 들어오는 사업들 집행 문제없다고 말씀하시는데 보면 몇 번 국감에서 지적을 했잖아요. 세세내역사업들 중에서 일회성 사업들 말고 계속사업들이 몇 개나 되는지 또 그중에서 성과가 좋게 나온 사업들이 얼마나 되는지 그것 못 보셨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지역문화정책관 김용섭 위원님, 마지막 사업은 전당에서 하는 사업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소위원장직무대리 임오경 전당 사업이라고만 말씀하시지 말고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더 추가적으로 해 주시라니까요.

○문화체육관광부지역문화정책관 김용섭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광주 지자체 사업들은 지난번 본예산에서도 위원님 말씀 주신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집행률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 매월 점검을 해 나가면서 사업들을 같이 진행하고 있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올해 사업은 광주 지자체 사업이 여러 개 있는데 저희가 다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수 위원 한번 보세요. 지역 소상공인과 함께하는 문화예술 협력 사업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의 지역 소상공인과 야외공간 조성하고 상생마켓 운영하고 이런 도시가 전국에 다 깔려 있어요. 그런데 유독 추경 10억을 특정 지역에 이렇게 할 이유가 있느냐는 거지요. 그 시급성이 있느냐는 거지요. 하려면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이런 예산 같으면 본예산에 지역 소상공인들 문화예술 협력 사업 이렇게 해 가지고 몇 군데 공모를 받아서 지역적으로 균등하게 안배를 해서 지원을 해 주든지 이렇게 돼야 되는 사업이에요. 이렇게 들어갈 사업이 아니라는 겁니다. 필요 없다는 게 아니고 지금 추경에 목적적으로 안 맞는 사업을 잡아넣었다는 그 지적을 하는 겁니다.

○소위원장직무대리 임오경 앞서 위원님들이 수용했던 부분에 있어서 지역 간 문화 격차 완화 공연도 있고 대중음악 콘서트도 있고 문화에 관련해서는 이러한 사업들을, 광주·전남 쪽에다가 공모 사업에 있어서 특별하게 제공을 해 주면 어떤가 하고요.

저도 하나만 질문할게요.

지금 아특별 기간 연장이 본회의 통과는 됐습니다. 기존에 반영된 예산에서, 지금 필요한 게 시급성이라고 생각하는데 본예산에 반영된 예산 가지고는 저희가 타당성조사 등 할 수 없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지역문화정책관 김용섭 예, 타당성조사 예산이 본예산에 반영이 안 돼 있습니다.

○소위원장직무대리 임오경 그런 건가요? 그러면 지금 아특별 기간 연장은 시켰지만 저희 위원들을 설득할 수 있는, 이 부분만큼은 뺄 수가 없다, 반드시 꼭 넣어 줘야 된다,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문화체육관광부지역문화정책관 김용섭 아특별 연구용역 사업 같은 경우 수정 종합계획 수립방안 연구 7억 이것은 올해 꼭 필요한 연구용역 비용입니다.

○김승수 위원 왜 올해 그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문화체육관광부지역문화정책관 김용섭 올해 해서……

○김승수 위원 자꾸 그렇게 억지 주장하지 마세요.

○문화체육관광부지역문화정책관 김용섭 이게 22년……

○김승수 위원 아니, 5개년 수정계획 같았으면 당초 본예산에 넣었어야지.

○문화체육관광부지역문화정책관 김용섭 22년도에 수정돼서 5년마다 수정하는 부분이 있어서……

○김승수 위원 아니, 그리고……

○소위원장직무대리 임오경 위원님, 잠깐 들어 보고 하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지역문화정책관 김용섭 5년마다 수정하는 부분이 있어서 올해 저희가 불가피하게 추경에 반영을 해야 내년도에 4차 수정계획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승수 위원 그러면 작년 본예산에 못 넣은 이유가 뭐예요? 작년 본예산에 넣어 가지고 올해 했어야지요, 그렇게 꼭 필요한 사업이면.

○소위원장직무대리 임오경 5년마다 한 번씩인데 작년에는 5년이 되기 전이었고 이 법이 기간 연장이 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었다 그 말씀인가요?

○문화체육관광부지역문화정책관 김용섭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법이 통과 안 되면 사실은 저희가 31년까지 사업이 종료되고……

○조계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내용을 그렇게 설명하면 되는데 왜 복잡하게 설명을 하세요? 법이 통과 안 돼서 못 하고 있었다, 이번에 통과됐으니까 실시한다,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잖아요.

○소위원장직무대리 임오경 정부 측 의견도 들어 보니까 이 법이 통과되기 전에는 본예산에 실을 수 없었다고 하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김승수 위원님이 좀 양해해 주시면……

○김승수 위원 일단 이것 보류하고 왜 그렇게 꼭 이번 추경에 들어와야 되는지를 설명해 주세요.

○문화체육관광부기획조정실장 김정훈 기초실장 한 가지만 말씀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승수 위원님께 문화가 있는 날을 포함해서 좀 전 도서관의 일부 일자리 사업 그리고 앞으로 나올 관람 지원 사업 다 관련이 되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추경의 진행 과정에서 제가 꼭 보고드리고 싶은 것이 한 건 있습니다.

문화연구원의 연구에 따르면 경제가 위기일 때 가장 소비를 줄이는 게 문화예술이라고 합니다. 사실 작년에 본예산 편성할 때는 이런 경제위기를 예측 못 한 상황이었는데요 이게 생기면서 저희의 가장 큰 위기감이, 기재부하고 싸울 때도 가장 크게 느끼는 위기감이 지금 현재도 예매율이 벌써 10~20% 이상 줄고 있는 상황입니다. 단순히 향유가 줄면 문화예술인들의 일거리가 줄게 되고요, 일자리가 주는 연쇄효과가 나타나는데 지금 당장은 피부로 못 느낄지 몰라도 하반기가 되면 아마도 문화예술인들이 다 죽게 생겼다는 위기감을 호소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특히 곧 나올 영화사업 같은 경우에도, 작년부터 이미 대한민국 영화산업은 고사 직전이라고 했는데요 국민들이 이제 영화 관람도 줄이고 이런 과정이 된다면 아마도 영화산업은 진짜 죽게 될 것이다, 이게 사실은 저희가 이번 추경에서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 철학이자 위기감이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기재부도 충분히, 저희가 해 준 상황인데요.

문화가 있는 날만 해도 저희가 건의 올린 예산액이 반영된다면 매출액 그리고 지역에 있는 상권까지 10~30% 효과가 생긴다고 합니다. 문화예술인들이 분명히 하반기에 위기는 올 겁니다. 하지만 그 위기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그래서 이 위기를 넘어설 수 있도록 저희가 일자리 사업, 향유 사업 그리고 관련된 문화예술 지원 사업에 대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간곡히 건의를 올립니다.

○소위원장직무대리 임오경 저도 한말씀드리면 저희가 위기가 찾아왔을 때 가장 힘들고 고충을 느끼는 데가 지역예술가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민생 악화로 지역예술가들의 일자리 감소 및 문화기업들의 활동 위축으로 문화소비 감소로 인한 악순환이 계속 이어진다면 이것은 수도권이 아니라 지방, 지역에 진짜 어려운 위기가 더 찾아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김승수 위원님이 먼저 말씀하신 것에 있어서 저희가 월 셋째 주 수요일이지요, 문화가 있는 날이라고 만들어 놔다가 지금 매주 수요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증액돼야 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하지만 무조건 증액보다는 저희가 성과평가 이런 지표라도 좀 있어야지, 계획서를 만들어서 위원님들에게 배포도 좀 해 주시고 ‘이렇게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라고 해 주시면…… 이번에는 기간이 짧았기 때문에 준비가 좀 미흡한 부분도 있지만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게 증액해 주는 것에 있어서 그 계획서가 정확하게 반영이 되면 더 이해도가 높고 그리고 저희가 이러한 질문을 하지 않을 것 같다. 그래서 매주 수요일을 문화가 있는 날로 해서 어떻게 보면 지역예술가들의 일자리를 더 늘려 주고 지역격차를 줄이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는 성과평가의 지표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요청드립니다. 저는 요청드리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증액하는 데 있어서 찬성이지만 그래도 성과지표는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문화가 있는 날 예산 관련해서 앞으로 어떻게 운용하고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 평가서를 반드시 작성해서서 저희 위원들에게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직무대리 임오경 김승수 위원님, 문화가 있는 날이 매주 수요일로 바뀌었으니까 이것도 좀 양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아특별 관련해서 그 예산은 보류시켰다가 다시 한번 다루는 걸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김승수 위원** 예, 그렇게 하십시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재주는 곰이 넘고 돈은 왕서방이 가져간다는 속담처럼 여러 가지 쿠폰 사업이라든지, 지금도 제일 어려운 것이 문화예술인들 또 여기 체육 예산이 안 들어가 있습니다만 체육인들, 실질적으로 어려운 문화예술인들한테 최종적인 혜택이 돌아가야 되는데……

영화만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영화쿠폰 지원해 가지고 영화 관람이 확대되면 크게 보면 간접적으로 영화인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겠지요. 그런데 작년, 재작년 국내 영화 제작 편수가 급격하게 줄어든 것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올해도 ‘왕사남’을 제외하면 사실은 관람객 숫자가 늘어난 게 아니란 말이지요. 그래도 극장은 쿠폰 판매해 가지고 어느 정도 영업이 유지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한국 영화 생태계의 창제작자들에게 혜택이 그대로 돌아가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지요. 그러면 직접적인 지원이 필요한 데는 직접적인 지원을 해 줘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런데 그렇게 설계되지 않은 사업들, 오히려 국민들의 수요를 확대하고 지원하는 그런 쪽에 주로 쿠폰이라든지 이런 예산들은 많이 들어가 있는데 예술인들한테 직접적으로 도움은 안 되는 예산들이, 오히려 보면 그런 사업들은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거지요.

그리고 또 우리 문체위가 증액 요구한다고 해서 그대로 다 들어 주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결위 가서 플러스마이너스 하면 증액되는 부분이 많지 않을 텐데 그래서 선택과 집중을 하기 위해서라도 그냥 무조건 좋다 좋다가 아니고 이 부분에 이게 더 효과성이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기침체 상황에서 문화예술인들이 최소한의 숨을 쉴 수 있는 예산이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 그런 논리와 근거를 가지고 우리한테도 설명을 해 주셔야 되고 결국은 예결위 가 가지고 부처 간에 서로 어떤 논리가 더 정당하나, 추경에 맞느냐 이것 가지고 예산을 가져올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한테 설명하는 그런 논리 가지고는 예결위 가서 하나도 반영이 안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소위원장직무대리 임오경** 다음은 박재유 수석전문위원께서 심사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재유** 이어서 30페이지입니다.

지금부터는 기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진흥기금입니다.

연번 1번 예술인력 육성과 관련하여 당초 30페이지의 감액 의견은 철회가 되었으며 문화예술기관 연수단원 지원 사업은 추경 사업의 취지를 고려하여 추가 공모를 실시하되 지원 인력을 235명에서 313명으로 늘려 변경안과 같이 39억 2500만 원 증액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연번 2번 문화예술 향유지원 사업의 내역사업인 공연예술관람료 지원 사업은 작년 사업 집행률이 70.6%에 불과하고 일회성 소비 진작에 그칠 우려가 크다는 점을 고려하여 51억 원 전액을 감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일단 여기 문예기금까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직무대리 임오경**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우선 31쪽 문화예술기관 연수단원 지원 사업은 정부

안이 8개월로 되어 있었는데 김재원 위원님께서 6개월로 사업시행이 되면 313명으로 인원을 좀 늘리는 게 낫지 않겠느냐 하셔서 저희가 그걸 수용한 거고요.

그다음에 2번 문화예술 향유지원, 공연예술관람료 지원 사업 51억 원은 1만 원짜리 할인쿠폰 50만 장을 뿌리는 건데 이것은 제일 필요한 사업입니다, 청년 예술인들한테도 필요하고. 공연 분야의 수요 위축이 제일 심각합니다. 아까 기초실장님 말씀드린 것처럼 예매율 같은 게 좀 떨어지고 있고 그래서 이것은 정부안이 유지되기를 바랍니다. 수용 곤란합니다.

○소위원장직무대리 임오경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수 위원 보면 우리 당 위원님들이 한 주장에 대해서만 딱 수용 곤란이에요, 다 수용 수용 이렇게 하고.

○소위원장직무대리 임오경 그건 아니에요, 위원님. 매년 해 왔던……

○김승수 위원 공연예술관람료 지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하다고 보지요. 그런데 저번에 우리가 추경 상정할 때도 지적했듯이 1인당 1만 원씩 해서 50만 하지만, 그래도 예전에 비해서는 집행률이 좀 올라갔지만 일단 공연장 자체가 수도권에 굉장히 밀집돼 있고 그렇다 보니까 지역별로도 티켓 사용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편차가 큰 데다가, 안 되니까 지금 1인당 최대 10매까지 구입이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실제 혜택받는 사람 숫자도 50만 명이 아니고 최하 5만 명이 될 수도 있다고 그때 지적을 했었는데, 그런 설계상의 문제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무작정 늘리는 것에 대해서는 집행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걸 위원님들이 지적한 거거든요. 그 부분 고려해 가지고 이 부분을, 추경에 증액하는 부분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 적정 증액분이 어느 정도가 맞을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해서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원 위원이 말씀하신, 저는 문화예술기관 연수단원 지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쪽도, 꼭 문화예술기관…… 그러니까 문화예술·체육계 전공한 사람들이 당장 취업하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지금 오히려 일자리가 줄어들 판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게 대해서 그래도 최소한 분위기가 좀 나아질 때까지 인턴이라든지 할 수 있는 기회를 늘리는 것이 지금 어려운 경제 시기의 추경의 적절한 취지에 맞는 사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위원님, 김재원 위원님 변경안에 대해서 동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런데 이 51억 원 공연관람료 지원은 사실 이것보다 더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보다 더 줄이는 것은…… 지금 이게 저희는 최저 수준인데요, 아까 말씀하신 수도권에 편중돼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은 저희들도 뼈아프게 늘 지적받는 부분이라서 이번에는 지역 공연 전문 사이트를 많이 섭외하려고 합니다. 시스템 안에 넣어서 지역 공연도 많이 갈 수 있도록 하고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국립예술단이나 수도권에 있는 재미있는 공연들, 대중성 있는 공연들을 지방에 가게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지역 문화회관 같은 데도 이용해서 많이 보낼 겁니다. 그래서 사실 50만 장 이것 다 소진될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김승수 위원 차관님,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갖고 있지만 간사님하고 두 분 위원님이 반대를 했고 사실은 뒤의 영화관람료 지원과 관련해서도 감액 의견을

냈단 말이지요. 우리 당 차원에서 낸 거나 마찬가지로인데, 그래서 저는 공연……

○소위원장직무대리 임오경 위원님, 위원님 의견만 말씀해 주세요.

○김승수 위원 아니, 연결이 되기 때문에…… 영화하고 공연하고 관람료 문제에 있어서는 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같이 검토를 해 볼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기 위해서 이 부분에 대한 앞뒤 내용을 하려 그랬는데 이따 심의를 하겠습니다만 보류해서 논의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직무대리 임오경 조계원 위원님.

○조계원 위원 일단은 지금 공연장의 예매액이 대폭 감소하고 있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예, 맞습니다.

○조계원 위원 계속해서 언급되고 있지만 이런 위기 상황이 되면 가장 크게 위기에 직면하는 게 문화예술계 이쪽이 아닌가 생각되고요. 이러한 부분에 대응하기 위한 시급한 지원은 꼭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까 집행률이나 이런 것들을 문제 삼고 있지만 앞으로 시스템 이런 것들이 구축 완료되면 이런 부분도 충분히 보완될 수 있겠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예, 그렇습니다.

아까 조계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3월 한 달 동안만 티켓 예매액이 1186억에서 1055억으로 12.4%가 줄었습니다, 한 달에. 그러니까 지금 공연이 굉장히 시급하고요. 사실 51억 원 이것보다 저는 더 하고 싶은데…… 적정액은 이것보다 많으면 많았지 줄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조계원 위원 이 부분은 어쨌든 문화예술계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이를 통해서, 일회성이 아니라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추가적으로 신규 관람객도 유입하고 시장도 확대하는 그 기틀이 마련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예, 그렇습니다.

○조계원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존경하는 김승수 위원님께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양해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직무대리 임오경 다음은 김재원 위원님이 먼저 손을 드셨기 때문에……

○김재원 위원 존경하는 김승수 위원님께서 문화예술 분야 전공 졸업자들 앞으로 취업이 언제 될지 모르는 이 사태를 이해해 주시고 수용해 주셔서 너무 감사 말씀 드립니다.

그다음에 이 내역사업 같은 경우, 공연예술관람료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계속적으로 집행률이 모자란다고, 100%가 왜 안 되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리고 김승수 위원님 말씀 중에도 이러한 공연장들이 다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 공연들을 대상으로 해서 극장들을 지원해서 그렇습니다. 사실 이게 지역상생하고 연계가 되려면 지역에 있는 중소 제작사, 극장들에서 올리는 공연들까지도 지원이 되어야 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렇게까지 집행한다고 그런다면 지금 70.6%에 불과한 집행률뿐만이 아니라 여기에 2배가 되는 그런 자금이 필요할지도 몰라요, 오히려 더 그렇게. 사실은 지역상생 측면에서도 그렇게 지역에 있는 중소 극장들을 우리가 지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예.

○김재원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 공연예술관람료 지원은 지금 추경에서 다시 논의가 되고는 있지만 향후에는 지역의 극장들, 제작사들을 위한 설계가 필요하다. 오히려 그 부분에 예산을 더 확보하면서 그런 부분의 설계를 동시에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예.

○소위원장직무대리 임오경 진중오 위원님.

○진중오 위원 드디어 발언할 수가 있게 됐네요. 김승수 위원님께서 너무 아는 것이 많아서 가지고 발언할 기회가 다 잘리는데……

이 내역사업 관련해서 아까 차관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또 김재원 위원님까지 한마디 걸 드셨어요. 이게 지금 메이저급 공연만 지원되다 보니까 집행률이 70%밖에 안 되는 것이 아닙니까?

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집행률을 더 초과 달성했을 시에 추경에 들어간다면 저도 공감할 수 있겠지만 지금 현 상황에서는 추경 편성이 시급하다고는 전혀 보여지지 않 기 때문에 앞서 말씀하신 두 위원님들의 말씀처럼 메이저급 공연뿐만이 아니라 지역에 있는 공연까지도 지원 확대할 수 있는 제도가 개선이 된 다음에야 우리가 더 많은 지원을 할 수 있을 거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진중오 위원님,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지역공연 전문 사이트를 포함시켜 갖고 김재원 위원님, 진중오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역 공연들도 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것을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중오 위원 지금 말씀처럼 사이트를 구축하셨다고 하셨으니 그러면 그 성과를 본 다음에 추경 편성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방금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문화체육관광부예술정책관 이용신 예술정책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률 70%는 작년도 추경에 대한 부분입니다. 작년도에는 8월부터 12월, 5개월 동안 했기 때문에 70%인데 금년도는 바로 추경이 통과되면 같은 수량으로 5월부터 8개월을 하기 때문에 충분히 집행률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저희가 작년에 처음이었 기 때문에 사실 홍보라든가 시스템 구축이 미흡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완하고 지역의 문예회관이나 공공 극장의 공연들이 더 수혜를 볼 수 있도록 저희가 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진중오 위원 말씀 잘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올 초반에 집행률이 몇 % 안 됐다고 했잖아요. 그렇지요? 그렇게 말씀 주셨고.

그리고 처음이었기 때문에 홍보가 부족하다, 그러면 올해 홍보를 열심히 한 다음에 추경에 넣으면 될 것 같아요.

○조계원 위원 지금 상황이 작년 대비해서도 집행률이 더 떨어지고 있는 상황, 아까 차관님께서 얘기했다시피 올해 공연 분야 티켓 예매액이 작년 동기 대비해서 추가로 12.4%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전쟁 위기 상황에 직격탄을 맞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행히 또 시스템을 보완해서 지역의 공연을 활성화할 수 있는, 늘릴 수 있는 그것도

완료됐다고 하니까 이것은 좀 믿고 지원해서 지역의 소상공인이나 그쪽 경기에 활력을 불어넣는 데도 기여가 된다고 하니 이것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진종오 위원 지금 지역 얘기는 빠져 있는 것 아닙니까?

○소위원장직무대리 임오경 아까 말씀하셨습니다.

○조계원 위원 아니요, 빠진 것은 아닙니다. 아까 지역 시스템 재구축도 해 가지고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는 하셨습니다.

○소위원장직무대리 임오경 지금 저도 얘기를 들어 보면 작년에 5개월 추경에 실었는데 70.6% 집행률은 저는 엄청나게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1년도 아니라 5개월 만에. 그런데 이번에는 지금 4월이니까 8개월 정도 본다라고 하면 충분히 이 집행률은 다 소진할 수 있을 거라고 예상하고요.

또 지난해와는 다르게 지역 공연까지도 다 포함을 해서, 수도권 중심이 아니라 지역까지 다 해서 함께 한다고 하니까 충분히 집행률에 있어서는 저희가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본예산에는 이런 관람료 지원 예산을 신지는 않습니다. 반영시키지는 않고 매년 추경에서 반영을 시켰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저희가 계속 추경에서 이렇게 공연, 영화 그다음에 스포츠 함께 계속해서 바우처사업을 해 왔는데 오히려 이번에 스포츠 쪽이 빠져 있어서 저희가 전체 상임위 회의에서 계속해서 지적을 했던 사안입니다.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예.

○소위원장직무대리 임오경 이 사업은 해 왔던 거고 스포츠도 같이 해 왔는데 스포츠가 빠졌기 때문에 저희 위원님들 지적이 참 많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포츠기금을, 체육기금을 가지고 타 기관을 도와준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지적 사항이 나왔지, 관람료 지원 사업에 있어서는 위원님들이 지금 경제 위기로 인해서 문화소비 촉진, 공연시장을 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두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김재원 위원 한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특히 대구 같은 경우에는 뮤지컬 업체들이라든지 제작사들이 대거 포진돼 있습니다. 뮤지컬의 본산지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상황에 제작비도 많이 들어가고 인력도 많이 필요한 뮤지컬산업 같은 경우에는 공연관람 할인까지도 안 해 준다고 그런다면 완전히 폭삭 망합니다. 그 부분 간과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지역에서 그렇게 터를 잡고 20년 이상 인프라를 쌓아 온 그런 곳이 한꺼번에 망가질 수 있다는 생각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 부분 반드시 기획예산처를 통과할 수 있도록 차관님께서 강력히 주장하셔야 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소위원장직무대리 임오경 김승수 위원님.

○김승수 위원 하여튼 이 부분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실질적으로 혜택이 돌아갈 것인가에 대한 그 설계에 있어서 저는 굉장히 문제점을……

사실 공연티켓 관련해서는 제도개선을 통해서 집행률이 올라간 것은 사실이에요, 일단 예매처를 늘리고 일인당 사용할 수 있는 사용기한을 줄이고 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편중을 해소할 수 있느냐 또 제일 문제가 영화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여기도 마

찬가지고 굳이 할인티켓이 없어도 잘나가는 대형 기획사 작품에 오히려 할인티켓까지 있으면 몰릴 수가 있다는 거지요. 그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것이냐……

그런데 지금 숙박쿠폰 같은 경우에는 인구감소지역의 숙박업소만 대상으로 딱 설계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수도권 과편중이라든지 또 중소 제작자들에 더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기 위해서는…… 영화도 마찬가지고, 국내 블록버스터 영화 제작들이 거의 안 됐기 때문에 이 쿠폰을 이렇게 확 풀면 극장하고 외국 영화에 주로 혜택이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또 FTA 이런 것들 때문에 국내 영화만 할 수는 없을 수도 있는데, 공연과 같은 경우에도 제작사의 규모나 이런 부분을 해서 매출액 얼마 이하 제작이라든지 작품이라든지 또 지역 작품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좀 설계가 다듬어져야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보류해서 보자는 거지, 지금의 설계와 영화 쪽과 관련해서 정말 창제작자와 예술인들한테 혜택이 직접적으로 많이 갈 수 있도록 설계가 됐느냐 그것을 보고 전체적인 규모를 한번 따져 보자고 해서 좀 보류하자는 겁니다.

○조계원 위원 그런데 항상 추경이, 이번 전쟁 추경 같은 경우는 적기에 지원될 수 있는 골든타임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특히 지금 공연예술·문화예술 분야에서 문화소비를 촉진하고 그게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아주 효과적인, 다른 예산보다도 이 부분 예산은 무엇보다도 효과적으로 적용이 될 수 있는 예산인데, 다만 존경하는 김승수 위원님께서 우려하고 있는 부분, 이게 또 수도권에만 집중돼서 지원이 될 우려 이런 부분들을 좀 분명하게 해소하고 지역에 더 집중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부분을 담보하는 조건으로 해서 수용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소위원장직무대리 임오경 저도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 이번에 지역 공연까지도 다 포함을 해서 관람료 지원이 된다고 하니까 오히려 차별화가 없이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김승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좀 더 보충해서 지역 공연, 지역을 어떻게 해서 더 활성화시키고 문화소비 촉진을 위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도 좀 추가적인 설명을 해 주시고 김승수 위원님만 양해해 주신다면, 이 부분 감액은 좀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김승수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지역에 대한 배리어가 이번에는 많이 해소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이트들을 더 충분히 넣었고 그리고 진중호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성과평가도 이번 사업을 하면서 성과평가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좀……

○김승수 위원 아니, 자꾸 이야기가 길어지는데 어쨌거나 위원들 사이에 이견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뒤에도 얘기하겠습니다만 보류사업으로 해 가지고 아까 그런 실질적인 설계의 개선·보완까지 해서 논의하도록 그렇게 합시다, 위원장님.

○소위원장직무대리 임오경 위원님, 지난해에도 이것 추경으로 올려서 5개월 만에 70.6%의 집행률을 보였고 저희가 추경으로 항상 영화나 공연이나 스포츠 관람, 계속해서 해 왔던 추경예산 사업입니다. 저희가 별도로 이것을 본예산에 신지 않고 추경에서 항상

그렇게 해 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김재원 위원님이 말씀을 해 주셨는데 특히 대구에 이런 공연, 콘서트, 진짜 많은 문화사업들이 있더라고요. 저도 대구를 자주 방문을 하는데 오히려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 더 좋지 않나……

그래서 위원님만 좀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가……

○**김승수 위원** 제가 주장했던 예산 같으면 감액을 저만 양해하면 되는데 지금 진중오 위원님뿐만 아니고 다른 위원님들도 반대를 하셨기 때문에 보류해서 이분들의 의견도 들어 봐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추가적으로 자료를 좀 가져와서 논의를 하자는 겁니다.

○**소위원장직무대리 임오경** 위원님, 저희가 이것……

○**조계원 위원** 진중오 위원님이 다시 한번 의견을 말씀해 주시지요.

○**진중오 위원** 저도 다시 말씀을 드리면 전년도에 70% 성과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올해 성과율이 매우 떨어졌잖아요. 작년보다 더 떨어진다는 것은 그만큼 국민들이 안 쓴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해야지 그냥 추경 한다고 해서 국민들이 지갑 열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직무대리 임오경** 다시 한번 보충말씀 드립니다.

작년에 관람료 지원을 해서 5개월 동안 집행률이 70.6%라고 했습니다. 올해 2026년도에는 8개월 동안 집행률을 볼 것인데 이것에 관련해서 차관님께서도 홍보를 더 하시고 또 문화의 날이 월 1회였던 게 올해는 매주 수요일 날, 그러니까 월 4회가 되는 거지요. 이러한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 집행률 소진은 다 할 거라고 저는 예측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정부 측에서도 확실하게 위원님들에게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수 위원** 그러니까 보류사업이 많지 않잖아요. 월요일 날 오후에 전체회의가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그 이전에 보류사업 몇 개에 대해서 논의해서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시지요.

○**소위원장직무대리 임오경** 위원님, 제가 타 상임위 부분을 말씀드리는 게 예의는 아닌 것 같지만 한말씀드리면 다른 상임위들은 추경 관련해서 상정하고 그리고 소위 개최하고 그다음에 바로 의결까지 해서 하루 만에 다 끝내는 상임위들도 있더라고요. 그렇지만 우리 문체위는 여야 간사 간 합의해서 날짜 조정해서, 의결까지도 다 날을 따로따로 잡아서 하고 있습니다.

추경 관련해서 저희가 이렇게 긴 시간 동안 논의를 해 본 적도 없었고 작년 4월에도 추경에 오히려 더 증액을 시켜서 이렇게 이렇게 하게 하는 역할들도 했었는데, 저희가 추경에는 이렇게 의견 차이가 크지는 않았었습니다. 어차피 여기서 의견 차이가 좀 있는 것 또한 예결특위에 올라가게 되면 이게 다 반영은 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이게 반영이 되는 사업이라면 저도 이렇게까지 위원님들에게 이해를, 양해를 구해 달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문체위에서, 저희가 감액을 시켜서 올리는 것 보다는, 오히려 증액을 시켜서 올리더라도 절대적으로 예결특위에서는 통과가 안 됩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위원장으로

서 드립니다.

정부 측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예술정책관 이용신 감액 제기해 주신 이소희 위원님하고 박정하 의원님은 저희가 가서 설명을 드려서 이해를 하셨다는 말씀을 하였고.

지역 공연 관련해서 저희가 이번에는 작년하고 다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역의 공공 공연장 같은 경우 현장 발권을 많이 늘리기 위해서 먼저 수요를 받아서 그쪽에는 현장 발권까지 해서 지역 수요가 많아지게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직무대리 임오경 여기다 위원장으로서 한말씀 더 드리면 예결특위에서 이게 통과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내년도 추경에서도 집행률이 저조한 상황에서, 8개월이라는 시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률이 저조했을 시에는 지금 위원님들 의견에 저도 같은 의견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을 참고하셔서 진짜 홍보·마케팅 잘해 주시고 국민 모두가 매주 수요일은 문화의 날이라고 해서 문화 소비 촉진을 위해서 더 할 수 있도록,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마케팅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예술정책관 이용신 예,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김승수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자꾸 반복해서 그렇습니다마는 엇그제 지적했던 한 사람한테 10매 예매가 돼서 어떤 사람은 10장의 혜택을 받고 어떤 사람은 혜택을 못 받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 하는 부분하고 수도권 집중 문제를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 하는 문제,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이해할 수 있는 또 납득할 수 있는 그걸 설명해 달라는 거예요.

예산액에 대해 가지고 내가 문제 삼는 것이 아니고 이 정도는 충분히 우리 공연 활성화 위해서, 저는 오히려 뒤에 영화 티켓 하는 것보다는 이게 실질적으로, 대부분은 외국 창제작자가 아니고 우리 창제작자에 우리 공연자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저는 오히려 영화 관람료보다 더 공감하는 예산이에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 설계를, 내가 납득할 만한 그런 것을 해 달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에 대해서 내가 크게 반대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계원 위원 이번에 설명 한번 잘해 보세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수도권·비수도권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에 많이 해소될 걸로 생각하고요.

그리고 한 사람이 두 장씩 해 가지고 다섯 군데서 받는다는 것 그대 가지고 최대 10매까지 받을 수 있는 그 우려에 대해서는 사실 개인정보 보호법 때문에 사이트 간에 공유를 할 수가 없어서 그런 부분은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서라도 공연 관람객이 많아지면 젊은 예술가들한테 큰 도움이 될 거고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20만 원 전후의 대작 IP 뮤지컬 같은 것은, 그 사람들은 이것 안 씁니다. 사실은 1만 원짜리 이것 쓰는 사람들은 중소극장을 가는 사람들이 많이 쓰게 될 거고요. 아까 예술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현장 발권도 비중을 많이 늘려서 거기서 좀 지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중소 규모의 극단이나 이분들한테 갈 수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직무대리 임오경 퍼센티지를 7 대 3이라든지 이렇게 확실하게 말씀을 하십시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퍼센티지 어떻게……

○소위원장직무대리 임오경 아니, 그렇게 노력을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라고요, 정하지는 마시고요.

○김재원 위원 차관님, 제가 아이디어 하나 드릴까요?

숙박쿠폰도 우리가 예약을 할 때 보면 어디로 갈 것인가 먼저 정하잖아요. 전라권, 충청권, 경상권 이렇게 해 가지고 먼저 찾아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시스템상에서 충분히 조정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다음에 계정 하나당 1매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시스템상에서 그 예매 사이트하고 충분히 얘기가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되잖아요. 그걸 정책을 마련해야지 되는 일입니까? 그렇게 배분하겠다는 확실한 문제부의 의지만 있다면 그것은 예매 사이트들하고 얼마든지 협의를 봐서 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그 부분은 왜 확실히 말씀을 못 하세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예, 예매 사이트랑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해 보겠는데, 여태까지 그게 잘 안 됐어 가지고 현재까지의 상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재원 위원 아니, 숙박쿠폰은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산불 났을 때도 특정 지역 같은 경우에 숙박쿠폰도 그렇게 지급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뭐가 어렵다고 그러는 거예요?

○조계원 위원 그것은 기술적으로 사이트 연동하면 가능할 겁니다.

○김재원 위원 예, 굉장히 쉬운 문제인데……

○조계원 위원 그게 개인정보 보호법에 저촉된다? 저는 이해가 안 돼요.

○김재원 위원 장관님이 그 플랫폼 전문가 아니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예술정책관 이용신 시스템 업체와 상의해서 최대한 중복 부분은 해소하는 부분으로 그렇게 노력해 가겠습니다.

○김재원 위원 지역 배분도 하실 수 있고.

○김승수 위원 결과로서 그렇게 증명해 줘야 돼요. 그러니까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티켓 할인권 판매가 최소한 7 대 3이나 6 대 4 정도 이렇게 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전체 총액 50억이 있으면 그중에 20억 정도 같으면 6 대 4 아니에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위원님, 제 생각에는 6 대 4까지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승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부분을 설계해서 50억 중에 30억이 수도권에서 소진 되면 추가적으로는 안 된다, 지역의 공연을 예매해야지 쿠폰을 발행한다든지…… 그런데 지역의 공연이나 이런 것들이 도저히 수요가 없어 가지고 소진이 안 될 경우에는 집행률이 저조하니까 그 이후에 올리더라도 기본적인 설계를 그렇게 해 달라는 거지요. 그리고 가능하면 매출액 같은 것도 고려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너무 복잡하면 최소한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그런 정도로 고려해 주고.

한 사람이 10매씩 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냐와 적절하지 않을 것이냐 그것도 일시적으로 최대한도를 낮췄다가 높이는 것이, 집행률이 영 저조하면 높여서 1인당 10매씩 하더라도, 처음부터 10매씩 해 버리면 오히려 너무 소수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다는 거지

요. 그런데 집행률이 너무 안 나오기 때문에 나중에 한도를 올리게 되면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처음에는 설계를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거지요.

○소위원장직무대리 임오경 박정하·이소희 위원님께서 감액을 내놓으셨는데 두 위원님께 잘 보충설명해 주시고 지금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수도권·비수도권도 고려를……

○조계원 위원 아니, 아까 그 위원님들은 다 양해했다 그랬지 않습니까?

○소위원장직무대리 임오경 예.

고려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것은 국민 문화향유권 증진도 있지만 공연예술을 하는, 일자리 관련해서는 그 현장의 종사자들을 위한 것이 저는 더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화예술인들이 더 많은 공연을 펼침으로써 더 많은 관람객들이 찾아오게 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 걸로 알고 이것은 통과시키는 걸로 하겠습니다.

○김승수 위원 알겠습니다.

○소위원장직무대리 임오경 감사합니다.

다음, 박재유 수석전문위원께서 심사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재유 자료 32페이지입니다.

영화발전기금 부분입니다.

연번 1번은 차기작 기획개발 지원 사업에 개봉 실적에 따른 차기 프로젝트 기획개발비 지원 확대를 위하여 5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33페이지입니다.

연번 2번 영화유통지원과 관련하여 독립예술영화 관람지원(인디필름 패스) 사업의 신규 추진을 위하여 5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독립예술영화 유통배급종합지원 사업에서 인디그라운드 공공온라인 플랫폼 AI 고도화를 위해 1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각각 제시되었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연번 3번 영화정책지원과 관련하여 국민 영화관람 활성화 지원 사업은 일회성 할인 지원은 구조적인 산업 회복 대책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추경안 증액분 361억 원을 감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과 아울러 정책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60억 원을 증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함께 제시되어 있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차세대 미래관객 육성 사업에 5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영화 패스 도입 지원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5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으며, 지역 영상 생태계 기반 마련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2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영화인 역량강화 지원을 위하여 10억 5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지역 영화문화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10억 원 증액을 그리고 지역영화 기획개발 및 제작지원을 위하여 5억 원 증액을 그리고 공정환경조성사업에서 긴급 의료·법률 지원을 위하여 2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각각 제시되었습니다.

여기까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직무대리 임오경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1번 영화 창제작 지원 사업은 개봉성과가 있는 역량

있는 제작사한테 차기작을 기획하는 비용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용에 비해서 굉장히 효과가 큰 사업이고요. 수용합니다.

그다음에 2번 영화유통지원은 전부 독립예술영화 관련된 50억, 10억인데 독립예술영화는 우리 영화의 뿌리입니다. 그래서 두 개 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영화정책지원 국민 영화관람 활성화 지원은 6000원 상당의 영화 관람료 할인 지원금을 지급하는 건데 사실은 김승수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극장에 돌아갑니다. 극장에 돌아가는데, 상영관이 우리 영화 생태계의 핵심입니다. 상영관에 가야 투자·배급사한테도 가고 나중에 제작사한테도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투자·배급하고 상영관하고 같이 맞물려 있는 구조라 상영관이 죽으면 제작도 안 됩니다. 그래서 영화관에 있는 현장인력들이 살려면 이 사업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작년에 ‘쫄비탈’이 500만을 넘어서 한국영화 중에 제일 톱을 쳤는데 이 ‘쫄비탈’도 영화 할인권 이걸로 굉장히 견인 역할을 받았고요 그게 이어져서 ‘왕사남’까지 1000만이 이어졌다고 보는데, 이렇게 간신히 모멘텀이 생겼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제일 실효적이고 소프트 스폿(soft spot)을 딱 치는 게 이 영화 할인권 사업입니다. 그래서 361억 전액을 감액한다는 건 수용 곤란합니다. 그다음 60억 원 이것도 같은 이유로 수용합니다.

다음, 35쪽 차세대 미래관객 육성 이것은 지금 청소년들이 영화관에 안 갑니다, 다 모바일로 보고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영화관의 가치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50억 필요하고요.

영화 패스 도입 지원 사업은 패스로 해서 영화 할인권보다 조금 더 유연성 있도록 하는 사업이라 수용합니다.

다음, 36쪽입니다.

지역 영상 생태계 기반 마련 육성, 지역의 자생적인 영화문화 활성화인데, 예컨대 지역의 초등학생부터 할아버지, 노년층까지 영화를 같이 네트워크로 해서 만들어 보고 포럼도 하고 이런 건데 이게 굉장히 영화계에 기반이 되는 사업입니다. 20억 필요합니다.

다음, 영화인 역량강화는 AI 기술 활용하는 걸 가르치는 거기 때문에 필요하고요.

다음, 37쪽입니다.

지역 영화문화 활성화 지원, 아까 말씀드린 지역 영상 생태계 이거랑 같은 맥락에서 필요합니다.

다음, 지역영화 기획개발 및 제작지원 역시 같은 맥락에서 필요합니다.

공정환경조성사업은 손술 위원님께서 늘 주장해 주시는 영화산업 노무 갈등 해결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2000만 원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직무대리 임오경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종오 위원 제가 먼저 할까요?

아까랑 비슷한 부분이 많이 있어 보이는데 투자자랑 제작사랑 극장 상영관에 들어가는 배분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담당 국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콘텐츠미디어산업관 최성희 콘텐츠미디어산업관입니다.

극장을 통해서 들어온 수익은 상영관이랑 투자·배급사가 45 대 55 분배를 하고요 그리

고 그 비용을 공제한 순수익이 투자·배급사와 제작사가 6 대 4로 갑니다. 극장으로 가는 수익은 상영관에만 가는 게 아니라 상영관과 투자·배급사, 제작사와 같이 전체 영화 생태계로 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기본이 되는 구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사실 영화산업이 극장에 의존하는 바가 굉장히 큼니다. 영화산업 전체 수익의 70%가 극장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극장에 돈이 돌지 않으면 영화산업 전체로 돈이 갈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영화산업에 가장 신속하게 자금을 돌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진종오 위원 잘 몰라서 여쭙봤어요. 왜냐하면 뒤에 있는 내용도 다 비슷해 보이고 차라리 영화 제작에 더 예산을 편성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극장에 가지 않기 때문에 영화 제작이 어렵다라는 게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위원님, 제작에 대해서는요 저희가 중예산영화지원이든 정부 편성안에 제작에 대해서 많이 늘려 놔줍니다.

○조계원 위원 작년에 예산을 늘렸잖아요.

○진종오 위원 그런데 이 단체 관람, 차세대 미래관객 육성 관련해서 50억이나 필요한 이유는 어떻게 됩니까?

○문화체육관광부콘텐츠미디어산업관 최성희 이게 영진위에서 하고 있는 굉장히, 저희가 한 2억 정도로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반응이 좋은 사업입니다. 그런데 2억으로 하다 보니까 몇몇 학교가 지금 체험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데요. 한 50억 정도로 하면 180회 정도 하면서 13만 5000명 정도는 저희가 혜택을 드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청소년들이 지금 극장에 가면서 미래관객으로 발굴돼야 되는 기회를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사업들이, 이 시기에 저희가 이런 사업들을 기획한다면 굉장히 미래 잠재 관객들을 발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1회에 한 160만 원씩 주면은요 위원님, 단체관람 지원을 여기 1800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국에서 1800명 정도, 초중고 다니는 청소년들이 영화를 보러 가서 극장 체험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요즘 청소년들 극장에 잘 안 가거든요. 학교하고 잘 협의를 해서 단체관람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하려고 합니다.

○진종오 위원 영화 패스 도입 지원은 어떤 겁니까?

○문화체육관광부콘텐츠미디어산업관 최성희 영화 패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희가 이것도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러니까 저희가 바우처 지원이 한 번에 어떤 집중적인 효과를 볼 수 있는 거라면 지속적으로 넷플릭스나 이런 구독료를 지원하는 것처럼 영화에서도 구독하는 모델을 만들어 보자는 고민들을 해 와서, 독립영화나 아니면 청소년, 청년이나 시니어처럼 영화에 접근성이 낮은 그룹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영화 구독, 영화 관람하는 비용을 일부 지원을 하면 영화관에 조금 더 자주 방문하시면서 영화 관람 기회를 높일 수 있게 설계한 사업입니다.

○진종오 위원 그 영화에 대한 선별 기준은 어떻게 돼요?

○문화체육관광부콘텐츠미디어산업관 최성희 영화에 대한 선별 기준은 독립영화 대상으로 하는 파트가 하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청소년이나 청년이나 시니어에 대해서는

사실 영화에 대한 제한을 두지 않을 생각입니다.

○진종오 위원 어렵네요.

○조계원 위원 그러니까 영화 패스는 일종의 그 방문 횟수에 따라서 누적 할인을 높여 주는 거지요?

○문화체육관광부콘텐츠미디어산업관 최성희 예, 맞습니다.

○조계원 위원 그래서 첫 번째에 한해서 지원하겠다는 거고?

○문화체육관광부콘텐츠미디어산업관 최성희 아니면 세 번을 가시면 두 번은 관람객이 내시고 마지막 세 번째 가는 거를 정부가 지원을 하든가 그런 방식으로.

○조계원 위원 첫 번째가 됐든, 마지막이 됐든.

○문화체육관광부콘텐츠미디어산업관 최성희 예, 맞습니다.

○김재원 위원 한말씀드리자면 아까부터 우리가 똑같은 얘기를 반복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이게 분야가 다르고 대상이 또 일자리 제공이나 직접 지원이나 아니면 그 자체의 생태계를 돌릴 수 있는 물꼬를 트는 역할을 하는 예산을 배정을 할 것이냐에 따라서 그 항목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같은 얘기를 계속해서 돌려야 되는 것 같습니다.

조금 아까는 공연예술에 대한 얘기였고요. 지금은 영화 분야에 대한 얘기거든요. 역시나 관람료의 할인 혜택 같은 것들을 지원을 하고 또 차기에 관객이 될 수 있는 그런 미래의 관객들에게 체험을 시켜 주는 그런 걸로 해서 생태계를 돌리려고 하는 그런 노력으로 보이는데 맞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콘텐츠미디어산업관 최성희 예, 맞습니다.

○김재원 위원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같은 논의가 반복이 되는데 분야가 다르고, 우리가 지금 소관 기관만 해도 어마어마하게 많아 가지고 말고 있는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러나 한 가지 명심해야 되는 거는 이 생태계 자체가 돌아가는 모양새가 이렇다는 것입니다. 국가에서 이런 식으로 지원이라도 조금 있다고 그러면 어떻게 해서든 제작사들은 움직이려고 하고 예술인들도 움직이려고 해요. 그런데 그러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러한 제작 인력들이 움직이지 않으면 투자도 안 하게 되는 거지요.

사실상 ‘좀비팔’이나 이번의 ‘왕사남’ 같은 경우에 1500만을 달성을 하고 있고 그랬기 때문에 그 분야가 지금 움직이려고 들쭉들쭉하고 있던 중이었거든요. 그런데 호르무즈 사태가 터지면서 이게 완전히 꽉 막히게 돼 버린 겁니다. 그래서 영화 업계가 다시 희망을 가지고 극장도 활성화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움직이려고 하려던 참이었는데 마침 이런 사태가 터진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멈추면 안 됩니다. 차기작 발굴 계속해야 하고 그러한 제작들이 무의미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 주기 위해서라도 또 관심을 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이 생태계를 어떻게든 돌려야 한다는 게 제 말씀입니다.

○진종오 위원 제가 갑자기 질문이 생각났는데 국내 영화에 한정인 거지요?

○조계원 위원 그건 아닌데……

○진종오 위원 아니에요?

○문화체육관광부콘텐츠미디어산업관 최성희 이 바우처는 무역 협정이나 이런 부분 때

문에 국내 영화에 한정은 아닙니다. 하지만 작년에도 저희가 ‘좀비딸’이 개봉해서 한국 영화에 대한 점유율이나 혜택이 한 50% 가까이 있었고, 사실 올해에는 하반기에 특히 연상호 감독의 ‘군체’나 나홍진 감독의 ‘호프’나, ‘국제시장’ 같은 기대작들이 굉장히 많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것들이 바우처가 시행이 된다면 한국 영화에도 굉장히 큰 마중물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진종오 위원** 이해는 하는데, 왜냐하면 해외 영화 같은 경우 인기 상업작 같은 경우는 굳이 우리가 홍보 안 해도 관객이 가거든요. 그래서 그걸 여쭙보고 싶었던 거였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그런데 진종오 위원님, 우리 영화계에서도 이걸 잘 알고 있어 가지고요. 저희가 저희가 쿠폰 발행한다고 하면 그 시점에 맞춰서 출시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소위원장직무대리 임오경** 본예산도 아닌데 위원님들……

○**조계원 위원** 계속 얘기가 반복되는 것 같아서 그렇기는 한데요. 일단 이 영화는 아까 공연예술과 마찬가지로 가치 체험이 중요하지요. 한 번 그 경험을 하면서 영화관에 가서 좋은 경험을 얻게 되면 그 뒤에는 자연적으로 추가적으로 발걸음을 할 수 있는, 그래서 특히 청소년들이나 청년들, 영화에 지금 좀 동떨어져 있는 세대들을 영화관으로 유입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되고 한 번 동기부여가 제대로 되면 다음에 또 발걸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유인을, 동기를 부여하는 거지요?

○**문화체육관광부콘텐츠미디어산업관 최성희** 예,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조계원 위원** 그리고 현재 상황은 ‘왕사남’으로 대한민국 영화가 충분히 가능성이 있고 살아날 수 있다. 예전에 사실 K-컬처를 한국 영화산업도 주도를 했었잖아요.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 잠재력과 가능성을 확인했는데 지금 중동의 전쟁으로 인해서 다시 발길이 꺾일 상황에 있고 그것을 좀 회복하고자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까 공연예술과 관련해서 계속해서 다루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같은 맥락에서 영화산업이 다시 발돋움할 수 있는 동기부여를 해 줄 수 있는 예산이라 생각하고요. 감액예산을 철회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소위원장직무대리 임오경** 김승수 위원님.

○**김승수 위원** 일단 앞서 공연 관람을 지원하는 거하고 영화 관람 지원을 같이 엮어서 얘기했었는데 앞부분은 그래서 제가 수용을 했습니다마는 또 실질적으로 아까 국장 설명하면서 박정하 위원 또 이소희 위원님께 양해를 얻었다고 했는데 해당 의원실에서도 ‘전혀 양해한 바가 없다’, ‘설명만 들었다’, 위원들도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거기다가 영화도 마찬가지로 지금 박정하·조은희 위원이 전액 감액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수정 이유에 감액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보면? 하나하나 맞는 말씀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그냥 영화 관람료 지원이 전혀 필요 없다는 부분은 아니고.

너무 이게 목적 외의 관람료 지원에 대해서, 아무리 상황이 어렵다 하더라도 그 부분이 과도하게 편성된 거 아니냐. 그리고 여기보다는 실질적으로 영화인들한테 직접적인 도움이 돼야 되는데 그 쓴 만큼의 효과성이 아니라는 거지요, 이렇게 간접 지원한다는 부분이.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은 삭감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손솔 위원이 독립영화 관람 지원 50억 증액을 했습니다. 앞서 공연 관람료 지원도 50억 이렇게 했었는데 이게 지금 어떤 사업입니까? 월정액 관객, 누구에게 얼마씩 주겠다

는 거예요, 50억 원?

○문화체육관광부콘텐츠미디어산업관 최성희 지금 패스 말씀하시는……

○김승수 위원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부콘텐츠미디어산업관 최성희 지금 저희가 생각하고 있기로는 독립영화에 대해서 한 1만 3000장 저희가 1만 원씩 해서 하는 부분 그리고 청년들 대상으로도 1만 3000명 그리고 시니어 대상으로도 1만 3000명 1만 원씩 지원을 해서 3회를 보게 될 때 1, 2회는 관람객들이 부담을 하시고 3회째에는 정부가……

○김승수 위원 독립영화의 연간 총 관람객이 몇 명입니까?

○문화체육관광부콘텐츠미디어산업관 최성희 3000만 명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 기준으로 3300만 명.

○김승수 위원 독립영화가 그렇게 많아요?

○조계원 위원 잘못된 것 같은데……

○문화체육관광부콘텐츠미디어산업관 최성희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승수 위원 우리가 전체 영화 관람객이 1억 돌파하고…… 그런데 독립영화가 3300만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문화체육관광부콘텐츠미디어산업관 최성희 아, 300만 명입니다. 3.3%입니다.

○김승수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밖에 안 되는데 50억을 지원한다는 것이 맞느냐, 전체 영화에 지원하는 거에 비해서.

○문화체육관광부콘텐츠미디어산업관 최성희 독립영화뿐만이 아니라 지금 청년과 시니어에 대해서도 3분의 1씩 하는 거기 때문에 청년이나 시니어에 대한 거는……

○김승수 위원 독립예술영화 관람지원 인디필름 해서 50억 증액으로 돼 있잖아요.

○조계원 위원 지금 김승수 위원님 얘기하는 것은 손술 위원님이 올리신 ‘독립예술영화 관람지원(인디필름 패스)’ 그거예요. 뒤에 나온 영화 패스 그거하고 달라요.

○문화체육관광부콘텐츠미디어산업관 최성희 예, 그게 좀 섞여 있었던 거 같습니다.

○김승수 위원 그러니까 이게 상식적으로 여기에 50억이 지원이 되는 것이 맞느냐는 거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상식 수준에서 지금 예산을 책정을 하자는 거지요. 예결위 가서, 자꾸 반복됩니다만 10억이라 하더라도 예결위 통과 되기 어렵겠습니까만. 이게 웃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50억이 계속 가면?

그리고 저 뒤에 차세대 미래관객 육성, 이게 영화 관람 기회가 없거나 또 시골 농촌 지역이나 이런 쪽이면 모르겠는데 옛날에 우리 문화영화 했듯이 이런 식으로 50억 증액 해 가지고 한다는 건 굉장히 시대착오적인 그런 발상이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이렇게 해서 영화 관람에 대해 가지고 그게 한 번 갔다고 해서 가겠습니까? 오히려 보면 클래식이라든지 우리가 공연예술 분야 중에서 좀 대중성이 떨어지지만 그런 데 한번 관람의 기회를 줌으로 인해 가지고 상당히 자기도 모르는 거기에 대한 관심이나 또 잠재적인 소질이나 이런 부분은 저도 굉장히 공감하고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데 지금 영화에 대해서, 거의 다 보면 OTT나, 극장에 안 간다뿐이지…… 그런데 이렇게 극장에 가는 데에 대해서 50억 증액하는 것은 이건 굉장히 시대착오적이다 해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를 하고요.

○문화체육관광부콘텐츠미디어산업관 최성희 그런데 영화 관람도 공연과 마찬가지로

경험을 해 보면, 사실 요즘 젊은……

○**김승수 위원** 그러니까 영화 경험을 이런 식으로 정부에서 50억씩 쥐 가지고 경험을 안 시켜도 충분히 청소년들이 경험할 수 있다는 거지요. 과거, 옛날도 아니고 말이에요, 지금.

그다음에 손솔 위원이 또 말씀하신 것 중에 지역 영화문화 활성화 지원 네트워크 구축인데 이 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문화체육관광부콘텐츠미디어산업관 최성희** 지역에서 영화 인력들을 양성하고 영화 관련해서 기획전이나 제작들을 하거나 아니면 지역 특성에 맞는……

○**김승수 위원**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들에게 어떻게 예산을 집행하겠다는 건지 그 내용을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콘텐츠미디어산업관 최성희** 예, 광역자치단체는 사무협약을 체결한 2개 이상의 영화·영상 단체에 지원을 하는 사업이고요. 사실 이게 재작년까지는 사업을 진행했었습니다. 작년에 예산이 반영이 안 돼서 진행을 못 했었고, 사실 지역에서의 영화 생태계를 활성화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영화가 의외로 이렇게 지역에서, 예컨대 머내마을영화제 같은 거는 그 마을 전체가 그 영화제 하나를 통해서 1년 내내 돌아가고 현장에 초등학교생부터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까지 참여를 하고 촬영도 하고 서로 토론도 하고 기획도 하고 그러거든요.

○**김승수 위원** 당초에 목적했던 그런 쪽으로 영화가 제작이 되고 또 그런 영화산업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지역경제도 활성화되고 이렇게 했으면 왜 예산에 반영이 안 되고 삭감이 됐겠어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그게 저희들 재정 구조가요, 위원님, 매년 10%씩 그냥 일괄 삭감을 하다 보니까 이 액수가 적은 것들은 그냥 자동 삭감이 되고 그다음에 살아나지 못하는 그런 면이 좀 있었습니다.

○**김승수 위원** 그러니까 그런 당초 목적과 다르게 나눠 먹기식으로, 지역 영화인들이 그런 식으로, 또 아주 질적으로 퀄리티가 떨어지는 영화들이 제작되다 보니까 보는 사람은 없고 이렇게 해서 그냥 이게 삭감이 됐다 저는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문화체육관광부콘텐츠미디어산업관 최성희** 그런 이유에서 삭감이 되었다기보다는 사실 우선순위에서 밀린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작년에 국회에서 증액도 굉장히 노력을 했지만 반영 안 된 부분이 있고요. 사실 지역에서 영화 인력들을 양성하고서, 저희가 지역의 음악인이나 예술인들을 양성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지역에서 영화인들을 양성하고 또 영화인들이 자체적으로 제작도 해 보고 서로 커뮤니티 안에서 활동들이나 영화 상영도 같이 하면서……

○**김승수 위원** 그 부분은 그렇게 놔 두고.

어쨌거나 그거 말고 내가 정리를 하자면, 독립영화 관람 지원 50억 원은 너무 과다하기 때문에 적절한 액수가 돼야 된다는 부분이고, 국민 영화관람 활성화 지원은 많은 위원들이 전액 삭감을 주장했는데 전액 삭감은 아니더라도 이 부분은 적절하게 조정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차세대 미래 관객 육성 이것은 전액 삭감을 주장합니다.

○**소위원장직무대리 임오경** 저도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팬데믹으로 인해서 OTT가 활성화됐고 영화산업이 어두운 터널 안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저희가 OTT로 인해서 영화산업은 이제는 더 이상 재건될 수 없다고 판단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영진위 위원장님에게 수도 없이 말씀드렸던 거예요, 미래지향적으로 계획 세워서 가져오라고, 아니면 이렇게 붕괴된다고.

제가 진짜 그 누구보다 영화관에 자주 관람하러 갔었고 그러면서 애정을 갖고 있었는데, 저는 이렇게 영화가 ‘왕사남’으로 인해서 다시 활성화를 칠 거라고 예측을 못 했습니다.

저는 좋은 영화가 나오면 국민은 영화관으로 향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영화산업은 저희가 지금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수도 없이 지원을 하고 지금은 체육기금으로 해서 900억이 넘는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어요. 또 올해 추경에서도 체육기금에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체육인으로서 아픈 마음도 있지만 영화산업은 저희가 살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연사업과 저는 같은 맥락에서 봐서 이 사업은 예산을 감액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고요.

또 위원님들이 의견 주셨지만 저는 차세대 미래 관객 육성 관련해서는 적극 찬성입니다. 왜 그러냐면 위원님들도 여기 저하고 비슷한 세대, 더 윗분들도 계시지만 과거에는 교육으로 해서 다 영화관으로 관람하러 갔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변하면서 저희가 지금은 집에서 핸드폰 하나로도 TV에서도 다 영화를 상영할 수 있게 되었지만, 지금 학교에서 우리 학생들에게 진짜 좋은 교육이란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이들이 핸드폰만 가지고 놀고 있고 게임만 하고 있고 혼자서 노는 놀이로 그리고 학원으로, 집에서 혼자서 방콕하는 아이들이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저는 과거에 했던 이런 교육사업이 너무나 좋다고 생각합니다. 과거를 통해서 현재를 직시하고 더 밝은 미래를 저희가 지향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과거의 좋은 사업들이 지금 다시 반영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차원에서 아이들에게 오히려 올바른 교육을 위해서 단체 영화 관람을,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는 영화를 선택해서 영화 관람을 하는 이 사업, 제가 진짜 지금 이것을 처음 이렇게 보면서 너무나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위원님들 반대 의견도 나왔지만 저는 청소년들을, 좋은 측면으로 교육으로 본다면 위원님들이 다시 한번 생각해 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또한 독립영화 관련해서도 갑자기 신규로 지금 계속해서 나왔네요. 그렇지요? 지금 손솔 위원님이 내신 거랑 보게 되면? 그렇잖아요?

○문화체육관광부콘텐츠미디어산업관 최성희 예, 맞습니다.

○소위원장직무대리 임오경 지역 영상 생태계 기반 마련과 이 제작지원 마련 사업이 같은 사업 쪽으로 저는 보여지거든요. 저희 광명을 예시로 든다고 하면 광명에서 민간에 영화 제작을 직접 하게 해서 쇼츠라고 하지요, 짧은 영화를 만들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역에서 예산을 1억, 2억씩 반영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직접 관람하러 간 적이 있습니다. 저는 이게 지역도 영화산업을 일자리 창출 플러스 영화에 관심을 갖게 하는 시작이라고 생각해요, 이 소규모 영화가.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가 다 반영시키기는 저도 어려울 것 같고, 수용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지역 영상 생태계 기반 마련(신규) 그리고 지역 영화문화 활성화 지원(신규) 그리고 지역영화 기획개발 및 제작지원(신규) 이 3개 사업에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어떤 사업입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그중에서는 지역 영상 생태계 기반 마련 20억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직무대리 임오경 그렇다라면 저는 이 2개, 10억 그리고 5억, 공정환경조성사업 이 2000만 원은 감액해도 될 것 같은데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다 필요한데 하나만 고르라고 하면 20억 지역 영상 생태계 기반 마련이 중요합니다.

○소위원장직무대리 임오경 이것은 수도권 중심이 아니라 지역으로 내려가는 건가요, 아니면 수도권도 포함되는 건가요?

○문화체육관광부콘텐츠미디어산업관 최성희 지역으로만 내려갑니다.

○소위원장직무대리 임오경 그러니까 지방으로 다 내려가는 사업이지요?

○문화체육관광부콘텐츠미디어산업관 최성희 예.

○소위원장직무대리 임오경 그렇다라면 위원님들이 한 번만 이 부분에 있어서 다시 생각해 주신다면 지방 영화를 위해서 또 이렇게 창작자들과 영화를 만드는 데 있어서 좋은 사업인 것 같아서 저는…… 그리고 또 하나는 차세대 미래 관객 육성에 관련돼서도 청소년들이 직접 영화관을 방문하는 이러한 사업을 할 수 있다면 저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해서 앞으로 더 늘려야 되는…… 본예산에서 이것은 실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위원님, 차세대 미래 관객은 아까 김승수 위원님이 어디서나 볼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극장이 올드플랫폼이 아니고 OTT하고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 안에 들어가서 음향과, 몰입해서 보는 두 시간 동안의 경험은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걸 경험해 봐야 다음에도 또 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 요즘 젊은 청소년들이 그 경험을 잘 안 합니다. 그래서 지금 차세대 관객들이 없어질 판이라서 이게……

○소위원장직무대리 임오경 그러니까 이게 좋은 사업이에요. 원래 이런 좋은 아이디어 사업들을 본예산에 실어 준다면 더 많은 예산을 저희가 반영시키라고 하겠는데 지금 추경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위원님들의 의견 차이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저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수용한다는 말씀 드립니다.

○조계원 위원 저도 한 말씀 더 하자면 아까 존경하는 임오경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영화산업이 위축되게 된 게 코로나 시대 때 위축이 된 겁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청소년들의 영화관 출입도 사실상 봉쇄가 됐지요. 그리고 당시 영화산업이 그 전보다는 절반 이상 관객이 감소했지요. 47.9%밖에……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맞습니다.

○조계원 위원 그 수준에 머물 정도로 심각한 침체기, 그러면서 넷플릭스를 비롯한 OTT가 급성장을 하게 되고 그래서 체험의 공간 자체가 영화관에서 안방으로 전환되면서 청소년들의 영화에 대한 체험, 경험이 많이 차단된 상황,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금 지원하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러한 부분들이 사실은 영화산업의 미래

를 견인할, 미래관객을 확보하는 긴 장기적인 측면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런 맥락에서 존경하는 김승수 위원님께서 마음을 열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어쨌든 지금의 상황이 ‘왕사남’으로 인해서 한국 영화의 가능성이 다시 확인됐는데 이것이 또 중동발 전쟁 속에서 침체될 수 있는, 그것을 또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편성하는 예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추정 아니겠습니까? 그런 맥락에서 아까 공연예술과 마찬가지로 적극적인 예산편성에 동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김재원 위원**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차세대 미래관객 육성이라는 좋은 측면에서 추경이 돼야 되는 것은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자꾸 우리가 여기서 간과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미래관객 육성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 이것의 중점적인 목표는 지역일자리 창출 아닌가요? 지역 영화인들이 해설 도슨트라든지 이런 것들에 참여하면서 영화가 제작되는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보여주고 영화 해설을 통해서 사실은 지역 영화계에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데 방점이 찍혀 있는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관광부콘텐츠미디어산업관 최성희** 예, 그런 목적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김재원 위원** 그 논의는 왜 지금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좋은 취지? 좋은 취지 다음에 하면 되지, 내년에 하면 되지. 그런데 지금은 지역일자리 만들기 위해서잖아요. 그 얘기는 왜 안 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콘텐츠미디어산업관 최성희** 영화 관람뿐만 아니라 그런 교육이나 진로교육 같은 것들에 연계하고 영화 자체에 대해서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과정들을 통해서 관람과 진로교육이나 영화 분야로서의 진입 같은 것들도 같이 알리고 지역 영화인들에게도 일자리를 제공하는 일들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승수 위원** 국장님, 정말 답답한 게요 당초 현 계획 2억은 어떻게 쓰려 그랬었어요? 차세대 미래관객 육성 2억 원은?

○**문화체육관광부콘텐츠미디어산업관 최성희** 영화 단체관람을 하면서 학교랑 연계해서……

○**김승수 위원** 그러니까 2억 원을 수요를 몇 명을, 2억 원을 어떻게 쓰려고 했었어요?

○**문화체육관광부콘텐츠미디어산업관 최성희** 2억 원을 통해서 저희가 한 2만 명가량 학생들에게 단체관람을……

○**김승수 위원** 그러니까 당초 2억 원은 대상자를 어떻게 선발하려고 했어요, 대상자 선정을?

○**문화체육관광부콘텐츠미디어산업관 최성희** 학교의 신청을 받아서 했습니다.

○**김승수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일정 부분 영화에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라든지 영화 동호회 이런 것들, 그런 정도의 진짜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 같으면 그런 식으로 넣어도 몰라요.

그런데 지금 극장이 없는, 비수도권이나 이런 데 보면 극장 있는 데가 많지 않잖아요. 오히려 지역에 있는 애들은 가고 싶어도 극장에 못 가요. 그리고 대부분의 수도권에 있는 요즘 애들 같으면 극장 못 가는 애들이 누가 있습니까? 안 가 본 애들이 누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34페이지 영화정책지원의 쿠폰에 대해서 우리가 전액 삭감 얘기를 주장했던 것이 영화발전기금의 본래 목적이 영화산업의 기반 조성, 제작·유통·인력양성 강화 이런 데 쓰라는 겁니다.

돈이 있으면 아무 데나 지금, 다 지원해 주면 좋지요. 지금 미래관람객 50억, 영화 패스 도입 50억, 지금 여기도 영화 관람료 지원에 361억, 이런 데 쓰는 돈보다 영화발전기금의 본래 목적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데 주는 것이 훨씬 영화인들한테 도움이 되는 데 엉뚱한 데에 돈을 쓰니까 돈 쓰는 만큼 효과가 안 나올 것 같아서, 실질적으로 영화인들에게 혜택이 안 돌아갈 것 같아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50억을 애들 단체관람, 이게 지금 얼마나 시대착오적인 그런 생각이예요. 거기 한 번 영화 관람시키는 것들보다는 돈을 안 주고도 애들이 정말 영화 보고 싶어서 극장 갈 수 있도록 그런 영화가 제작돼서 올 수 있도록 만드는 영화 생태계에 돈을 투자하는 것이 더 맞는 거지, 한 번 이렇게 관람해 가지고 이 친구들이 영화가 퀄리티가 떨어지고 하면 오히려 실망해서 더 안 오게 되는 그런 것은 생각 안 합니까?

○문화체육관광부콘텐츠미디어산업관 최성희 말씀 주신 대로 사실 그런 문제의식에서 작년부터 저희가 중예산영화를 제작하기 시작해서 시장에서 통할 수 있는 작품성이 있는 좋은 영화들을 작년부터 제작 지원을 하고 있고요. 올해도 중예산영화를 작년보다 증액해서 하고 저희가 추경을 통해서도 그런 부분들 더 강화해서 하려고 하고요.

그런데 다만 좋은 영화가 만들어져도 극장에서 사람들이 봐 주시지 않으면 그것은 영화산업 생태계에서 돈이 제작자에게 다시 굴러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사실 같이 이루어져야, 제작과 유통이 같이 이루어져야 되는 환경 때문에……

○김승수 위원 지금 좋은 영화를 만들 수 있는 데 돈이 쓰여지는 게 아니잖아요. 이 돈이 그대로 반영이 안 된다 하더라도 기본적인 발상이 너무 한심한 것이 위원들이 이렇게 쪽지예산이라든지 하더라도 생각 좀 해 보고 수용을 한다든지, 이 액수가 정당한 액수인지, 집행이 가능한 건지……

아무 생각 없이 여당 위원이 얘기하면 무조건 그냥 수용, 수용, 수용. 여당 위원들이 제기하는 예산 중에서 수용 반대한 게 뭐가 있습니까? 이게 그렇게 치밀하게 수요조사하고 계획을 세워서 만들어 낸 예산들입니까?

지금 정부 예산만 하더라도 엉터리투성이인데 거기에 대해서도 삭감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고 조정해야 되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문제의식을 가지고 검토한 게 하나도 없어요.

나도 공무원 출신이지만 정말 부끄럽습니다, 부끄러워요. 그게 국장의 자세고 과장의 자세고 그렇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콘텐츠미디어산업관 최성희 위원님들께서 많이 고심해서 주신 사업으로 알고 있고 사실 저희는……

○김승수 위원 무슨 고심해서 준 사업이에요, 이게!

○소위원장직무대리 임오경 이게 기간은 짧았지만 위원님들의 의견 차이는 충분히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시대착오적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과거에 우리가 했던 일들이 현시대에서, 저는 이것을 교육으로 봤던 거예요. 지금 이 사업을 저희 의원실에서도 지금 요청을……

제 이름이 들어가 있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사전에 제 개인적으로는 검토를 하지 못하고 나왔고 지금 이 사항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제가 좀 검토를 해 봤었는데, 이것은 시대착오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에게 오히려 혼자서 게임하고 핸드폰만 가지고 놀고 학원으로 아이들이 시간을 낭비하는 것보다는 이런 영화산업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좋은 영화를 관람하게 함으로써 친구들과 우애관계를 돈올 수도 있고 또 이러한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고 해서 저는 이게 좋다고 표현했던 거지, 이게 시대착오적이라는 것을 저 개인적으로는 생각해 보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충분히 의견 차이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김승수 위원님이 시대착오적이라고 하셔서 의견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저는 시대착오적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지금 현시대의 환경 생태계에 우리 아이들이 처해 있는 그러한 부분들을 볼 때 문체부에서 지금 이것을 수용한 부분에 있어서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하고 교육부하고도 연계해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제 개인 의견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들도 이러한 부분에서 의견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한 사람의 의견이, 위원님들의 의견이 다 맞다고 생각하지 않고 저도 제 의견이 맞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콘텐츠미디어산업관 최성희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차세대 관객 사업은 지금 영진위에서 2억 규모로 하고 있는데요. 사실 학교에서의 수요는 굉장히 많은 사업입니다. 그리고 반응도 굉장히 좋고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예산이 부족해서 그걸 확대하지 못하는 상황이라 사업에 대한 체계나 준비는 충분히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직무대리 임오경 영진위에서 오랜만에 좋은 사업 가지고 온 것 같습니다. 그렇게 2년, 3년 동안 영진위원장한테 그 난리를 쳐도 좋은 계획서 한번 제출해 본 적도 없는데…… 저는 처음 있는 일인 것 같습니다.

○조계원 위원 위원장님, 정리 좀 하고 지나가시지요.

우선 어쨌든 존경하는 김승수 위원님께서서는 일단 총 세 가지지요, 국민 영화관람 활성화 지원 사업하고 그다음에 차세대 미래관객 육성 사업 그다음에 지역 영상 생태계 기반 마련 사업 이것에 대해서 보류 의견이신 거지요?

○김승수 위원 예.

○조계원 위원 그런데 저도 존경하는 김승수 위원님의 의견은 일부 공감하면서도 국민 영화관람 활성화 지원 사업은 지금 영화 창제작 지원 사업을 별도로 다 추진하면서 또 관객을 끌어모아야지 그게 활성화되기 때문에 지금 중동 전쟁 위기로 인해서 침체된, 직격탄을 맞고 있는 문화예술공연산업과 마찬가지로 영화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맥락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같이, 아까 공연예술과 마찬가지로 이 부분은 좀 수용을 해 주시면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보류 의견으로 해서 같이 검토해 보는 것으로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기현 위원 저도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잠깐 본회의 질의 때문에 나갔다 왔는데요.

제가 추경 올라온 예산 중에 이 예산 관련해서는 잘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편입니다. 저희 집 바로 인근에 극장이 있는데, 그 극장이 김승수 위원님도 아시는 웨스턴돔이라고 하는 곳에 있는 극장인데 그 상권이 일산을 대표하는 상권이었습니다. 다 망해 갔어요. 유일하게 남아 있는 게 극장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그 극장이 그 지역에 있는 상권을

리딩(leading)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지금 웨스턴돔이라는 상권의 식당 그리고 카페를 운영하는 데 핵심적으로 영화관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문화의 날 행사라고 해서 저희 지역 당원들하고 영화를 한 달에 한 번씩 봅니다만 그 극장에 많은 사람들이 올 때 가서 식사도 하고 차도 마시고 끝나고 나서 맥주도 한잔하고 이렇습니다. 이게 저희 지역 상권을 유지하는 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생각을 해서 저는 영화 사업이 이렇게 상권을 살리는 파생효과도 있구나라는 것을 좀 느낀 편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 지원 관련해서는 금액 361억 감액 의견을 주셨는데 이 문제는 존경하는 위원님들, 저 같은 경우 제가 직접 눈으로 확인을 하고 있는 내용이어서요 이 문제는 한국영화 산업뿐만 아니라 골목상권 활성화에도 대단히 큰 기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한번 드립니다.

○소위원장직무대리 임오경 저희 위원님들이 많은 의견들을 지금 말씀하셨습니다. 정부 측에서도 다시 한번 꼭 필요한 것 말씀해 보십시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아까 361억 이것은 정말 작년에도 450만 장 뿌려서 바로 다 소진됐고 그것 소진되면서 ‘쫄비탈’이 탄력을 받아서 국내 영화 1위를 한 게 있고, 저희들은 그 기세가 ‘왕사남’까지 조금 이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고유가로 민생이 어려워지면서 영화계가 다시 또 어려워질 판인데 이때 이 361억으로…… 이번에는 600만 장인데요 600만 장을 배포하게 되면 상영관에 가고 상영관에 간 돈이 투자·배급으로 가고 투자·배급이 제작으로 가서 제작 현장에 있는 영화인들한테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소위원장직무대리 임오경 그리고 또 말씀하신 부분, 차세대 미래 관객 육성 관련해서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차세대 미래 관객 육성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임오경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극장에서 2시간 동안 몰입해서 그 영화를 하나……

○조계원 위원 이것 먼저 처리하고 가시지요. 이 부분, 김승수 위원님 마지막……

○소위원장직무대리 임오경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 들어 보면 집행액이 다 소진됐다는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직무대리 임오경 그러니까 집행액이 다 소진돼서 새롭게 반영하는 건데, 이것을…… 김승수 위원님, 감액 의견을 낼 수도 있지만 정부 측 얘기도 들어 보고 또 많은 영화를 사랑하시는 위원님들이 다 한 말씀 한 말씀 해 주셨는데, 다 소진된 예산을 새롭게 반영한다는데 저희가 반대할 부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김승수 위원 아니, 제가 다시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 제가 반대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동료 위원들이 다 반대를 해서 이렇게 전액 삭감 의견을 냈던 부분이고 그게 또 이유가 다 있는 것 아니에요?

이게 앞서 ‘쫄비탈’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쫄비탈’과 이번의 ‘왕사남’ 얘기를 하는데 ‘쫄비탈’에 관객이 많이 들었다 그래 가지고 실질적으로 우리 영화생태계가 좋아졌느냐, 나아졌느냐? 우리 영화생태계가 좋아졌다, 나아졌는데 대해 가지고 판단의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소진되었다, 썼다가 아니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디가 더 중요하고 더 필요하고 이런 부분을 구분을 못 하는 거예요.

지금 국내 영화 제작 편수가 자꾸 줄어드는 이유가 뭡니까? 투자가 안 되고 있고 그 투자에 대해서 회복에 대한 기대가 떨어지니까, 그것 제작·편성 줄어드니까 영화 인력들이, 영화인들이 다 없어지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제작이 활성화돼서 일어나도록 하는 방법이, 쿠폰 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는데, 쓰는 돈에 비해 가지고 직접적으로 효과가 안 미치니까 그렇게 얘기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들 반대하는 의견들도 있으니까 보류해서 어느 정도가 적절한지에 대해서 좀 더 따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앞서 독립예술 영화 관람 지원 이것은 필요하다 하더라도 증액 부분이 너무 과다하니까 적정 증액으로 예산 조정이 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차세대 미래 관객 육성, 전혀 필요 없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50억을 증액시켜서 한다는 것 자체는 이게 너무 터무니없는 증액을 갖고 왔다는 부분이고……

그러면 이것 한번 질문하면서 끝내겠습니다.

차관님, 지금 영화관이 없는 지자체가 몇 개인지 아십니까? 그 영화관이 없는 지자체에서 공부하고 있는 청소년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통계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영화관이 없는 기초지자체는 저희가 갖고 있을 것 같은데, 학생들 수까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승수 위원 그러니까 일단 이게 도시에 있는, 극장 옆에 있는 애들이 단체로 관람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효과성에 대해서 의문이지만 기본적으로 상당수 청소년들은 극장 자체를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오히려 쉽게 영화관에 갈 수 있는 애들이 더 혜택을 볼 수밖에 없는 희한한 구조가 되는 거예요. 또 그게 영화 산업 발전에 직접적으로 효과를 미치지 못하고요. 그래서 내가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소위원장직무대리 임오경 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저희가 수영 같은 경우도 생존 수영이라고 해서 갑작스럽게 도입시켜 놓고 학교에 수영장이 다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자리를 창출해서 선생님들을 채용해서 그 아이들을 버스를 태워서 수영장까지 가서 수영을 하게 하고 그런 사업들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부정적으로 보면 끝이 없겠지만…… 모르겠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이렇게 보게 되면 참 좋은 사업인 것 같아서 내년에는 좀 더 많은 예산을 반영시켜 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죄송합니다. 이것 통으로 해서 보류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영화 제작 부분에 있어서 지원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저희가 2026년도에 모태펀드에서 전략펀드까지 다 증액해서 새로운 사업까지도 만들었습니다. 그렇지요? 제작에 관련해서도, 그런데 지금 ‘왕사남’ 같은 대작 영화가 나왔고 그 제작 사업은 멈추는 게 아닙니다. 그렇지요? 지금 추경 예산에도 모태·전략 펀드에 더 예산을 증액해 달라고 정부 예산에 들어가 있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직무대리 임오경 그런데 저는 그 용자 지원 사업이 너무나 많아서 오히려 그것을 삭감하고 직접 지원하자라고 계속 요청을 드렸었던 거고, 그래서 저희가 제작을 지원하는 데 있어 지원을 안 하거나 그러지는 않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콘텐츠미디어산업관 최성희 예, 맞습니다.

○소위원장직무대리 임오경 통으로 보류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위원장님, 김승수 위원님께서 지금 보류 의견 말씀을 하신 것은 총 4건이거든요. 그런데 이걸 통으로 다 하실 필요가 있으실까요? 김승수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은 독립예술영화 관람 지원 50억 하고요 361억 이것 적정 규모로 했으면 좋겠다는 것하고 차세대 미래관객 육성하고 지역 영상 생태계 마련, 이 4건이었거든요. 이 4건만 해 주시는 게……

○소위원장직무대리 임오경 그게 아니라 김승수 위원님은 감액을 요청하셨지만 나머지 위원님들은 다수가 반대 의견이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의견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그러니까 4건 말씀하시는 거지요? 통으로 한다면, 이게 사업이 세부사업이 2번, 3번이 많아지거든요.

○조계원 위원 한꺼번에 다 보류하는 것보다는 제가 보기에 지금 보류를 요청하신 안건에 대해서 한 건 한 건 다시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특히 국민 영화관람 활성화 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그 어느 예산보다도 지금 이 전쟁 추경 여가의 적절한 골든타임에 딱 부합하는 사업이다. 그리고 소비 진작, 활성화까지 연결되는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우려하셨던 창제작 지원 사업은 지난번 예산에서 중규모 이상 사업에서 증액을 했어요, 오히려. 그래서 그것 충분히 제작 지원을 할 수 있게 반영을 했고.

또 ‘왕사남’ 같은 경우 총제작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콘텐츠미디어산업관 최성희 111억입니다.

○조계원 위원 예, 그것 정확한 중예산 사업이었지요. 거기에 부합하는 사업이었고. 이러한 예산은 충분히 우리가 지난 예산을 통해서 지원을 했고 지금 그것들이 시장에서 잘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 국민 영화관람 활성화 지원 사업 아니겠습니까? 더더구나 지금 전쟁 추경으로 문화예술 분야, 영화 이쪽이 직격탄을 맞은 상황에서 이것을 지원하고, 동시에 소비 진작으로 연결될 수 있는 사업 아니겠습니까? 이건 꼭 필요한 사업이라 생각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존경하는 김승수 위원님께서 감안해서 철회하고 나머지 보류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다시 검토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재원 위원 존경하는 김승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 4건에 대해서 일부 감액을 말씀하신 것 같고, 지금 통으로 감액을 전체적으로 다 보류를 하자는 얘기는…… 지금 그 분야에서는 사실은 저희에게 목숨줄이 달려 있습니다. 그 부분을 잘 아시기 때문에 지금 통감액을 얘기를 하셨다기보다는 일부 감액을 말씀하신 것으로 저는 알아들었는데요. 지금 우리가 통으로 보류하게 되면 굉장히 작은 분야라도 거기는 정말 목숨줄이 달려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일부 양보하셔서 어느 정도는 여기서 감액을 좀 하더라도 통으로는 감액이 안 됐으면 좋겠다 혹은 통보류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직무대리 임오경 다 영화하고 영화정책 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정부 측 의견도 제가 다 존중을 했고 위원님들도 다 경청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의

견 차이가 계속해서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다루자라는 입장에서 제가 보류를 요청한 거고요.

○조계원 위원 오늘 다시 다루자 이겁니까?

○소위원장직무대리 임오경 예, 그런 겁니다. 뒷부분에서, 지금 저희가 앞부분도 보류 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것과 같이 마지막에 다시 한번 다루자는 겁니다.

1차관님 소관 관련해서 이 뒷부분까지 다루고 나서 저희가 보류로 지금 놔둔 거 있잖아요. 다루고 끝낼 겁니다. 그리고 잠깐 정회를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2번하고 3번 전체를 보류하자는……

○소위원장직무대리 임오경 아니요, 3번 영화정책지원 사업에 있어서 국민 영화관람 활성화 지원.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예, 그것 하나. 그다음에 차세대 미래관객……

○소위원장직무대리 임오경 연번 3번을 말하는 겁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연번 3번에서도 김승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차세대 미래관객 육성하고 36쪽의 지역 영상 생태계 기반 마련 이 3개입니다. 3건만 보류해 주시면 됩니다.

○조계원 위원 그렇지요, 하더라도. 이따가 이것 전체 다 다시 논의할 겁니까?

○김승수 위원 아니, 지역 영상 생태계 기반 마련을 내가 반대한 것이 아니고 그것하고 뒤에 손솔 위원이 했던 지역 영화문화 활성화 지원 네트워크 구축 10억이 있어요. 이게 두 가지가 성격이 좀 모호하고 비슷하고 해서 이것을 좀 정리를 하자는 그런 얘기를 했던 부분이거든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맨 마지막 것은 제가 못 알아들었습니다. 그러면 총다 해서 3번에 4개가 되는 겁니다.

○조계원 위원 아니, 3개라니까요. 3개잖아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예, 361억 빼면 3개고요.

○조계원 위원 아니에요. 지역 영화 생태계 기반 마련 사업, 그다음에 차세대 미래관객 육성 사업, 그다음에 지역 영화문화 활성화 지원 사업, 이것 3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콘텐츠미디어산업관 최성희 지역 영화 생태계 관련해서는 아까 전에 1차관님이……

○김승수 위원 그러니까 2번 사업의 독립예술영화 관람지원(인디필름 패스) 부분이 있었고요. 세부 사업은 다른 거지요. 영화정책지원에는 아까 얘기했던 영화관람 활성화 지원하고 미래관객 육성하고 뒤에 얘기했던 지역 영상 두 가지 사업이 있는데 그것은 국장이 설명을 해 보세요, 앞의 20억하고 뒤의 손솔 위원 10억하고 어떻게 차이가 있는 건지.

○문화체육관광부콘텐츠미디어산업관 최성희 지역 영상 생태계 기반 마련 사업은 사실 앞쪽에 있는 20억 사업하고 10억과 5억 사업이 같은 맥락에 있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까 1차관님이 말씀하신 대로 20억 사업에 통합해서 같이 정리하면 어떨까 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20억 사업 하나만 살리면 저희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역 영화문화 활성화 지원 이것은……

○**김승수 위원**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 3개 사업만 보류해서 논의하도록 하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그러면 지역 영상 생태계는 보류 안 하시는 것으로.

○**김승수 위원** 그래요.

○**문화체육관광부콘텐츠미디어산업관 최성희** 그리고 아까 인디 패스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뒤쪽에 영화 패스로 해서 인디 패스랑 청년과 시니어 같이 해서 50억 있는 사업이 있는데 뒤쪽 사업으로 통합하는 게 어떨까 합니다.

○**김승수 위원** 그렇게 통합이 가능하면 통합해서 그렇게 하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콘텐츠미디어산업관 최성희** 예, 감사합니다.

○**김승수 위원** 그러면 미래하고 영화 활성화 지원, 두 가지 사업만 보류해서 그렇게 논의하도록 합시다.

○**문화체육관광부콘텐츠미디어산업관 최성희** 예.

○**소위원장직무대리 임오경** 그러면 연번 2번의 독립예술영화 관람 지원에 관련돼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문화체육관광부콘텐츠미디어산업관 최성희** 독립예술영화 관람지원(인디필름 패스) 있는 사업을, 35쪽에 영화 관람 패스라고 있습니다. 원래 인디와 청년과 시니어까지 같이 해서 50억 하는 사업이거든요. 거기에 포함하면 인디에 대한 부분도 할 수 있고 저희가 대상을 특화해서 접근성이 낮은 청년과 시니어에 대한 지원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서 통합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김승수 위원** 통합해서 총액을 얼마로 할 거예요?

○**문화체육관광부콘텐츠미디어산업관 최성희** 50억으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김승수 위원** 그러면 독립예술영화 여기에도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한 것 아니에요, 패스에? 별도로 안 해도 되겠어요? 필요 없다는 게 아니고 인디 쪽에 50억 하는 것이 과하다 하기 때문에……

○**문화체육관광부콘텐츠미디어산업관 최성희** 앞에는 50억을 인디에 다 하는 사업이고요.

○**김승수 위원** 그러니까.

○**문화체육관광부콘텐츠미디어산업관 최성희** 뒤에는 원래 50억을 가지고 인디와 청년과 시니어를 같이 해서 1만 3000매를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앞쪽에 비해서 뒤쪽으로 가면 3분의 1 정도로 규모가 줄어듭니다.

○**김승수 위원** 뒤에 35페이지에 있는 50억에 10억 정도라도 추가하면 그만큼 독립영화의 포션이 늘어나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문화체육관광부콘텐츠미디어산업관 최성희** 10억 추가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김승수 위원** 그런 식으로 하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콘텐츠미디어산업관 최성희** 예, 감사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그러면 35쪽의 50억을 60억으로 해서 앞에 것은 빼고.

○**조계원 위원** 다 정리가 되고 있네요.

○**소위원장직무대리 임오경** 유통배급종합지원 관련돼서요?

○**문화체육관광부콘텐츠미디어산업관 최성희** 이것은 아까 문제 제기 안 하셨습니다.

○**소위원장직무대리 임오경** 차세대 미래관객 육성에 관련돼서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그것은 규모를 조금 조정해서, 보류해서 다시 말씀드리는 것으로……

○소위원장직무대리 임오경 조정을 하겠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예.

그런데 국민 영화관람 활성화 지원 사업은, 김승수 위원님, 361억 이것은 사실 이것보다 더 필요한데 이것은 좀……

○김승수 위원 그것은 보류해서 논의하시지요.

○조계원 위원 이것은 해 주시지요, 그러면 다 정리가 될 것 같은데.

○김승수 위원 보류해서 논의하시지요.

○소위원장직무대리 임오경 그것은 통과를 시키고요, 위원님.

○김승수 위원 저 혼자만 반대하는 게 아니잖아요.

○소위원장직무대리 임오경 아니요, 저희는 다 찬성입니다, 위원님.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차세대 미래관객 사업을 많이 조정하더라도 361억 이것은 정말 절실한 사업입니다. 600만 장이 영화계에 굉장히 큰……

○소위원장직무대리 임오경 집행률도 100% 다 소진됐다고 하니까……

○김승수 위원 내가 이 사업 자체에 대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데 똑같은 예산을 여기에 쓰는 것과…… 다른 데 쓰는 것이 더 맞다고 하는 것이 우리 당 다른 동료 위원님들의 지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분들이 이렇게 지적을 해서 몇 개, 수용 반대 의견 낸 게 앞서 공연 관람료 지원하고 이것밖에 없다시피 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독단적으로 할 수 없으니까 보류해서 반대했던 위원님들의 의견도 들어 보고 그렇게 결정을 하자는 거예요.

○소위원장직무대리 임오경 위원님, 저희가 지금 본예산을 다루는 게 아니고 추경입니다. 이러다가는 날 새겠습니다.

○김승수 위원 그러니까요.

○소위원장직무대리 임오경 그리고 지금 여기에 참석하지 않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저희가 의견을 나누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여기 참석하신 소위원님들을 존중해 주셔야지요. 여기 계신 위원님들의 의견은 존중해 주시지 않고 참석하지 않은 감액 났다는 위원님들 의견만 존중해 준다는 것은 이것 또한 저는 맞지 않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조계원 위원 우리가 예결소위 위원이니까 여기서 논의하는…… 추가로 아까 여기서 제기했던 문제들에 대해서 답을 했지 않습니까? 이런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작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리고 나름대로 긴급성과 불가피성, 현재 중동전쟁으로 인해서 모처럼 개화기를 맞은 영화산업이 위축되는 상황을 다시 한번 살릴 수 있는 긴급자금의 필요성, 이것들이 또 시장에 연동이 돼서 시장을 활성화할 수 있다는 측면까지 다 말씀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이해……

○이기현 위원 그러시지요.

○조계원 위원 예결위원이 어쨌든 이것 전달하는 위원 아니겠습니까?

○이기현 위원 그리고 전체회의 가면 감액 의견 내신 위원님들이 입장 내실 테니까 오늘 예결소위는 이렇게 통과시켜 주시는 것으로 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승수 위원** 그래도 앞서 말씀은, 정말 너무 반복해서 제가 입이 아플 지경인데……

○**소위원장직무대리 임오경** 아니, 매년 해 왔던 바우처 사업입니다. 추경에서 한 번도 이것 가지고 저희가……

○**김승수 위원** 앞서 공연예술관람료 지원하고……

○**소위원장직무대리 임오경** 100% 집행이 됐던 사업입니다. 그리고 매년, 이것은 이재명 정부가 아니라 윤석열 정부 때도 바우처 사업에 관련돼서는 저희가 항상 반영을 시켰던 사업이에요. 처음으로 이견이 나오고 있는데, 집행도 100% 완벽하게 다 소진된 사업이에요.

○**진종오 위원** 저도 한말씀만 드릴게요.

이게 자꾸, 보류하기로 했으면 보류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은데 저 또한 아까 초반에 질의드렸던 것처럼 미래 관객 육성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은 해요. 하지만 저 또한 말을 아꼈던 게 차라리 제작 지원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냥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보류하기로 했으면 나중에 얘기하시지요, 같은 얘기 계속 그만하시고.

○**소위원장직무대리 임오경** 아니, 제작 지원에 있어서도 모태·전략펀드에 있어서……

○**진종오 위원** 예, 알고 있는데 차라리 그쪽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말을 하고 싶었던 것을 안 했다고요. 안 하고 있었는데……

○**소위원장직무대리 임오경** 아니, 오히려 융자 지원 사업은 저희가 직접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삭감하자는 의견들이 많습니다.

○**진종오 위원** 그래서 똑같은 얘기 계속하지 마시고.

○**김승수 위원** 앞서 박수현 위원장님도 부득이 자리를 비우면서 이견 있는 것들은 보류해서 논의의 효율성을 기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당부하고 가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보류가 거의 없어요. 거기에다가 앞서 공연예술관람료 지원하고 이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당의 간사 위원을 포함해서 전액 삭감을 주장했던 부분이고 공연관람료 지원 관련해 가지고는 해당 의원실에 마치 양해를 구한 듯이 얘기해서……

○**소위원장직무대리 임오경** 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김승수 위원** 그래서 그것은 수용하고 들어갔는데 다시 확인해 보니까 양해를 얻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공연관람료 지원은 그렇게 넘어갔으니까……

○**소위원장직무대리 임오경** 아니요, 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이것 관련해서 위원님들에게 양해를 다 구하고 그러지는 않았습시다. 추경에 관련해서는 이게 긴급하게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어느 의원실에 와서 이것을 설명했거나 그러지 않았었고.

그리고 지금 위원님의 반대 의견은, 계속 감액 의견은 있지만 또 여기는 증액을 수용하자는 위원님들의 의견이 많습니다. 위원장으로서 권한을 가지고 ‘수용 의견이 더 많기 때문에 수용으로 가겠습니다, 반대 의견도 있지만’ 이렇게 하고 싶어요. 하지만 계속해서 위원님 의견을 제가 존중하고 위원장으로서 들어 준 이유는 참석하지 않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계속해서 위원님이 대변해서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위원님의 의견을 계속 경청하고 있었던 부분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위원장으로서 ‘이것은 수용 의견이 더 많기 때문에 이것을 수용하고 가겠습니다. 그리고 차후에 부족한 설명에 있어서는 직접 찾아가서 더 추가 설명을 하게 하겠다’ 이렇게 하고도 갈 수 있지만 그래도 위원님의 의견을 계속 존중하고 있는 겁니다.

저희가 본예산도 아니고 추경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제가 지금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산특위에 가게 되면 이것은 어디까지나 감액될 수도 있습니다. 다 반영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만 양해해 주신다면……

○조계원 위원 제가 예결위원이지만 예결위에서 많이 감액될 것 같아요.

○소위원장직무대리 임오경 계속해서 말씀드리는데 의견입니다. 저희 이러다가 날 새겠습니다. 추경 이것 5800 가지고……

○김승수 위원 그러니까 추경 5800만 가지고 논의했으면 이미 다 끝났지요. 들어온 사업들이 다 새로운 사업들이 들어온 것 아니에요? 그리고 누누이 얘기하지만 삭감 의견 낸 게 유일하다시피 한 게 한 2건인데 그것도 동료 위원들이 앞서……

○소위원장직무대리 임오경 그래서 존중해서 계속해서 논의를 했었던 거고요. 이것은 집행이 100% 다 됐다라는 말씀을 계속 드리잖아요. 그리고 OTT로 인해서 영화산업이 진짜 죽어 가는 사업이었는데 올해 ‘왕사남’을 통해서 지금 다시 활성화를 찾고 있는 상황에서 이 쿠폰을, 바우처 사업을 하자라는 건데 저희가 지금 팬데믹으로 인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팬데믹이 지난 후에 영화산업이 다시 활성화를 찾고 있는 상황에서 또 이런 전쟁으로 인해서 어려운 상황에서 저희가 바우처 사업을 하자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집행이 100% 다 소진된 사업이라고 말씀을 계속해서 드리고 있고.

○김승수 위원 34페이지의 전액 삭감의 사유에 집행 부진에 의해서 삭감해야 된다는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이게?

○소위원장직무대리 임오경 아니, 앞에서 공연 사업에서는 70%밖에 소진이 안 됐다, 집행이 안 됐다라고 해서 이의 제기를 했었잖아요.

○김승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영화관람료……

○소위원장직무대리 임오경 그런데 그것은 5개월간이라고 말씀드렸고 8개월 동안 홍보해서 소진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라고 해 줬었고……

○김승수 위원 그래서 앞서는 전액 삭감 의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의원실에 설명해서 양해를 했다고 해서 수용하고 넘어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영화관람 활성화 지원은 집행률과 관계 없이 이렇게 이유를 가지고 반대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부 삭감도 아니고 전액 삭감을 주장하고 있고 이렇게 해서 이견이 있기 때문에 보류해서 논의를 해 보자 하는데 왜 다 바로바로 결정하고 넘어가려고 그러시느냐 그거지요.

○소위원장직무대리 임오경 아니, 위원님이 말씀을 하셔서 정부 측에서도 독립예술영화도……

○조계원 위원 저희가 지금 40분째 논의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면 이것은 보류하시지요.

○소위원장직무대리 임오경 독립영화 관련돼 있어서도 정부 측에서 수용이 있었지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반영해서 저희가 50억 삭감하고 50억에서 10억 더 해서 60억만 증액해서 수용하는 걸로 했고. 저희가 의견을 듣고 위원님의 의견도 존중하고 있는 겁니다, 무조건 저희가 의견 차이가 있는 것에 있어서 수용을 못 한다는 게 아니라. 그래서 연번 2번에 있어서도 독립예술영화 관람 지원 50억 증액에 있어서 삭감한다고 했고요.

○김승수 위원 지금 존경하는 임오경 위원장님께서 논의가 길어질 것은 보류해서 뒤에

서 효율적으로 논의할 수 있도록 하면 이미 2차관, 국가유산청까지 다 끝났을 거예요. 그런데 자꾸 하나도 보류 없이 끝을 내려고 그러니까 많은……

○소위원장직무대리 임오경 아니, 위원님, 저는 아까 보류를 하려고 했었는데 보류를 하더라도 1차관 소관의 예산은 저희가 빨리 마무리를 지어야 됩니다. 이것을 차후로 미루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추경이기 때문에 저희가 1차관 소관 심사에 있어서는 저는 이것을 다 마무리하고 정회를 할 생각입니다.

○조계원 위원 아까 보류한 게 있으니까, 어차피 논의해야 되니까요.

○김승수 위원 그리고 뒤에 2차관 소관까지 이렇게 해 가지고 보류 안건이 많아도 10건도 채 안 나올 텐데 밑의 실국장 다 있을 필요 없지 않습니까? 1·2차관 가지고 논의를 하면 다 깔끔하게 끝날 텐데 자꾸 이견이 있는 것을 가지고 같은 얘기 반복해서 하니까……

○소위원장직무대리 임오경 앞에서 얘기가 나왔던 것처럼 연번 2번에 관련해서는 얘기가 됐고요.

3번 국민 영화관람 활성화 지원에 있어서 의견 차이가 있어서 이것은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5년도에 지원한 영화 관람료 할인권에 관련해서는 이의가 없었고요.

차세대 미래관객 육성 관련해서도 조정이 필요하다는 것은 있어서 보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화 패스 도입 관련해서 50억에서 60억으로 증액하는 것으로 했고요.

지역 영상 생태계 기반 관련해서 20억으로 그대로 가는 것으로 했고요.

영화인 역량강화 지원 관련해서는 이견 없었고요.

지역 영화문화 활성화 지원 관련해서는 반영하지 않는 것으로 정부 측에서 의견을 주셨고요. 이 세 가지는 다 그런 거지요? 다 반영하지 않는 것으로 의견 주셨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예, 지역 영상 생태계 마련으로 20억 하고 이 10억은 없애는 것으로.

○소위원장직무대리 임오경 그리고 지역영화 기획개발 및 제작지원 5억 원에 관련해서도……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통과하시는 것으로, 수용하는 것으로.

○조계원 위원 의견 없었습니다.

○소위원장직무대리 임오경 의견 없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의견 없는 것으로 가고요.

공정환경조성사업.

○조계원 위원 의견 없었습니다.

○소위원장직무대리 임오경 의견 없었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직무대리 임오경 잠깐만요. 국민 영화관람 활성화 지원 사업 361억 원과 2025년도 제2회 추경 시 지원한 영화관람료 할인권 이 부분이 연계 사업이지요?

○수석전문위원 박재유 예, 동일한 사업.

○소위원장직무대리 임오경 동일한 사업이지요?

○수석전문위원 박재유 예.

○소위원장직무대리 임오경 그러면 이 두 가지가 같이 보류가 되어야 되는 겁니까. 그렇지요?

○수석전문위원 박재유 예.

○조계원 위원 어디하고 어디요?

○소위원장직무대리 임오경 34페이지를 말씀드린 겁니다, 지금.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예, 맞습니다, 위원님.

○소위원장직무대리 임오경 영화관람 활성화 지원 361억 원과 지금 김재원 위원님이 요청하신……

○조계원 위원 같이 보류지요?

○소위원장직무대리 임오경 예, 영화 관람료 할인권 450만 장 관련된 거니까 60억 원 증액 관련해서 이 두 가지가 같은 사업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 같이 보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박재유 수석전문위원께서 심사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재유 마지막 38페이지 부대의견입니다.

1차관 소관의 부대의견은 총 8건으로 예산의 증감에 관한 사항이 아닌 예산의 편성 또는 집행상의 개선·보완이 필요한 사항 등을 부대의견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부대의견의 자세한 문구는 38페이지부터 정리되어 있는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직무대리 임오경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부대의견 전체에 대해서 수용하겠습니다, 정책적으로.

○소위원장직무대리 임오경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보류된 건에 관련해서 한 10분 정도 시간 드리면 되겠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예.

○소위원장직무대리 임오경 잠깐 정회해서 한 10분만 쉬었다가 하시지요.

○조계원 위원 쉬었다가 2차관으로 넘어가는 겁니까?

○소위원장직무대리 임오경 아니요, 1차관 것 마무리하겠습니다.

○조계원 위원 이것 마무리한다고요?

○소위원장직무대리 임오경 예.

○김승수 위원 아니, 2차관 것 하고 보류 나오면 같이 해야지.

○조계원 위원 2차관 하고 하시지요.

○김승수 위원 보류가 진전이 안 됐는데, 2차관 것까지 해서 보류를 같이 논의를 해야지.

○조계원 위원 준비해서 설득 좀 하세요.

○소위원장직무대리 임오경 일단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6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21분 회의중지)

(18시38분 계속개의)

○소위원장직무대리 임오경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계원 위원 위원장님, 제가 발언할 기회를 주세요.

○소위원장직무대리 임오경 의사진행발언인가요?

○조계원 위원 아니요, 안건 요청드리는 것에 대해서……

○소위원장직무대리 임오경 예.

○조계원 위원 존경하는 임오경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소위원장직무대리님과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이번 추경에서 체육 관련 사업들이 하나도 반영이 되지 않은 것을 여야를 가리지 않고 문체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소위에서 해외동포의 전국체전 지원 사업 관련과 장애인 국내대회 지원 사업 관련해서 좀 추가로 심의해 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자료 배포를 허용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소위원장직무대리 임오경 위원님들, 특별한 이견이 없으면 배포해도 되겠습니까?

○진종오 위원 이미 배포 다 했어요.

○소위원장직무대리 임오경 아, 다 했어요?

○조계원 위원 고맙습니다.

○소위원장직무대리 임오경 그러면 배포해 주신 것 보기 바랍니다.

마지막에 논의하는 결로 하겠습니다, 배포된 자료는.

다음은 문화체육관광부2차관 소관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규 전문위원께서는 심사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용규 먼저 1쪽입니다. 국민소통실 사업입니다.

국가이미지 홍보 관련하여 K-산업·컬처 연계 콘텐츠 해외 송출·홍보가 본예산으로 4~8월까지 제작이 가능한데요. 연말까지 추가 제작을 위해서 10억 원 증액입니다.

2쪽입니다. 국민체육진흥기금이구요.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 관련하여 장애인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에 스포츠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 95억 원 증액입니다.

3쪽입니다.

생활체육 프로그램 지원 관련하여 맞춤형 생활체육활동 지원-유소년 스포츠 기반 구축에 400억 원, 생활체육지도자 활동 지원과 관련하여 생활체육지도자의 장기근속수당 신설을 위해 16억 3600만 원 증액입니다.

4쪽입니다.

국민체력인증 관련하여 국민체력인증 기반 구축에 노후화된 체력측정장비 교체를 위해서 필요 예산은 2억 2200만 원 증액입니다.

5쪽입니다.

스포츠활동 인센티브 관련하여 운영비 20억 원, 그다음에 스포츠활동 인센티브 지원금,

일명 튼튼머니인데요, 80억 원 증액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직무대리 임오경 다음은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1번 국가이미지 홍보 관련해서 K-산업·컬처 해외 홍보를 위해 Simply K-pop 제작비 증액을 수용합니다. Simply K-pop 프로그램 8월부터 12월까지 되는 것으로 연중 편성해서 해외 시청자를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케이팝의 글로벌 영향력을 증대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다음, 2쪽 장애인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 사업입니다.

장애인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 사업에 95억 원 증액을 수용합니다. 경제적으로 취약한 장애인들의 체육활동에 대한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을 증진하는 효과를 고려해서 해당 사업을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생활체육 프로그램 지원 관련입니다.

유·청소년 체육활동의 활성화와 체육계 일자리 지원을 위해서 유소년 스포츠 기반 구축 사업 400억 원 증액을 수용합니다. 유·청소년 신체활동 부족 문제의 지속으로 체육활동 참여 부담 완화를 위해서 전국 유·청소년 18만 명 대상 맞춤형 스포츠 프로그램 현장 보급 사업입니다.

다음, 3번 국민체력인증 관련입니다.

국민체력인증 기반 구축 사업 정상 추진을 위해 2억 2200만 원 증액을 수용합니다. 측정장비 교체를 위한 예산 증액입니다.

○조계원 위원 이견 안 하나요, 김교홍 위원 생활체육지도자 활동 지원 사업? 3페이지 생활체육지도자 활동 지원 사업이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예, 제가 스킵했습니다.

생활체육지도자 활동 지원 사업에 16억 3600만 원 증액을 수용합니다. 생활체육지도자 처우 개선을 위해서 차등적 장기근속수당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스포츠활동 인센티브 관련해서 소비 진작을 위한 스포츠활동 인센티브 사업에 100억 원 증액을 수용합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직무대리 임오경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토론 순서입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수 위원 질문 좀 할게요.

장애인스포츠강좌 이용권 95억 증액 산출 내역이 여기 나와 있는데 추가적으로 4개월을 추가하는 겁니까, 기존의 대상자들에 대해서? 대상자를 늘리는 거예요, 아니면 기간을 늘리는 거예요, 95억 증액이?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11만 원씩 4개월간 지원하는 내용인데요. 저희들이 26년 본예산으로 신청을 받았더니, 지금 2만 5900명 대상으로 지원 중인데 신청 후에도 약 3만 명 이상이 이 서비스를 위해서 대기 중입니다. 그래서 편성되더라도 빠른 시일 내에 집행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승수 위원 일단 장애인스포츠강좌는 집행률은 꽤 높은 편이라서 수용을 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맞습니다.

○**김승수 위원** 그리고 저 뒤에 유소년 스포츠 기반 구축 있잖아요. 현 계획이 38억밖에 안 되는데 무려 400억을 증액시켜 봤어요. 이 부분이 타당성이 있나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위원님, 이 부분은 저희 생활스포츠체육 예산이 약 2200억 정도 되는데 그중에 유·청소년에 관한 예산은 83억, 약 4%에 불과합니다. 청소년 시기에 체육활동에 대한 습관이 형성돼야 되는데 현재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생활체육 프로그램이 너무나 부족하기 때문에 이것은 전국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해야 된다고 보고요.

이 예산은 사실은 전국 초·중학생 375만 명의 약 5%를 위한 예산입니다. 먼저 400억 정도로 추진을 하고……

○**김승수 위원** 그러니까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어떻게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시·군·구 체육회를 통해서 각 시·군·구 체육회에서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좋아하는 생활체육 종목을 선정해서…… 학교 스포츠클럽 활동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 용구도 지원하고 용품도 지원하고.

○**김승수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출집행계획들이 나와 있어야 되는데, 지금 38억 대비해 가지고 10배도 넘는 돈 아니에요, 보면. 이게 제대로 집행이 되겠냐, 추경에 얼마나 통과될지 알 수 없다, 통과된다 하더라도 이게 집행이 제대로 되겠냐 해서 질문을 드린 부분이고.

사실은 앞서 1차관 소관의 예술인강사도 증액을 시켰지만 스포츠강사에 비해서 예술인 강사들이 더 열악하고 스포츠강사는 조금 낫다 하더라도 스포츠강사들 자체도 보면 열악한 상황 아니에요. 방과후활동에 있어 가지고 스포츠 관련된 강좌 이런 쪽에 활성화될 수 있으면 지원이 되면 상당히 유익하겠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기재부가 국가 예산으로 주는 것에 대해서 동의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예산처지요. 하여튼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대상을 타깃을 잡아서 지원을 해 줬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구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예.

○**김승수 위원** 마지막 다섯 번째, 종목단체 사무국장 인건비 지원이 12년 동안 월 100만 원인데 물가상승률 고려해서 27만 원 증액 이게 너무 심한 것 아니냐는 거지요. 하려면 아예 이런 데다 100만 원을 지급하든지, 나는 여기다가 100만 원의 배로 늘리는 게 과하면 최소한 150만 원 정도라도 지원해 줘야 되는 것 아니냐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에 맞춰서 월 150만 원으로 산출 기초를 잡아 가지고 추가 증액해서 하는 것을 저는 제안합니다.

○**소위원장직무대리 임오경** 위원님, 6페이지 말씀하신 거지요?

○**김승수 위원** 예, 6페이지.

○**소위원장직무대리 임오경** 아직 이것은 제안설명이 없었기 때문에……

○**김승수 위원** 아직 안 갔나요?

○**조계원 위원** 전 김승수 위원님 안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직무대리 임오경** 지금 유소년 맞춤형 생활체육활동 지원 이거 있잖아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정부 설명이 좀 없는 거 같아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예, 좀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직무대리 임오경 1학생 1스포츠 사업으로 작년 예결위에서 미반영된 사업이
 많아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예, 맞습니다.

○소위원장직무대리 임오경 그래서 추경에서 필요한 것이고 대부분이 강사 수당이고
 용품 구입 예산이고 일자리 창출하고 연결되는 거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예, 맞습니다.

○소위원장직무대리 임오경 그러니까 그 부분을, 유소년 스포츠 기반 구축으로 1학생 1
 스포츠 사업을 작년에 예결위에 올렸지만 예결위에서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던 사업이
 예. 그래서 스포츠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이것은 필요하다라는 부분이잖아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예, 맞습니다.

○소위원장직무대리 임오경 그 부분을 설명을 못 해 주셨고.

장애인 관련해서도 2024년에 지원 대상을 69세까지 상향을 시켰어요, 집행률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예.

○소위원장직무대리 임오경 그런데 예산을 동결을 시켰기 때문에 좀 부족한 거잖아요,
 예산이. 그래서 추경으로 올린 거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예,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쉽게 얘기해서 인기가 되게 높은 프로그램이라 대기하고 있는 사
 람이 3만 명이 넘습니다. 수요가 상당히 많다는 얘기지요.

○소위원장직무대리 임오경 그러니까 수요가 많은데 전년 대비 동결을 시켜 놔기 때문
 에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추경으로 올린 거잖아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직무대리 임오경 그렇게 설명을 해 주시면 쉬울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그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죄송합니다.

○조계원 위원 그렇게 설명했어요.

○소위원장직무대리 임오경 그러면 5번까지 벌써 해 버렸는데 어떻게 할까요, 5번?

○조계원 위원 끝났지요?

○소위원장직무대리 임오경 예.

김승수 위원님이 의견을 주셔서……

○조계원 위원 150만 원.

○김재원 위원 150만 원 증액.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조계원 위원 추가 23만 원 증액이네요.

○소위원장직무대리 임오경 정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전문위원의 심사자료 설
 명이 없었는데 김승수 위원님이 의견을 주셨어요.

○김재원 위원 150에 맞춰서 다시 산출해 주세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김승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400억 유·청소년 예산은
 전국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소위원장직무대리 임오경 아니, 5번이요.

○조계원 위원 지금 6페이지 5번 하고 있어요.

○소위원장직무대리 임오경 6페이지 5번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조계원 위원 150만 원으로 증액하자고, 127만 원이 아니고.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이 부분은 아시다시피 2013년 최초로 지원한 이후에 12년째 월 100만 원으로 묶여 있고, 그래서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이 부분은 불가상승을 정도는 반영이 되는 게 논리적이지 않느냐라는 생각으로 제안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은 수용합니다. 동의하고 있습니다.

○김재원 위원 거기에 김승수 위원님께서 23만 원 더 해서 150……

○조계원 위원 거기서 23만 원을 더 추가로, 그동안 10년 넘게 받지 못한 부분 감안해서……

○소위원장직무대리 임오경 23만 원을 더 추가하자고 하셨으니 정부 측에서 그 계산을 해서 다시 한번 위원님들에게……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죄송합니다.

전적으로 수용합니다.

○소위원장직무대리 임오경 그거를 수용하시면 그 계산을 하셔서 위원들에게 다시 한번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예.

○소위원장직무대리 임오경 그러면 전문위원님, 5번까지는 끝난 걸로 되었으니 6번부터 김용규 전문위원께서 심사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용규 7쪽 6번입니다.

우수선수 양성 지원 관련해서 위에 있는 것은 동계종목 훈련시설 조성에 100억 원 증액이고, 밑의 것은 인천선수촌 한의진료 상설 지원, 현재 주 1회 운영 중인데요. 이것을 상설화하는 운영비로 2억 4800만 원 증액입니다.

8쪽입니다.

스포츠산업 활성화 지원, 스포츠 분야 암표신고센터 운영을 위해서 50억 원 증액과 프로스포츠 관람권 지원은 신규로 프로스포츠 4개 종목 지원을 위해서 200억 원 증액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직무대리 임오경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6번 우수선수 양성 지원 관련해서 동계종목 훈련시설 조성사업 100억 원 증액을 수용합니다. 국내에서 사계절 훈련할 수 있는 훈련시설 조성으로 스키, 스노보드, 프리스타일 종목의 국제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수용합니다.

다음, 7번 스포츠산업 활성화 지원……

○조계원 위원 아닌데, 인천선수촌.

○소위원장직무대리 임오경 인천선수촌 한의진료 상설 지원.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국가대표 선수들의 한의진료 지원을 위한 인천선수촌 한의진료 상설 지원 예산 2억 4800만 원 증액을 수용합니다.

다음, 7번 스포츠산업 활성화 지원은 암표법 통과 후 사전 준비를 위한 스포츠 분야

암표신고센터 운영사업에 50억 원 증액을 수용합니다.

다음, 프로스포츠 산업 성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프로스포츠 관람권 지원사업에 200억 증액을 수용합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직무대리 임오경 다음은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이기현 위원 제가 요청했던 것이기도 한데요, 에어매트 설치.

동계 종목, 프리스타일 종목, 연기 종목에 쓰는 건데 이 100억으로 경기장 몇 개 만들 수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진천선수촌 내에 한 군데 설치하는 작업으로 100억 원이 산정돼서……

○이기현 위원 동계선수들 훈련장 태백에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진천에다 만들어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이거는 여름에도 할 수 있는……

○이기현 위원 여름에 하는 건데……

그러면 100억 가지고 진천에 딱 하나 만들겠다 이 얘기시네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일단은 그렇습니다.

○이기현 위원 100억 갖고 한 개밖에 못 만들어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하프파이프 그리고 빅에어, 트램펄린……

○이기현 위원 이게 약간 핀트가 어긋났는데 제가 그때 현안질의 때 말씀드렸는데, 대한민국 프리스타일 종목의 국가대표가 몇 명 됩니까? 10명도 안 돼요. 10명을 위해서 이렇게 만들라는 게 아니라 대중화가 필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렸고.

꿈나무들이 훈련해야 되는데, 제가 진천선수촌에 만들려고 한 게 아니라 강원도 인근에—경기 북부라든지 수도권에 집중돼 있는데—유희시설들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시설을 활용해서 더 많은 아이들, 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들이 국가대표 아니더라도 훈련할 수 있는 곳을 만들라고 제가 요청을 해서…… 그때 제가 다 보여 드렸잖아요, 동영상으로든 일본에 설치돼 있는 것 다 보여 드리고.

제가 분명히 경기도의 유희시설을 썼으면 좋겠다. 그래야 어린 꿈나무들이 부상 없이 활용할 수 있다, 해외 전지훈련 안 나가고도. 그렇게 얘기 드렸던 건데 이것 태백이 아니고 진천선수촌에 넣는다 하더라도, 이거는 국가대표 선수들, 입주하는 선수들만 사용하는 것 아닙니까? 그거를 몇 명이나 쓰겠어요. 대부분 또 훈련 나가거든요, 국가대표 정도 되면 지원이 있기 때문에.

저는 위치 잘못됐다고 생각하고요, 100억 설계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더 증액해서 정말로 대중들이, 일반적으로 아이들이 쓸 수 있는, 접근하기 좋은 수도권에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지역균형발전하고 다른 개념입니다.

제가 드린 말씀을 잘못 이해한 것 같아서 제가 이 문제는 지적합니다. 저 100억 가지고 경기도에도 만들고 진천에도 만들고 한다면 이해하려고 그랬는데 진천에 하나만 만드는 것은…… 국가대표 선수들 사실 몇 명 안 돼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저도 기억하고 있거든요. 일단 이 부분은 국가대표 선수 위주로 하되 일반 선수들한테 개방하는 방법이 또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그런 방법이나 아니면 정말 더 좋은 장소가 있을 수 있는지 그 부분은 좀 더 추후에……

○이기현 위원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 이선영 추가로 하나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말씀 주신 내용에 대해서 대한체육회랑 검토했을 때 일단 29년 아시안게임 또 30년 올림픽 준비를 위해서 사실 이 시설이 되게 시급해서 내년부터 쓸 수 있게 하려고 하다 보니 첫 번째는 진천선수촌 외의 땅을 이용하려면 인허가, 부지매입비, 운영관리 이런 것들 때문에 시간이 소요돼서 올해 추경으로는 하기 어려운 점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로는 대한체육회 입장에서 진천선수촌 내에 하더라도 국가대표 선수들이 이용하는 시간 외에는 다른 일반 선수들도 할 수 있도록 개방하는 것으로 준비 중입니다.

○조계원 위원 다 얘기를 해 주셨기 때문에 더 덧붙일 말은 없는 것 같은데……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감사합니다.

○조계원 위원 일본에는 이 시설이 얼마나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일본에 네 군데인가 다섯 군데 있다고 제가……

○이기현 위원 아니, 그때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20군데가 넘어요.

○조계원 위원 아까 존경하는 이기현 위원님이 얘기했다시피 동계스포츠의 강화를 위해서는 이것 하나뿐만 아니라 추가로 만들어 내서 어린 꿈나무들이 좀 더 동계스포츠에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게끔 육성할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추가로 하는 부분은 본예산에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이기현 위원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다양한 지역에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진천선수촌은 조금 멀어요. 그래서 정말 초등학교 아이들, 중학교 아이들이 가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 계산으로 따져 보면 100억이면 두세 개 만들 수 있습니다. 지역만 있으면, 경사지역만 저희가 확보하면 충분히 만들 수 있어요. 그거 그렇게 고가 아닙니다. 안전장치, 펜스만 만들어 놓고 에어매트 깔면 되는데 100억에 진천 하나 만든다? 저는 사실 잘 이해는 안 됩니다. 그래서 100억에 두세 개를 나눠지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아이디어로 드리고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진천선수촌 한의진료 상설화, 전적으로 동의하는데 이걸로 한 명의 전담의사 배치할 수 있는 겁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의사 1명과 보조인력 2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현 위원 그렇게 돼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예.

○이기현 위원 상설화 할 수 있어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상설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8개월로 책정을 해서……

○이기현 위원 알겠습니다.

○소위원장직무대리 임오경 이기현 위원님이 좋은 의견 주셨는데 당장 100억이라는 돈이, 에어매트 설치한다고 100억이 올라와 있는데 이거는 본예산에 들어가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추경으로 올라간들 예결특위에서 분명히 이거는 삭감될 가능성이 높습니

다.

그렇다라면 여기서 포기하지 마시고 내년 2027년도 예산 반영할 때 투 트랙으로 두 지역 정도를 예상하셔서 진짜 꿈나무들의 수요가 늘어날 수 있도록, 그리고 일반인들이 훈련할 수 있는 공간 없이 진천선수촌에만…… 저희가 다른 유소년들도 참여할 수 있게 하겠다라고 하겠지만 한 곳만 있으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계종목 특성상 강원도 중심으로 해서 이런 시설을 하나 더 추가적으로 설치하는 그런 부분을 생각해 주시고.

저 또한 100억이라는 돈으로 한 개밖에 설치가 안 되나? 진천선수촌 안에는 부지도 다 있는 사안인데 어떻게 100억이나 들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도, 갑작스럽게 추경으로 100억이라는 것을 산정한 것 같은데 이 부분, 한 2개 정도 할 수 있으면 저는 좋겠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진천선수촌 한 곳이라고 표현하지 마시고 이거는 두 군데 정도로 설치가 돼야 된다고 저도 같은 의견을 드립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없으십니까?

○**김승수 위원** 암표신고센터 이것도 국민체육진흥법, 1차관 소관은 공연법 때문에 둘다 8월 달에 시행이 돼서 필요한 예산인데, 암표신고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1차관 소관의 공연하고 스포츠 티켓하고 한번 논의나 이런 것을 해 봤습니까? 법안 심사할 때도 통합해서 운영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의견이 있었는데 어떻게 운영할 계획입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문체부 내에서도 내부에서 통합해서 운영하는 방안 이런 문제 가지고 논의도 하고 했는데 이게 성격이 다르고 소속도 다르고 하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별도로, 또 시급한 사안이기 때문에 언제까지 시간을 끌 수도 없고 해서 일단 별도로 운영을 해 보자 이렇게 결론을 냈습니다.

○**김승수 위원** 말이 안 되는 거지요. 부처가 다른 것도 아니고 동일 부처에……

앞서 공연 관련해 가지고 60억 증액을 해서 아까 일단은 그렇게 우리가 통과를 시켰지요. 같이 합의를 했었는데, 여기 또 50억이란 말이지요. 온라인신고센터 운영 또 신고자 포상금, 모니터링단 운영……

충분히 계절적으로, 공연은 거의 사계절 연속 있지만 스포츠 같은 경우에는 티켓이 계절적으로 다르지 않습니까? 통합해서 운영했을 경우 훨씬 운영비도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고 오히려 단속하는 데 있어 가지고 효율성이 더 커질 수가 있을 텐데 이렇게 60억, 50억 해서 반영이 되겠는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러다 보면 제대로 운영조차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효율성 측면에서는 위원님 지적대로……

○**김승수 위원** 장관 주재로 1·2차관 제대로 논의라도 해 봤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했습니다. 저희 내부에서 했는데, 효율성은 떨어질지라도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오히려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김승수 위원** 성격이 다른 것을 누가 모릅니까? 다른 부분보다 성격을 통일해서 통합 관리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스포츠 관람권 지원, 좋습니다. 공연만 지원할 것이 아니고 스포츠 관람권도 지원하는 것이 좋은데 야구, 축구, 농구, 배구는 상대적으로 스포츠 분야 중에서는 인기 종목이에

요. 특히 야구 같은 경우에는 최근 들어서 폭발적으로 관객들이 늘어나서 암표까지도 동원해야 티켓을 살 수 있는 이런 분야에 관람료를 지원해 주는 것이 맞느냐.

그리고 누구한테 어떤 혜택을 주기 위해서 관람료를 지원하는 거예요? 관람하러 가는 사람들 적은 돈으로 관람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결국은 그 스포츠 종목에 관객이 많이 들어와서 스포츠 종목도 활성화되고 그 수익금이, 협단체로 돈이 들어가 가지고 상대적으로 비인기 종목들이 살아날 수 있는, 숨을 쉴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도모해야 될 텐데 설계된 것을 보면 가장 인기 있는 종목에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는 이렇게 지원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일단 저희들도 위원님 지적을 미리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기 있는 야구보다는 더 육성해야 되는 축구나 배구 그리고 농구 이런 분야에 더 우선적으로 관람권을 지원하는 부분을, 그렇게 계획을 마련하기로 했고요. 또 소비창출 효과라든가 관광의 효과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사업의 효과성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직무대리 임오경 위원님이 말씀한 것 중에 스포츠 암표신고센터 운영 관련 효율성에 있어서 지금 투 트랙으로 가고 있는데 한 번 고민 정도는 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문화, 예술, 스포츠가 다 이렇게 투 트랙으로 분리되어 있는데 일원화해서 같이 가는 게 좋은 것인지, 문체부 차원에서 정부 차원에서 지금 투 트랙으로 나누어져 있는 것을 한 번 정도는 고민해 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도 한번 고민해 보시고 다음에 위원님들에게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차관님 설명에 있어서 프로스포츠 관람권 지원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프로스포츠가 네 종목만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 제목과 지원 종목은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프로스포츠 관람권 지원인데.

지금 보니까 수요가 많은 종목으로 택하신 거잖아요. 그리고 비인기 종목 같은 경우는 유료도 있고 대부분 무료입니다. 그렇지요? 비인기 종목이지만 유료화를 시킨 데도 있습니다, 프로는 아니지만. 그런 부분도 좀 파악을 하셔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있어서 프로스포츠인데 인기 종목으로만 진짜 치우치는지 아니면 유료화를 하고 있는 종목들이 몇 종목이 있는지 좀 조사를 하셔서 그런 것도 같이 설명해 주면 저희가 이해하기 좀 더 편하지 않겠나……

핸드볼은 비인기 종목이고 프로 종목은 아니지만 유료화를 하고 있습니다. 저렴한 가격으로 입장을 하게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료화를 하고 있는 종목을 전체 넣을 것인지 아니면 진짜 프로 종목으로 해서 수요가 몇천 명 이상일 때 관람권 지원을 해 주는, 이런 것을 딱 정확하게 지표를 만들어 놓으면 이해하기도 더 편할 수 있을 것 같다는 말씀을 해 드립니다.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예.

○소위원장직무대리 임오경 다른 의견 없으시면……

○김승수 위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스포츠 관람권 지원은 완전히 바뀌어야 돼요. 오히려 야구 같은 인기 종목에 대해서는 지원 자체를 안 해도 저는 무관하다 생각하고요. 임오경 위원님이 말씀 잘하셨는데 왜 꼭 프로스포츠 종목만 합니까? 오히려 올림픽이나 아시안게임에서 메달을 따 가지고 국민들한테 상당히 즐거움을 주는 그런 종목들,

사실상 경기는 비인기 종목이 되다 보니까 거의 관람객이 없는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료 스포츠 티켓에 대해서는 다 일단 대상으로 잡아 놓아야 되고, 예산이 책정되면 오히려 비인기 종목 위주로 우선적으로 할당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설계를 꼭 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직무대리 임오경 추가적으로 넣을 수 있다면 유료 종목도 좀 반영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예.

○조계원 위원 핸드볼 같은 경우는 반영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위원님 말씀을 제가 이해는 했고요. 다만 예산집행에 있어서 가능한지, 가능하면 저도 반영을 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래서 향후에 저희들끼리 판단을 해서……

핸드볼은 프로가 아니지만 유료 스포츠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가능하다 하면 저희들도 포함시키는 방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직무대리 임오경 예, 알겠습니다.

같은 스포츠 쪽, 체육 쪽이기 때문에 아까 조계원 위원님이 주신 것, 장애인 생활체육 지원 관련과 전국(소년)체전 지원-전국(동계)체전 지원 관련해서 전문위원께서 심사 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용규 먼저 전국체전 지원 관련해서는 재외동포 선수단의 참가 확대를 위해서 4억 5900만 원 증액 필요하다는 의견이고요.

다음번, 장애인 생활체육 지원 관련해서는 장애인 국내대회 지원 중에서 전국어울림마라톤대회가 안전하고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5000만 원 증액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직무대리 임오경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2건 다 수용합니다.

○소위원장직무대리 임오경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조계원 위원 제가 제기를 했으니까 먼저……

전국체전 관련해서 재외동포단들의 참가 지원 예산이 지금 계속해서 삭감되고 있습니다. 참가 인원이 매년 평균 1400~1500명이 참가합니다. 그러면 이 인원들이 그냥 왔다 그냥 가겠습니까? 해당 체전 지역에서 어마어마한, 거의 100억 가까운 소비를 합니다. 오히려 활성화하고 더 지원해도 부족할 마당에 계속해서 예산이 반토막이 나고 있습니다. 2024년에는 17억 2300만 원이었는데 2025년에는 12억 1500만 원 그다음에 올해 26년에는 7억 5600만 원으로 감액되어 버렸습니다.

더구나 올해 같은 경우는 체전이 어디에서 열리냐? 제주도에서 열립니다. 해외에서 인천공항으로 왔다가 다시 김포공항으로 가서 제주도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오히려 예산은 반토막이 나 버린 상황이고요.

지난 2025년 10월 부산에서 열린 제106회 전국체육대회 개최식에서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글로벌 한인 네트워크와 체육을 통한 통합을 강조하면서 재외동포 체육계에 대한

파격적인 지원을 약속한 바 있는데 차관님 알고 계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예, 알고 있습니다.

○조계원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예산을 반토막씩, 계속해서 줄이고 있는 겁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그전에 이미 예산이 감축됐었고요. 그래서 위원님 지적이 일리가 있다고 생각해서 저희들은 2025년 수준으로 복원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계원 위원 재외동포들이 전국체전에 참여하기 위해서 비싼 비행기표를 직접 끊어서 옵니다. 그런데 우리 국내에 들어와서조차 모든 비용을 전가시키는 것은 옳지 않다. 정부가 최소한의 마중물만 제공해도 그 이상의 소비가 국내에서 일어나고 또 재외동포들의 긍지와 자신감, 자존감도 높아질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이 예산만큼은 반드시 작년 수준으로라도 원복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장애인 생활체육 지원 관련해서, 어쨌든 국가는 국민의 평등한 건강권과 사회 참여를 보장해야 될 헌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안건으로 제안한 어울림 대회는 비장애인과 장애인이 함께 참여하면서 장애에 대한 편견을 없애고 사회통합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인권의 상당히 모범 사례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올해 사업 예산이 반토막이 돼 버렸습니다. 원래 1억의 예산을 상정했었는데 5000만 원으로 삭감이 됐습니다. 이 5000만 원 때문에 대회 자체가 좌초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마라톤 참여 수요는 지금 갈수록 확대되고 있고 해당 대회도 2023년 이후로 참가 인원이 계속해서 증가 추세입니다. 작년에는 약 5000명의 시민이 참가했습니다. 행사가 안전하고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소한 작년 수준만큼이라도 원복될 수 있도록 심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이고요. 작년에 서울대에 있었던 어울림대회, 장애인 학생과 비장애인 학생들이 같이 하는 데에 가서 제가 가슴 뭉클하게 본 경험도 있고요. 이런 것은 오히려 더 활성화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반영되기를 바랍니다.

○소위원장직무대리 임오경 아까 앞부분에 있었던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사업에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이 있잖아요, 증액 사업으로.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예, 95억 증액.

○소위원장직무대리 임오경 장애인 생활체육 참여 확대, 건강 증진을 위해서 이것하고 연계해서 생활체육대회 같은 것도 좀 지원해 줄 수는 없나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아까 그 사업은 강좌프로그램 지원사업이라서 성격이……

○소위원장직무대리 임오경 알고 있어요. 체육 참여 확대와 건강 증진을 위해서 하는 사업인 것 알고는 있어요.

그런데 이 사업에 이런 대회에 출전할 수 있는 지원도 같이 연계해서 다 같이 할 수는 없는 건가요? 지금 질문하는 겁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그것은 성격이 달라서……

○조계원 위원 이것은 이것대로 증액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

○김재원 위원 사업이 달라서 안 됩니다.

○소위원장직무대리 임오경 사업이 다른 것은 아는데 우리가 지금 장애인 생활체육 참여 확대를 위해서, 건강 증진을 위해서 95억 원 예산 증액을 아까 앞에서도 하는데 또 이러한 대회도 참여할 수 있게 같이 연계를 한다면 더 좋지 않나, 어느 개인보다는…… 저희가 참여율은 높이는데 생활체육대회에만 참석하는 사람들은 또 따로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장애인들의 생활체육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 이러한 사업들을 하는데 이 생활체육 참여율을 높이는 것에만 멈추지 말고 대회를 연계해서 대회까지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라는 거예요, 제 말씀은. 사업 자체가 지금 다르게는 들어와 있는데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꼭 사업마다 이렇게, 사업 다르게 이렇게 주지 말고 생활체육 참여를 극대화시키면서 대회에도 참여할 수 있게 연계를 해 버리면 더 낫지 않나 그 말씀을 드리고요.

첫 번째 재외동포 관련해서는 매년 저희가 증액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2026년도 건축사업으로 인해서 예산을 삭감하는데 이쪽 작은 예산을 삭감시킨 것 같아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고려를 좀 해 주실 필요가 있다고 저도 말씀드립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김용규 전문위원께서는 심사 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용규 9쪽입니다.

관광진흥개발기금운용계획안이고요.

한국형 지역관광 활성화 사업으로 백제문화 명품야간상설공연을 신규로 지원하기 위해서 30억 원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10쪽입니다.

국내관광 역량 강화인데요. 크게 3건입니다.

먼저 숙박할인권 지원으로 연례적인 기금운용계획 변경 등을 통해 사업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112억 4000만 원 감액과 지역관광 활성화 및 경기회복을 위해 원안 유지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11쪽입니다.

근로자 휴가 지원 관련하여서 2025년도 실집행률이 저조한 점, 당초 기금운용계획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했던 중견기업 근로자를 다시 지원 대상으로 포함한 점 등을 고려해서 10억 원 감액하자는 의견과 해외 소비를 국내관광 소비로 전환하기 위해서 원안을 유지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12쪽입니다.

지역사랑 휴가 지원인데요. 이게 지금 2026년에 20개소인데 40개소로 확대하기 위해서 65억 원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직무대리 임오경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1번 한국형 지역관광 활성화 관련해서 체류형 관광 활성화를 위한 30억 원 증액을 수용합니다.

다음, 2번 국내관광 역량 강화 관련해서, 숙박할인권 추가 지원을 통해 경기회복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숙박할인권 사업은 저희들 조사에 따르면 평균 3만 9000원을 통해서 평균 15만 5000원의 숙박 지출을 이끌어 내고 평균 53만 원의 여행경비 지출이 이루어진다는 조사 결과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시기에 소비진작에 크게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에 정부안을 유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 근로자 휴가 지원사업 관련해서도 정부안이 유지되기를 바랍니다. 2026년 본예산 10만 명 모집을 했는데요, 9만 8000여 명이 신청을 완료한 상황입니다. 지금 국제정세상 해외 수요를 국내로 돌리기 적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휴가 지원사업 꼭 정부안대로 유지되기를 바랍니다.

지역사랑 휴가 지원사업 65억 원 증액, 스무 곳을 마흔 곳으로 확대하는 안도 저희들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보고요. 적극 수용합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직무대리 임오경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현 위원 숙박할인권 지원사업 관련해서 감액 의견 내셨는데요. 내수위기의 핵심이 저는 관광사업에 있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특히 코로나 이후에 관광객이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문제, 해외 관광객들은 많이 회복됐습니다만 우리 국내 여행객들을 중심으로 보면……

여러분들 혹시 들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캠핑장이 되지 않습니다. 또 지역의 펜션 이런 곳들이 되지 않습니다. 또 서울을 제외하면 부산과 제주의 호텔을 제외하고는 일반 중소도시에는 있는 숙박업소들은 거의 한계상황에 봉착해 있습니다.

저는 이럴 때일수록 정부가 내수시장 진작, 특히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경제위기 때 가장 취약한 곳은 지역, 청년입니다. 지역의 위기를 극복하는 데 있어서 관광사업의 활성화는 정말로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기 나와 있는 예산 삭감안 주신 내역, 이해는 합니다만 저희가 더 위기의 국면으로 들어가는 지금 숙박할인권 지원사업은 감액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재원 위원 저도 말씀드려도 될까요?

○소위원장직무대리 임오경 예.

○김재원 위원 저는 원안 유지를 제 안으로 냈는데 지난 산불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중점적으로 숙박 할인 같은 것들을 지원했던 곳이 산불 피해를 많이 본 곳이었고 실제로 영덕 같은 곳은, 제가 따개비마을부터 다 돌아서 가 봤는데 거기 이장님 같은 경우에도 관광객이 와 주셔야 우리가 버틸 수가 있다 이런 말씀 하셨고, 다행히 숙박할인권 지원이 잘돼서 그 뒤에 도움을 많이 받았다는 말씀도 전해 받았습니다. 지금 같은 시기에 지역에서의 관광과 관련된 먹거리나 이런 것들이 마련되기 위해서는 숙박할인권이 지급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호르무즈 사태라는 게 예상치 못한 것이 아니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더욱 지역경제가 어려워질 상황을 감안하여 숙박할인권은 원안대로 112억 4000만 원 유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승수 위원 9페이지 1번 백제문화 명품야간상설공연 사업이 왜 추경 사업으로 들어와야 되는 거지요? 야간상설공연, 9페이지에 있는 것.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지역 관광에서 가장 큰 문제점이 당일 관광이 너무 많고 체류를 시키는……

○김승수 위원 이게 야간 공연 프로그램을 대규모로 제작한다는 거 아니에요, 30억을 들여 가지고? 왜 이게 갑자기 추정 사업으로 들어와야 되느냐는 거지요.

본예산에 이런 사업이 들어오더라도 여러 가지 유사 사업들하고의 형평성을 고려해 가지고 그중에 우선순위나 이런 것들을 봐서 선정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추정 사업에, 또 단독 사업으로 들어온 이유가 뭐냐는 거지요.

○소위원장직무대리 임오경 특별한 이유 없이 그냥 위원님들이 서면으로 냈기 때문에 반영시킨 거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그렇지 않습니다. 체류 관광을 위해서, 특히 부여라든가 김해, 경주 이런 곳에서는 역사적인 스토리를 배경으로 해서 저희들도 유명한 공연을……

○김승수 위원 사업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이 아니고 이 시점에서 이 사업만 뚝 떨어지게 가지고 추정에 들어온 것이 아무리 설명을 해도 설명이 안 될 거라는 거지요, 저도 이해가 안 되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위원들이 요청해서 했다 하더라도 적절하게 스크린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해서 지적을 했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반대 의견이고.

숙박할인권 지원과 관련해 가지고도 여러 차례 보면 결산이나 국감에서 지적이 됐던 사업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 계획에다가 추가로 또 증액을 하지 않습니까?

이 숙박할인권 사업은 누구한테 도움을 주기 위한 사업입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잘 못 들었습니다.

○김승수 위원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숙박할인권 증액하는 것 아니에요, 보면?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예.

○김승수 위원 그래서 대상자도 주로 인구감소지역에 하는 것으로 돼 있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나 이쪽을 보면 ‘인구감소지역이라 하더라도 단계를 차등화시켜서 하자’ 이런 의견까지 있던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구감소지역 숙박업소의 수요를 감안했을 때는 너무 과다하게 증액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감액하자는 그런 의견이거든요.

그다음에 근로자 휴가 지원도 계속 문제가 됐던 사업이고, 이게 집행률이 낮으니까 이번에 다시 또 중견기업을 잡아넣었어요.

근로자 휴가 지원사업이야말로 누구를 위한 사업입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위원님, 근로자 휴가 지원사업이 근로자를 위한 복지사업이 아니고, 경제효과로 나오지 않습니까? 정부 돈 10만 원을 들여서 94만 원의 소비를 창출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김승수 위원 근로자 휴가 지원사업은 집행률이 낮으니까 이번에 중견기업까지 잡아넣었지요. 그런데 말 그대로 취약한 업체의, 기업의 근로자들이 휴가도 못 가니까 휴가비를 지원해 주자는 데 일차 목적이 있는데, 중소기업은 진짜 휴가 내기도 힘들고 휴가를 낸다 하더라도 여행 가기가 힘들니까 이게 집행률이 낮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또 중견기업까지 넣자는 건데, 이거는 기본적으로 근로자 휴가 지원사업의 취지에

맞지 않고.

이런 식으로 지원할 것 같으면, 앞의 숙박 지원도 마찬가지로인데 숙박업소 입장에서 봤을 때 이게 다 플랫폼을 통해 가지고 예약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또 일정 부분은 플랫폼에 들어가고…… 실제 숙박업소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지금 유가 상승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은 전기료나 이런 기본적인 비용들이 올라가겠지요. 그런 데 오히려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숙박업소를 돕고자 하는 것에 더 맞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에요. 그것을 통해 가지고 숙박료 인상 요인을 억제시키는 것.

지금 숙박업소 입장에서 봤을 때는 기존의 숙박요금 가지고는 수지타산이 안 맞기 때문에 숙박요금을 더 올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일 거란 말이지요. 그런데 또 손님은 더 없어지고.

그런 측면에서 이런 부분에도, 일정 부분은 너무 과도하게 추경의 취지에 맞지 않는 그런 사업에 증액이 됐기 때문에 좀 삭감하자는 그런 의견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근로자 휴가 지원사업하고 숙박할인권 지원사업은 일정 부분 감액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소위원장직무대리 임오경 조계원 위원님.

○조계원 위원 일단은 숙박페스타 사업하고 근로자 휴가 지원사업은 제가 지난 문체위에서도—유인촌 장관님 계실 때—모범사업이다, 잘한 사업이다. 지역경제도 활성화하고 또 나름대로, 아까 차관님이 좀 잘못 설명을 했는데 근로자 복지도 되지요. 그런데 근로자 복지뿐만 아니라, 노동자 복지뿐만 아니라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하는 측면이 크다. 이렇게 일석이조의 장점을 가진 사업이다. 더구나 지금과 같이 중동전쟁과 같은 위기 상황에서 내수를 즉각적으로 살리는 데 도움이 되는 아주 적절한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되고요.

2024년 숙박세일 페스타에서 보면 95만 장의 쿠폰이 사용돼 가지고 약 1269억 원의 매출을 유발했지요? 쿠폰 1장당 약 12.8배의 소비유발효과까지 거둔 것으로 나타났는데 맞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예.

○조계원 위원 그러면 이번에도 10배 이상의 소비유발효과가 있겠네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발효과는 상당히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계원 위원 그런데 근로자 휴가 지원사업 같은 경우 아까 집행률이 낮은 것을 문제 삼았는데 이와 관련해서 사업 집행률을 더 끌어올릴 수 있는 대안이나 대책 같은 것은 세우고 계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위원님, 그 부분 좀 더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올해 사업은 10만 명 모집에 거의 98% 이미 신청을 완료한 상황이고, 작년에 문제가 됐던 것은 하반기에 추경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시간적인 촉박함 때문에 좀 한계가 있었다는 게 있었고.

그리고 작년에 5년 이상 참여한 중소기업의 지원금을 10만 원에서 5만 원으로 내린 부분, 그리고 또 하나는 작년에 중견기업을 배제했습니다. 그래서 기업 모집에 조금 어려움이 있고 했는데요. 그 전에 중견기업까지 다 포함했을 때는 집행률이 90%를 넘어갈 정

도로 높았습니다.

○조계원 위원 중견기업의 노동자라고 해서 차등을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거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저는 오히려 소비 창출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중견기업, 대기업까지도 가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조계원 위원 더 큰 강점은 앞서도 얘기했지만 승수유발효과,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유발효과가 크기 때문에 이것을 장려하고 촉진한 거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예, 그렇습니다.

○조계원 위원 그런 맥락에서 존경하는 김승수 위원님께서 적극적으로 원안을 유지하는 것을 수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직무대리 임오경 저도 한말씀드리겠습니다.

백제문화 명품야간상설공연 이게 신규사업인데 제가 요청한 걸로 되어 있는데 참석을 못 하신 위원님이 서면으로 저에게 요청을 하셔서 제가 부득이하게 요청을 한 건데, 이것은 내년 사업으로 반영해도 괜찮은 사업이지요? 그리고 백제뿐만 아니라 신라문화 쪽도 공모사업으로 해서 신규로……

명품야간상설공연으로 해서 이 사업이 앞으로 미래지향적으로 좋다고 하면 공모사업으로 해서 내년에 신규사업으로 반영을 해 주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도 문제가 안 되겠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알겠습니다, 위원님.

○소위원장직무대리 임오경 백제문화만 딱 저희가 신규로 해서 여기에 공모 없이 한다면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알겠습니다, 위원님.

○소위원장직무대리 임오경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고.

국내관광 캠페인 관련해서는 관광 수요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첫 번째 사업이에요. 그렇지요? 인구감소지역 그다음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건데, 제가 궁금한 것은 2025년도 숙박할인권 이용자 실태조사 결과를 보게 되면 약 4만 원 할인권 혜택을 통해서 평균 15.5만 원을 숙박 비용으로 지출하는 효과가 나왔어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맞습니다.

○소위원장직무대리 임오경 문체부에서 제시해 놓은 거예요.

내수 촉진을 위해 불가피하게 증액이 필요하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어느 지역에 소비 지출이 있는지 이것도 저희가 알 수 있는 건가요?

○문화체육관광부관광정책관 강동진 관광정책관입니다.

저희가 지역별로 설문조사를 통해서 전체적인 추론, 추산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정 지역별로 하는 부분들은 조금 더 연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직무대리 임오경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렸느냐면 지금 인구감소지역하고 비수도권 숙박할인권 관련된 거잖아요. 그렇게 된다면 진짜 대한민국 내수관광에 있어서 어디로 인바운드 관광이 흘러가고 있는지 그 정도는 저는 파악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반드시 이 지표는 문체부에서 준비를 해 주셔야 된다고 보고.

또 하나 궁금한 것은 지금 사찰 템플스테이 인기가 하늘을 치솟고 있는 것 알고 계시

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예.

○소위원장직무대리 임오경 해외에서 들어오는 인바운드 관광객들이 거의 템플스테이 그리고 K-푸드를, 사찰음식을 즐기고 있어요.

그러면 이 숙박할인권에 템플스테이도 포함이 되나요,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인데?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그거는 포함이 안 됩니다.

○소위원장직무대리 임오경 안 돼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예.

○소위원장직무대리 임오경 그러면 템플스테이로 쏠리는 숙박을……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템플스테이 지원하는 것은 여행 가는 달, 봄이나 가을 그런 때는 50% 지원해 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포함이 안 됩니다.

○소위원장직무대리 임오경 별개의 사업이 있어요?

요즘 국민들께서도 워낙 사찰 템플스테이를 많이 이용하고 계시다 보니까 제가 질문을 한번 해 본 겁니다.

저는 이 사업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찬성하는 의견이고요.

근로자 휴가 지원 관련해서는 저는 부대의견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실 집행률이 저조한 것은 분명한데요. 그것은 인정하시지요? 저조했던 것은 인정하시지요? 사업 참여 근로자수를 보면 24년도에 14만 명에서 2025년도에는 11만 명으로 감소를 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위원님, 실집행률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에는 95%, 2024년도에 89%, 2025년도에 70%로 2025년도에는 좀 낮았습니다.

○소위원장직무대리 임오경 그러니까 제가 지금 실집행률이 점점점 저조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실적은 줄고 있는데 단순히 지원 대상만 넓히는 방식이 실제 소비 진작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 의문이 들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래서 집행률 제고를 위해 문체부가 대책 마련을 하도록 해야 된다고 보면서 부대의견을 제시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집행률을 최대한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미 신청받은 걸 봤을 때는 벌써 거의 98% 본예산이 신청이 돼 있기 때문에 집행률에 큰 문제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대의견……

○김승수 위원 이 부분 앞서 감액 의견이, 숙박할인권 지원은 증액분 112억 전액 감액이 있고 근로자 휴가 지원은 10억 감액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보류해서 다시 논의를 하든지 하고, 만약에 아니면 두 가지 감액 의견 중에 정부 측이 어떤 것을 수용하실 건지 하는 부분하고 특히 근로자 휴가 지원 문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중견 기업까지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반대를 합니다.

○소위원장직무대리 임오경 위원님, 감액 의견을 이소희 위원님이 주시기는 주셨는데, 어느 위원님이든 증액 의견이나 감액 의견을 주실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논의를 통해서 원안 유지를 원하는 의견도 있기 때문에 또 위원님들의 말씀에 있어서도 원안 유지를 요청하고 있으니까, 대신 백제문화 명품야간상설공연 관련해서는 내년도 본

예산에 다시 한번 넣을 수 있도록 하고요.

○**김승수 위원** 그래서 뒤의 근로자 휴가 지원은 집행률을 고려해서, 조은희 위원님 10억 감액 의견은 크게 무리한 감액 요구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정도로 감액하고 그렇게 해서……

○**소위원장직무대리 임오경** 지금 근로자 휴가 지원은 말씀을 들어 보니까 집행률 제고에 있어서 신청한 사람들이 많이 늘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90% 이상……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위원님, 백제명품야간공연 그거는 내년 신규로 하는 걸로 아까 정리를 해 주셨고……

○**김승수 위원** 그 부분은 당연한 거예요, 사실은. 올해는 그게 사업이 되는 것도 아니에요, 보면. 그리고 총사업비 그게 얼마인지 아세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휴가지원 사업은……

○**김승수 위원** 아니, 백제 고마설화 이거는 이 정도로 지원할 수가 없는……

○**소위원장직무대리 임오경** 그러니까 이거를 보게 되면, 이소희 위원님은 감액을 요청하셨고 김재원 위원님은 원안 유지를 요청하셨고 또 근로자 휴가지원에 있어서 조은희 위원님은 감액을 요청하셨고 김교홍 위원님은 원안 유지를 요청하셨습니다. 이거는 동등하게 감액과 원안 유지가 있었고.

하지만 여기서 지금 논의를 할 때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었을 때 원안 유지를 요청하는 위원님들이 많기 때문에 김승수 위원님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진종오 위원** 그렇게 가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소위원장직무대리 임오경** 요청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김승수 위원** 그러면 이견이 있으니까 보류해 가지고 논의하도록 그렇게 하시지요.

○**이기현 위원** 김승수 위원님 아까 말씀 주신 거 보면 숙박할인권 지원 사업 112억 4000만 원 감액 의견은 이해를 해 주실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근로자 휴가지원 관련해서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62억 증액하자는 것이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예, 그렇습니다.

○**이기현 위원** 그중에 10억 감액 의견을 내셨는데 이게 집행률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한 5억 정도 감액하는 것 받아들이고 이렇게 앞에 거 정리하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소위원장직무대리 임오경** 정부 측……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직무대리 임오경** 근로자 휴가지원 관련해서는 10억 감액이 아닌 5억 감액으로 해서 수용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 김용규 전문위원께서는 심사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용규** 지역사랑 휴가지원은, 12페이지……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지역사랑 휴가지원 사업 말씀입니까?

○**전문위원 김용규** 예.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그것 수용……

○**조계원 위원** 그대로 가면 되는 거지요.

○**전문위원 김용규** 그러면 13쪽입니다.

중화권시장 유치 확대 지원분인데요 추경안 편성의 요건에 부합하기 어려운 점, 유사

사업과의 중복 우려 등을 고려해서 306억 전액 삭감 의견이 있고 그다음에 중국인 관광객 유치 확대를 위해서 200억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14쪽입니다.

관광두레 조성 관련하여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 결과 감액 조치된 점, 농어촌 지역에 청년인구가 적어 청년관광두레 구성이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56억 7000만 원 감액 의견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5쪽입니다.

관광사업 발굴 및 지원 사업은 부문별, 등급별 구분 없이 지원 단가를 9200만 원으로 일률적으로 적용하여 지원 금액을 과다편성하였으므로 13억 6500만 원 감액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직무대리 임오경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먼저 외래관광객 유치 마케팅 활성화 지원과 관련하여 중화권시장 유치 확대 사업에 정부안이 유지되기를 희망합니다.

다음, 관광활성화 기반구축 관련해서 청년관광두레 육성 사업에 정부안이 유지되기를 희망합니다. 지역청년 유출과 지역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민생 일자리 사업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관광사업 창업 지원 및 벤처육성 관련 관광사업 발굴 및 지원 사업에 정부안 유지를 희망합니다.

○소위원장직무대리 임오경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죄송합니다.

중화권 유치 확대 사업 관련해서 증액 의견을 김재원 위원님께서 내 주셨습니다. 200억 원 증액을 수용합니다.

○이기현 위원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현안질의 때도 한번 말씀드렸던 내용이 다시 얘기가 되는데요. 저는 갑자기 관광시장에 하나의 기회 요인이 생겼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굉장히 우연하게 온 일이기도 한데, 중국과 일본의 국제관계가 굉장히 지금 틀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지난번 사드로 발생했던 2016년 한한령이라고 하는 저희에게는 굉장히 관광시장에 큰 타격을 줬던 조치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이 거의 비슷하게 지금 일본에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 14억 인구 중에 해외여행을 갈 수 있을 만한 여력을 가졌던 중산층이라고 보는 6억 인구 중에 우리 대한민국을 와 본 분이, 길거리에 굉장히 많은 중국 관광객들이 있는 것 같지만 10%도 되지 않습니다. 앞으로 90%의, 6억 가까운 관광객들이 한국시장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한 번은 가야 할 곳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한한령이 길어지면서 시진핑 2기, 3기 집권하는 과정에서 지금은 기회가 생겨서, 우리도 젊은이들이 중국을 가지 않았는데 최근에 많이 가고 있습니다. 중국이 재작년에 비자를 풀어서 그런 것이 이제 만들어졌고 우리도 상호주의에 의해서 비자를 풀어서 그런 기회 요인이 생겼는데 이때 중화권시장 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여기서 표현하는 중화권이라고 말씀하면 저는 중국 뿐만 아니라 중화라고 하는

싱가포르 그리고 말레이시아에 있는 중국 커뮤니티도 포함되는 개념이라고 보고요. 동남아 시장, 특히 동남아 관광객들이 최근에 한국 관광시장에서 굉장히 큰손들인데 이 기회가 열렸을 때 저희는 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 번 한국을 와 보신 분들은 또 오게 돼 있습니다. 저는 저희가 조금 파격적인 지원책을 내서라도 이 문제는 꼭 진행해야 한국 관광시장에 절대적인 기회 요인이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은 이것을 약간 이념적인 문제로 치환해서 표현하시는 분도 있는데, 왜 꼭 중국, 중화권이나, 미국 시장도 있고 유럽 시장도 있고 다른 국가 시장도 있다고 하는데.

우리에게 와 있는 가장 큰 관광 기회 요인입니다, 중국, 중화권은. 미국도 역대 우리 관광객 순위에서 10% 이상 넘어 본 적이 없습니다. 중국은 한한령이 떨어지기 직전이었던 16년도에는, 심지어 왔던 관광객 1600만 명 중에 과반이었던 800만 명이 중국에서 오신 분들이었습니다.

저는 다시 한국이 관광산업의 하나의 전환적 계기를 만들 수 있는 이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저는 이 예산도 더 쓸 수만 있다고 하면, 만약에 이 기회 요인으로 해서 저희가 이 예산을 가지고 중국 관광객을 200만, 300만 추가 유치할 수만 있다고 보면 이 예산, 큰 예산 아닙니다.

저는 이래서 조금 큰 규모 예산이라고는 생각하지만, 앞으로 이것이 만들어 낼 경제적 유발효과를 생각해 보면 저는 결코 무리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재원 위원** 우리가 추경의 목적을 계속해서 얘기를 해 왔는데 지금 당장 직접 지원을 통해서 생태계가 돌아가게 하는 것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 기간 동안에 얼마나 외부에서 거둬들여 가지고 또 얼마나 길어질지 모르는 이 장기적 사태에 대비할 것이냐라는 게 동시에 지금 생각을 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왜 중화권시장을 주로 하려고 하느냐라는 문제가 나올 수 있는데 이것이 저번에 우리가 상임위에서 또 법안소위에서 얘기가 나왔었던 전담여행사라는 것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제가 여행업을, 법인을 만들어 봤다고 저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기 때문에 단체관광객을 모객하는 쪽에서 이쪽을 끌어당기기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있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어떤 인센티브를 많이 준다고 했었을 때 모집 단위인 현지 여행사들에서 모객을 하는 데 상당히 유리한 조건을 제시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중국에 있어서 전담 여행사 제도로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것도 중국의 요청으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단기간에 많은 관광객을 모집할 수 있는 구조적인 게 지금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부분에서 하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인센티브를 오히려 더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서 그래서 제가 200억을 더 추가로 증액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

중국 관광객들, 존경하는 이기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더 플러스해서 생각해 보면 사실상 지금 끌어당겨서 추가로 올 수 있는 단체관광객들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서 파생될 수 있는 문화상품의 판매라든지 이런 것들까지 연계가 됨으로 해서 사실상의 더 많은, 지금 예측은 1.07조 원의 추가 지출 효과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오히려 그런 것들이 더 파생적으로 늘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단 말이지요.

그래서 제가 일단 200억 더 증액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려는 거는, 100억 정도는 지방

공항으로 해서 연계되는 그런 단체여행객들, 그런 여행객들을 대상으로는 지역 핫스팟 투어 지원 이런 것들을 인센을 지급을 하는 그런 방법으로 해 가지고 지역관광과 그다음에 내수 소비 촉진에도 기여를 하겠다 이런 내용으로 지금 200억 증액을 더 오히려 요청을 드린 겁니다.

지금 당길 수 있을 만큼 저는 당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호르무즈 사태가 한 2주 안에 정리가 된다 이렇게 얘기들은 트럼프 대통령서부터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석유시설이 완전히 복구가 돼 가지고 정상적인 공급에 이르기까지 또 지금은 국제관계가 매우 틀어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1배럴당 얼마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요금을 매기겠다 이런 문제들도 다 해결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완벽히 정상화될 때까지라고 생각을 한다면 얼마나 장기적으로 이어질지를 모르는 상황에서 우리가 외부에서 문화상품이 됐건 문화 파생상품이 됐건 관광 분야가 됐건 물품을 파는 게 됐건 문화 인력·스포츠 인력이 됐건 하여튼 외부에서 당길 수 있는 대로 다 당길 수 있는 거는 생각을 해 봐야 된다. 구조를 그렇게 만들어 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걸 위해서 쓰는 돈은 지금은 하나도 아까운 돈이 아닙니다.

○조계원 위원 차관님, 중국인 관광객의 경우 일인당 평균 여행 지출액이 1503달러가 나오고 외래객 평균 1327달러보다도 더 높은 수준이더라고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맞습니다.

○조계원 위원 그래서 약 306억 원에 달하는 이 추경을 투입하면 한 50여만 명의 중국 관광객을 추가로 유치할 수가 있지요? 그렇게……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그 이상 가능하다고 봅니다.

○조계원 위원 그 이상이요. 50여만 명으로 추산하더라도 1조 700억 원에 달하는 국내 지출 효과를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됐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예.

○조계원 위원 그러면 물 들어왔을 때 노 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동안 한한령으로 인해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피해를 봤지 않습니까? 800만 명에 달하던 관광객이 반토막 났지 않습니까, 중국의. 그런데 이번에는 오히려 한일령이 발동된 상황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동안 한한령으로 인해서 중국 관광객을 많이 받지 못했는데 이번 기회에 예년 수준으로 확 늘려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그렇습니다.

○조계원 위원 그리고 우리 국내에서 중국을 정치적으로 비난하고 비하하면서 중국 관광객들이 무단 이탈하거나 불법 체류하는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은 극히 일부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0.04%로 알고 있습니다.

○조계원 위원 그것 때문에 중국 관광객을 늘리는 이러한 정책들을 놓치는 것은 결국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격 아니겠습니까?

이번 기회에 제대로 중국 관광객을 유입시키고 또 중국 관광객들이 우리 한국을 둘러보면서 한국에 대한 인식과 관념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좋은 방향으로 바꿔 나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예.

○조계원 위원 그런 맥락에서 이번 예산은 꼭 반영을 해 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소위원장직무대리 임오경 저도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중화권시장 유치 확대에 있어서 상임위 때도 얘기가 나왔지만 중국 전담여행사도 관광진흥법, 24년 10월 22일 자로 이 법이 통과됐고 시행이 됐습니다. 중국 전담여행사 제도에 관련한 법도 2024년에 된 거예요. 시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2024년에 웰니스산업을 위해서 치유관광법도, 그 당시 제정법도 통과를 시켰습니다. 다 중화권시장을 타깃으로 해서 이 법도 쟁점 법안이었지만 저희가 어렵게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중국인 무비자를 시행한 것도 윤석열 정부 때 중국인 관광객이 워낙 많아지면서 그때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중국인 관광객이 늘면서 올해 12월까지 연장을 했지요, 원래는 9월 달까지인가 하기로 했었다가?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내년 6월 30일까지……

○소위원장직무대리 임오경 그러면서 연장을 좀 했잖아요, 연말까지.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예.

○소위원장직무대리 임오경 그래서 저는 중화권시장……

지금 태국 관광객들도 지출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관광객 중에서 중국이 가장 많은 지출을 하고 있지만 태국 쪽도 지금 한국 관광으로 인해서 지출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더라고요, 지표를 보니까. 그런 부분을 생각한다면 저는 중화권시장 유치 확대 홍보·마케팅을 위해서 증액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는 또 의견 차이가 있는데……

○김승수 위원 엇그제 추경안 상정할 때 이 부분 중화권 예산 관련해 가지고 300억이 넘는 돈을 추경에 투입했다 해서 많은 위원들의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저도 ‘국민 혈세 가지고 중국인 관광객의 짐까지 캐리해야 되나’ 이렇게 얘기했더니 ‘짐 캐리’ 이게 SNS 상에 상당히 논란이 되면서 영화배우 짐 캐리가 금세 실시간 상위에 올랐다고 할 정도로 국민들이 어처구니없어 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300억이 넘는 중화권 추가 증액 예산 중에 국내 여행사에 직접적으로 혜택이 돌아가는 예산 있습니까? 주로 중국인 대상 여행업을 하는 국내 여행사에 직접적으로 혜택이 가는 예산이 있느냐는 거예요, 306억 증액 예산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간접적으로는 다……

○김승수 위원 없잖아요.

그리고 지금 전체 국내 여행사 수가 몇 개예요?

○문화체육관광부관광정책관 강동진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재원 위원 전담여행사들이 국내 여행사들 아닙니까?

○문화체육관광부관광정책관 강동진 지금 직접적으로……

○김승수 위원 아니, 전체 국내 여행사 수가 몇 개냐는 거예요.

○문화체육관광부관광정책관 강동진 지금 여행업체 수가 약 2만 개 정도로……

○김승수 위원 2만 개 정도 되잖아요.

이 306억을 2만 개 여행사에 똑똑 나눠 주면 얼마씩 돌아갑니까? 150만 원씩 돌아가잖아요. 이 306억이 올해 쓰면 흔적도 없이 다 사라지는 돈이에요. 내년에 똑같이 하려면

또 306억이 들어가는 거예요.

보십시오.

아까 짐 캐리뿐만 아니고 전세기 지원 확대, 한국 항공사에 지원되는 돈 있습니까? 전세기 지원 확대에 얼마 지원되는 거예요? 지금 100억 책정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다 중국 LCC 지원하도록 돼 있는 거잖아요. 한국의 항공사, LCC는 한 푼도 지원 대상에 안 들어가 있어요.

크루즈 기항지 매력 제고한다고 기항지 문화사업에 50억 정도 들어가 있는데 기항지 어디에서 문화공연 하는지 아세요, 계획이?

○문화체육관광부관광정책관 강동진 대상은 부산, 인천, 여수, 3개 항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승수 위원 우리 의원실에 설명한 것은 중국 기항지에서 한다고 이런 식으로 설명 받았던데……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아닙니다, 그것은.

○문화체육관광부관광정책관 강동진 아닙니다. 국내입니다.

○김승수 위원 페리, 크루즈가 지금 한국 업체가 운영하는 데에 돈 지원하는 겁니까?

○문화체육관광부관광정책관 강동진 여수, 군산, 평택 이런…… 4개 항 쪽에 페리 부분들을 유치하겠다는 겁니다.

○김승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페리 세일즈 추진하는 것이, 판촉활동 이런 것이 한국 업체에서 운영하는 페리와 크루즈의 판촉활동 비용으로 지금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여행상품을 말하는 겁니다, 판촉활동은.

○김승수 위원 여기 설명 자료에 판촉활동이라고 되어 있어요. 크루즈 현지 판촉활동, 페리 세일즈 추진. 왜 중국 업체의 세일즈에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세금을 가지고 우리가 판촉활동을 지원해 줍니까? 왜 국민 세금으로 중국 업체 마케팅을 해 줘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위원님,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김승수 위원 아니, 그렇게 되어 있어요.

크루즈 현지 판촉활동, 페리 세일즈 추진, 여기에 한국 업체에서 운영하는 페리 있습니까? 크루즈 있습니까?

○조계원 위원 그러니까 크루즈가 많이 들어오게 하자……

○김승수 위원 아니,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조계원 위원 여수가 기항지지 않습니까? 동시에 2대가 기항을 할 수 있는데 크루즈가 한 번씩 들어올 때마다 3000~5000명이 들어와요. 그래서 크루즈를 많이 유치하자는 판촉활동이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예.

○김승수 위원 중국 인플루언서 활용 마케팅 등 현재 책정된 예산보다 무려 10배나 더 증액을 시켜서 하겠다는 거예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위원님, 말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승수 위원 얘기해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이 부분은 제가 관광차관으로 온 8개월 동안 일하면

서 느낀 사안이라서요.

대통령 모시고 확대관광전략회의를 하면서 2029년까지 3000만 하겠다 이게 문체부의 2대 과제 중 하나인데, 가만히 있으면 외래객이 들어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첫 출발은 저희들이 중국 복수비자라든가 인천공항에서 지역 공항으로 환승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다 해결해 놓고 마지막 남은 게 이제는 해외에 있는 외래객을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마케팅활동밖에 없습니다. 마케팅활동이 없이 저희들이 50만 명이든 100만 명이든……

작년에 15.7%였습니다. 그런데 올해 2300만 명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그 갭을 채우기 위해서는 이게 되어야지 3000만이 달성되는데 마케팅활동 없이는 저희들이 그 갭을 메울 수가 없는 거고, 마케팅해서 들어오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그 경제적인 효과는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김승수 위원** 지금 문체부 세종에 있으니까 KTX 타고 세종 왔다 갔다 하지요? KTX 차표 구하기가 얼마나 힘든지 압니까? 오늘 본회의 시간이 2시에 개의하기로 했다가 마 음대로 2시 반, 3시 되니까 의원들이 표를 구할 수 없어 가지고 전부 다 그 얘기를 할 정도로 지금…… 외국 관광객들 서울역 가 보면 넘쳐납니다. 더 많이 늘려야 되겠지요. 마케팅도 중요하지만 그런 데, 지금 대부분의 관광객들이 아직까지 수도권이라든지 특정 관광 스폿 외에는……

지방자치단체마다 다 관광객 끌어들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관광인프라…… 숙박시설도 마찬가지지요. 숙박시설도 보면 그런 예산, 진짜 1억, 2억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가져 오기도 힘듭니다. 기본적으로 인프라도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마케팅만 한다고 해 가지고 들어옵니까? 숙박시설 좋고 볼거리 많고, 앞서 백제문화권 공연 그런 것도 밤 문화가 없으니까 필요한 사업이에요, 이 추경 사업에 안 맞다 뿐이지. 오히려 뭔가 계속적으로 이어지거나 또 남는 사업들…… 기본적인 인프라도 안 되어 있는데 이런 식으로 일회성으로 삼백몇억씩이나 추경에 쓴다는 것이 도저히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이 예산들이 결국에는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한 예산입니다.

○**김승수 위원** 차라리 아까 얘기했듯이 150만 원씩 여행사한테 나눠 주는 거라면 여행 업자들도 좋다고 그럴 거예요.

○**소위원장직무대리 임오경** 앞서 저희가 계속 얘기했던 것은 국내 활성화, 관광객……

○**조계원 위원** 좀 오해가 있어서 제가 이 부분은 좀 분명하게 해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크루즈 기항지, 여수에도 2대가 동시에 기항을 할 수 있고 크루즈가 기항했을 때 그 생산유발효과는 어마어마합니다, 3000~5000명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번에도 5000명 가까이 들어온 크루즈가 있었고 대규모 환영행사를 했고, 그 환영행사나 공연이 우리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거고 국내 공연단체가 하는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팝업스토어나 이런 것을 해서 국내 매출이 늘어나는 거고요. 크루즈 한 대가 들어옴으로 해서 그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하는 바는 어마어마하게 큼니다. 이러한 크루즈를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관측활동입니다.

그런 맥락을 김승수 위원님께서 제대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소위원장직무대리 임오경 진중오 위원님.

○진중오 위원 앞에서 위원님들이 했던 얘기가 중복돼서 좀 빼겠는데요. 정리하겠는데, 얘기의 본질이 좀 달라진 것 같아요.

당연히 마케팅해야지요.

차관님, 지난번 전체회의 할 때 통계 자료 제출해 달라고 했던 것 기억나십니까? 외래 관광객이 몇 명이나 왔는지 제출 안 하셨지요? 제출 안 하였고.

중국인 관광객들 2025년도에 몇 명이나 왔는지 아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548만 왔습니다.

○진중오 위원 548만요? 615만이 아니고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예, 548만입니다.

○진중오 위원 그런데 보면 25년도에 1870만 명이 왔는데 그중에 중국인 관광객이 30%예요. 그러면 남은 70%는 다른 나라 국적의 관광객들인데 중화권 관광객들한테 200억 이상을 쓰겠다라는 것은 납득이 안 가고요.

홍보·마케팅 당연히 필요해요. 마케팅 있어야지만 해외에 홍보가 되고 해외 관광객이 들어오겠지요. 그런데 왜 중화권이냐는 거예요. 아까 김승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마케팅 필요하지만 왜 중화권이냐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데 지금 말이 자꾸 딴 데로 새어 나가고 있어요.

그리고 조계원 위원님 말씀처럼 크루즈도 필요하지요. 그런데 크루즈가 중국에서만 들어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주로 중국에서 옵니다. 일본에서도 오고요.

○진중오 위원 주로 중국에서 들어오는데, 그렇다 칠게요.

그런데 아까 얘기 나온 것하고 똑같아요. 왜 중국인의 짐을 날라 주고 그리고 연비도 떨어지는 크루즈에 집중하는지 그런 문제가 있고요. 이게 특정 국가를 겨냥한다는 것 자체를 우리가 지금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위원님, 저희들은 관광산업적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중화가……

○진중오 위원 산업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것 알겠는데 30%라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통계 자료도 제출 안 하시면서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소위원장직무대리 임오경 여기서 다시 한번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는 것 같습니다.

2024년 윤석열 정부 때 관광진흥법에 중국 전담여행사 제도의 법적 근거를, 지침을 마련했습니다. 정부 요청으로. 지금 차관님은 안 계셨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2024년에 정부 차원에서 요청을 해서 이 법안을…… 저희도 같은 말을 했습니다. ‘왜 중국 전담이어야 되냐?’, ‘중국 관광객이 많기 때문에’, ‘수요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같은 의견이 계속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법으로, 법률로 상향시켜 댔습니다. 지침을 만들어 댔어요.

그리고 웰니스산업, 치유관광도 정쟁 있었습니다. 21대에서 계속 계류시켰습니다. 그런데 22대에 와서 2024년에 저희가 이 법을 다시 한번 다루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누구를 위한 거였느냐? 중국 관광객들을, 중화권시장을 위한 법안이었습니다. 여야 논쟁

이 있었지만 그래도 중국 관광객들의 수요가 많기 때문에, 논쟁이 있었지만 결과적으로는 합의해서 저희가 통과를 시켰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그리고 중국인 무비자는, 윤석열 정부 때 왜 무비자를 해야 된다고 요청을 했는지 아십니까? 이것 또한 수요가 많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모르겠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문체위 상임위에 있다 보니까 이것 하나하나를 잘 알고 있고, 차관님은 임명된 지 얼마 안 되셔서 지금 설명을 제대로 못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정부 입장이 돼서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차관님도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정확하게 알고 들어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 그거에 대한 것에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지.

갑자기 이재명 정부 때 이것을 하려고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수요가 많고 인바운드 관광객으로 들어오는 중국, 중화권시장 확대를 더 시키기 위해서, 이것을 멈추지 않고 더 활성화시키고 확대를 시키기 위해서 지금 예산이 필요하다라고 하시는 것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크루즈 사업도 나왔는데 지금까지는 중국에서 다 일본 쪽으로 갔습니다, 크루즈 대부분이. 그런데 중·일 관계가 나빠지면서 결국 그 크루즈 사업이 평택으로 갔다가 여수까지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수 크루즈 관광객이 계속해서 늘고 있는 것 저도 기본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언론에서, TV만 틀어도 계속해서 나왔던 거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국내관광 수요를 늘리는 것도 있지만 지금 이거는 외래 관광객이잖아요. 그래서 중화권시장 유치 확대를 왜 해야 되는지, 이거는 윤석열 정부 때부터 계속해서 확산하자고 해서 그 당시 야당인 민주당 쪽에서도 이거를 다 받아 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통계적으로 수요가 많다고 하니까. 그래서 저희가 법적 근거도 만들어 냈고, 그다음에 아시다시피 치유관광이라는 제정법도 발의하는 데 동의해 줬고 그리고 중국인 무비자도 윤석열 정부 때 요청한 것을 저희가 다 받아 줬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홍보·마케팅이 없으면 어떠한 것도 유치할 수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36년에 전주에서 하계올림픽 개최하겠다고 하는데 거기서 가장 많이 들어가고 있는 예산이 어떤 겁니까, 차관님? 지금 가장 많이 들어가고 있는 예산이 홍보·마케팅 예산 아닙니까? 설명 좀 잘해 주십시오.

○이기현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딱 하나만 강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진중오 위원님 말씀도 타당하고요.

그리고 저는 숫자 통계를 가지고 얘기하고 싶은데 16년도에 저희 관광객이 1600만 명 정도로 제가 기억하는데, 코로나 직전이었으니까 1800만 명 정도 되는데 그때 800만 명이 중국 관광객이었습니다, 제 기억이 맞다고 하면. 그리고 한한령이 터지고 나서 그 800만 명이 얼마나 줄어들었는지 아세요? 10만 명으로 줄어듭니다. 중국은 이렇게 무서운 나라입니다.

그 관광객들이 다 어디로 갔느냐면 일본으로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16년도에 저희랑 똑같은 1800만 명 관광객을 갖고 있다가 코로나 터지고 코로나가 회복되는 과정에 중국 관광객들이 저희에게 안 왔을 때 중국 관광객들이 다 일본으로 갑니다. 중

국 관광객이 일본으로 가면서 일본 관광객 3000만 시대를 엽니다. 일본의 관광시장이 완전히 열려 버렸어요.

그 일본의 관광시장이 최근에 양안 문제에 대한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 이후에 정말로 급전직하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어디로 가려고 하느냐면 이제 한국으로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내년에 2000만 명 되겠지만 2000만 명 되면 그 이전 16년도에 가졌던 중국 관광객들 포션을 반으로 본다면 저희가 그 반, 작년에 600만 명에 조금 못 미쳤다고 하면 내년에 2000만 명이면 1000만 명, 그러면 작년에 비해서 400만 명이 더 들어오는 것입니다. 저희한테 이런 기회요소가 갑자기 떨어졌어요, 저희가 뭘 어떻게 해서가 아니라. 이 기회 놓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왜 중국에만 지원하느냐, 중화권에만 지원하느냐, 다른 나라들도 있는데? 이 말씀도 일리 있는데 지금 이렇게 전술적으로 투자해서 성과를 낼 수 있는 다른 지역이 별로 안 보여요. 그런데 중국은 이미 가려고 준비가 다 돼 있고 당분간 일본과는 역사적 문제 때문에, 양안 문제 때문에 해결 안 됩니다. 이때 저희가 기회요인을 가지고 정말 집중 투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큰 파도가 하나의 지점을 뚫어서 큰 성벽이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그것을 벌려야지요. 그래서 그 파도가 갖고 들어오는 물을 받아야지요. 저는 그 지점에서 이 추정안에 들어간 300억 규모의 증액, 거기에 김재원 위원님께서 추가하신 200억 정도는 증액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투자한 금액 대비 대한민국 경제가, 대한민국 관광산업이 더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는, 수조 단위의 이익을 만들어 낼 수 있는 정말 결정적인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씀 주신 내용 다 이해하지만, 정말 갑자기 터진 겁니다. 이 기회요인을 저희가 잡을 수 있을 때 확 잡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소위원장직무대리 임오경 의견 차이가 있어서 이거는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두레 조성사업 관련해서는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김승수 위원 이미 청년관광두레 사업에 대해서는 저번에 추정 상정할 때 지역 실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증액된 사업이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폭 삭감이 불가피하다, 그렇지 않을 경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규모 불용이라든지 이런 게 나올 수밖에 없다, 그렇게 해서 감액 주장을 제가 했습니다.

이보다 더 큰 문제는 의견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보조금평가에서 이게 성과 부진 사업으로 인해서 감액 조치된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증액하는 것은 관련 법령에 어긋난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예정처에도 확인하고. 맞지 않다는 겁니다, 예산 관련되는 규정상으로 이렇게 추정안에 신규로 편성하는 것 자체가.

○소위원장직무대리 임오경 정부 측.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보조사업 연장평가 시 지적받은 것은 사실이고요. 그런데 작년에 사업 추진하면서 여러 가지 홍보·마케팅 사업의 내실화 그리고 저성과 사업체와 PD 관리 강화방안 등의 개선책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청년 참여율 제고를 위해서 저희들이 지역 대학생 참여를 유도하고 사업 대상 지역을 41개 기초지자체에서 비수도권 기초지자체 전체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해서 염

려하시는 부분이 최대한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위원장직무대리 임오경 그러면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 결과 감액 조치된 점을 인정하셨으니까 이거는 보류로 해 놓고 감액을 조금이라도 하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알겠습니다.

○소위원장직무대리 임오경 그래서 보류하겠습니다.

○조계원 위원 그래도 얘기는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소위원장직무대리 임오경 말씀하세요.

○조계원 위원 어쨌든 청년관광두레 사업은 지역의 청년 유출과 지역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가장 시급하고 긴절한 민생 일자리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차관님 동의하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예.

○조계원 위원 이번 추경 자체가 고유가와 경기 둔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의 청년들이 관광을 기반으로 창업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 지원하는 사업인데 이것을 굳이 예산을 삭감해야 될까요? 저는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는 아주 긴요하고 꼭 필요한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한 여러 모범사례들이 많이 있지요? 나전카니발농업회사법인 그리고 순천의 유한책임회사 순천맥주 그다음에 전북 완주의 수작, 충북 보은의 미진 등 엄청나게 우수한 모범사례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사업들을 계속해서 발굴하고 정착시켜 나가야지 청년 일자리 창출이 되고 지역경제가 새롭게 맥박이 뛰지 않겠습니까?

차관님, 말씀해 보세요, 고개만 끄떡이지 말고.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말씀드리면……

○소위원장직무대리 임오경 위원님 말씀에는 저도 공감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내수관광을 위해서 지역소멸 되는 곳 그래서 관광산업에 있어서 저희가 충분히 계속해서 예산을 증액하고 반영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잖아요.

청년이라고 그래서 저는 굳이 꼭……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 저희가 추가적으로 소멸 지역의 관광객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예산 증액을 하고 있는데 꼭 청년 인구가 줄고 있다고 해서 청년관광두레 구성 이것을 별도로 또 나누는 것도 조금 그런 것 같다는 제 개인적인 의견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종합적으로, 청년·기성세대 나누지 말고 지역소멸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 관광산업을 위해서 좀 더 활성화시키는 데 이것을 하나의 뭉텅이로 묶어 뒀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에서 김승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있어서 100% 다 감액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정부에서 감액할 수 있으면 한번 고민해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보류하자라는 입장이니까, 이거는 청년 인구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한다면 보류사업이니까 다시 한번 논의할 때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예.

○소위원장직무대리 임오경 5번 관광사업 창업지원 및 벤처육성 관련해서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김승수 위원 이거는 조은희 위원 삭감안이 굉장히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사업체마다 규모도 다르고 사업이 다른데 일률적으로 단가를 9200만 원 해서 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주먹구구식으로 예산편성이 됐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조은희 위원 감액안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직무대리 임오경 차관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일견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게 예산이 편성된 것 같은데요. 예산을 계단식으로 그냥 9200만 원으로 해서 그렇게 이해를 하시는 것 같은데 그 내용 중에는 저희들이 성과 인센티브, 평가해서 우수한 30%에는 인센티브를 더 주는 그런 예산을 포함시켰던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 것으로 이해해 주시고요.

○소위원장직무대리 임오경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해가 될 것 같습니까?

○김재원 위원 자료를 제가 읽어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추경 요구안 60억 원 중에 65개사 9200만 원으로 돼 있기는 한데 대상은 전체적으로 관광벤처회사들이고요. 예비벤처 15개사, 초기벤처 25개사, 성장벤처 25개사 해 가지고 4400만 원, 5400만 원, 6500만 원 이렇게 해서 지원 금액이 다릅니다. 명확하게 대상은 초기인 벤처기업들 대상입니다.

이것을 제가 설명해야겠습니까, 차관님? 자료에 다 나와 있어요.

○소위원장직무대리 임오경 구분이 안 된 게 아니라 구분이 되어 있네요, 실소요예산액 통계를 보니까.

○김재원 위원 본예산 때 경쟁률이 굉장히 높았어요. 서로들 하겠다고 해서 15 대 1 경쟁률까지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관광업계인데 초기에 도약하는 작은 회사들을 지원해 주기 위한 거여서……

○김승수 위원 그래서 실소요예산 추계액 대비해서 문체부에서 추경안으로 갖고 온 것이 이렇게 차이가 나니까 그만큼을 조은희 위원이 삭감하자는 거거든요, 실제대로.

○소위원장직무대리 임오경 아니요, 조은희 위원님이 요청하신 것은 부문별, 등급별 구분 없이 지원단가를 9200만 원으로 일률적으로 적용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실소요예산액 추계를 보니까 이게 다 구분이 되어 있네요.

○김재원 위원 그 이외에 벤처사업 공모 및 육성에 10억 원 그다음에 성과인센티브 13억 6500만 원 이렇게 해 가지고 합치면 그게……

○김승수 위원 그래서 60억 증액을 갖고 왔는데 실소요예산액을 가지고 그만큼 차액만큼 감액하자는 것 아니에요?

○소위원장직무대리 임오경 보니까 정부는 65개사 곱하기 9200만 원으로 이렇게 일괄적으로 해 왔고요.

이거는 조은희 위원님이 저희에게 실소요예산액 추계를 해 주셨네요. 그렇지요? 정부 측에서 이거를 볼 때 어떻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관광정책관 강동진 관광정책관입니다.

추경 편성을 일괄적으로 9200만 원 한 것은 일식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간단하게 한 거고요. 실제로는 15개사 4400만 원 이런 것들이 본예산의 지원기준은 맞습니다. 다만 추경 편성 산식을 좀 간소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2차관님 말씀하셨던 대로 중간평가 그리고 그거에 따른 성과 인센티브 부분들을 거기에 포함시켰다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직무대리 임오경 그러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실소요예산액, 크게는 지

금 조은희 위원님이 하신 건가요?

○**김승수 위원** 아니요, 전문위원 보고서에 있는 거잖아요. 말씀해 보세요, 전문위원님.

○**소위원장직무대리 임오경** 말씀해 주세요.

○**전문위원 김용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있는 내용이고요. 이게 문체부에서 준 자료에 따르면 부문별로 평가 결과를 3등급으로 구분을 해서 지원하도록 돼 있는데요. 저희 쪽에다가는 기업당 평균액을 써서 예비 관광벤처 4400만 원, 초기 관광벤처 5400만 원, 성장 관광벤처 6500만 원 이렇게 자료를 썼고요. 여기에 성과 인센티브는 포함이 안 된 걸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김승수 위원** 그러니까 전문위원, 입법조사관들이 준 자료도 모르고, 입법조사관들이 만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내용도 모르고 그렇게 해서 지금 심의를 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문화체육관광부관광정책관 강동진** 죄송합니다.

그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본예산 기준으로는 지금 전문위원 검토한 4400만 원, 5400만 원 이 기준이 맞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승수 위원** 그러니까.

○**소위원장직무대리 임오경** 정부 측에서 저희에게 설명을 그렇게 해 주셔야지, 전문위원이 준비해 가지고 와서 전문위원이 말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처음부터 그렇게, 지금 조은희 위원님께서 부문별, 등급별 구분이 없는 지원 단가를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 때 이거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을 해 주셨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문화체육관광부관광정책관 강동진** 일단은 저희 올해 추진 예산에는 차등 지원은 돼 있고요. 그리고 단가도 조은희 위원님과 전문위원님 얘기하시는 게 맞고. 다만 저희는 추경을 조금 더 간단한 산식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일괄 9200만 원 표현했던 부분이고 거기에는 저희가 이번에 하려는 중간 평가와 성과 인센티브가 포함돼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조계원 위원** 13억 6500만 원의 금액은 중간평가와 성과 인센티브 금액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예, 그렇습니다.

○**김승수 위원** 뭐가 ‘그렇습니다’입니까, 차관님? 산식을 똑바로 말씀하세요. 무슨 성과 인센티브를 얼마나 주려고 하고 있는 거고, 평가하는 데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요? 그거 내역을 한번 내 보세요, 그러니까. 이 13억 6500만 원이……

○**조계원 위원** 이것도 보류했다가 하시지요.

○**소위원장직무대리 임오경** 이거 지금 위원님들이 요청하신 거 재설명할 수 있도록 자료 준비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류하겠습니다.

이거 하나 다시 한번 짚고 넘어 가야 되겠습니다.

연번 5번 종목단체 및 지방체육회 지원 관련해서 액수를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관님, 준비되셨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예.

○**소위원장직무대리 임오경**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종목단체 및 지방체육회 운영, 아까 위원님들 말씀 주

서서 총액으로 9억 1200만 원 증액에 동의합니다. 산출 내역은 50만 원씩 곱하기 8개월, 곱하기 228개 시군이 되겠습니다.

○소위원장직무대리 임오경 위원님들 의견 없으시면……

다시 한번 제대로 설명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위원님들께서, 저희는 원래 27만 원 했는데 이거를 50만 원 증액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곱하기 4월부터 8개월 그리고 곱하기 228개 시군을 하면 총액 9억 1200만 원 증액이 나옵니다. 이 부분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직무대리 임오경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조계원 위원 알아먹었습니다.

○소위원장직무대리 임오경 김용규 전문위원, 마지막 부분 심사자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용규 16쪽입니다.

부대의견입니다.

두 건이 있는데요, 한 건은 체육·스포츠분야 증액예산 편성 필요, 두 번째는 진천선수촌 한의진료에 대한 지원 필요. 두 개 다 우리 위원회에서 한 대로 하면 증액이 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직무대리 임오경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수용합니다.

○소위원장직무대리 임오경 위원님들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어떻게 할까요, 위원님들 계속 이어서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잠깐 쉬었다 하시겠습니까?

○이기현 위원 계속하시지요.

○소위원장직무대리 임오경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보류사업에 대해서는 국가유산청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친 후에 다시 심사를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대현 문화체육관광부차관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준비되었습니다?

○국가유산청차장 최보근 예, 준비되었습니다.

○소위원장직무대리 임오경 다음은 국가유산청 소관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유 수석전문위원께서는 심사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재유 보고드리겠습니다.

국가유산청 심사안건은 연번 기준으로 모두 15개입니다. 5개씩 묶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연번 1번 국가유산 예방관리 강화와 관련하여 국가유산 재난대응 관리 사업에 AI 기반 재난예측 등을 위해 20억 원 증액 의견과 재난 시 적정 대응 기반 마련을 위한 15억 원 증액 의견이 각각 제시되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연번 2번 국가유산교육 활용진흥과 관련하여 국가유산 방문 캠페인 사업에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 홍보관 운영 등을 통한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해 27억 72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연번 3번 국가유산진흥원 지원과 관련하여 전통문화홍보사업에 사회적 배려자에 대한 복지 증진을 위해 9억 3900만 원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연번 4번은 세계유산위원회 개최 기간 중 북한의 미술과 포스터전을 개최하기 위해 3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연번 5번은 매장유산보호 및 조사 관리지원 사업의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7억 7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여기까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직무대리 임오경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유산청차장 최보근 연번 1번·2번·3번은 정부 입장은 수용입니다.

4번 같은 경우에는 수용이 곤란합니다. 이유는 지금 세계유산위원회 사업계획이 다 확정됐고 지금 준비 중에 있는데, 이 사업이 예산을 통과하더라도 지금 사업계획하고 이 사업을 실제로 하는 데 시간이 많이 부족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집행에 좀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5페이지 연번 5번은 정부 입장은 수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직무대리 임오경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승수 위원 지금 그대로 가는 거지요, 검토의견 정부 의견대로? 그렇지요?

○국가유산청차장 최보근 예, 그렇습니다.

○김승수 위원 하나만 여쭙볼게요.

왜 이번 추경안에, 정부안에 국가유산청은 왜 다 빠졌어요? 신청을 했는데 정부안에 전혀 반영이 안 된 겁니까?

○국가유산청차장 최보근 기획예산처에 300억을 추경에 넣어 달라고 신청을 했는데 전체적으로 지금 추경의 어떤 큰 틀에서 목적에 좀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예산처에서는 반영이 안 됐습니다.

○김승수 위원 국가유산청이 너무 돌파력이 없는 거 아닙니까?

○국가유산청차장 최보근 저희도 많이 노력을 했는데 한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직무대리 임오경 제 거가 수용 곤란으로 되어 있는데 북한의 미술 포스터전 개최가 어려우시다면, 그렇다면 개성 만월대 발굴 자료는 남북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만월대 관련 자료 전시를 추진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단다고 생각하는데.

○국가유산청차장 최보근 다만 이번에 저희 전시하는 내용 중에 유네스코가 ODA 사업

으로 지원하는 사업들을 전시를 하는데 그중에는 북한의 벽화하고 만월대에 대한 내용은 들어가 있습니다.

○소위원장직무대리 임오경 들어가 있습니까?

○국가유산청차장 최보근 예, 그래서 그걸로 하면 북한의 그 두 가지 유산에 대해서는 충분히 오시는, 세계유산위원회에 참여하는 분들께 보여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직무대리 임오경 정부 측 의견을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박재유 수석전문위원께서는 심사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재유 이어서 5페이지 연번 6번입니다.

한국 전통미술 축제주간 개최를 위해 3억 원을 신규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연번 7번은 춘천 청평사 고려선원 탐방로 보행데크 신규 조성을 위해 36억 5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7페이지입니다.

연번 8번 궁궐유산관리 운영과 관련하여 고건물 보수 및 시설개선 사업에 12억 9700만 원 증액 필요 의견과 궁 시설관리인력 및 경상관리에 6억 16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각각 제시되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연번 9번은 조선왕릉 경상관리 사업의 노후 편의시설 개선 등을 위해 9억 88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며, 연번 10번은 궁능유적관리 수입대체경비와 관련하여 관람 지원인력 운영 사업에 안내해설 인력 증원 및 다국어 안내 리플릿 확충 등을 위해 7억 6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여기까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직무대리 임오경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유산청차장 최보근 정부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연번 6번은 정부 입장은 수용입니다.

연번 7번 국가유산 정비 사업 같은 경우에는 수용이 좀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사업은 아직 타당성검토가 끝나지 않았고, 또 이게 명승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승에 이 데크를 설치하는 것이 어떤 영향을 줄지 이런 부분에 대한 평가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연내 집행도 어렵고 이 타당성 이후에 진행하는 게 맞다는 저희 정부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수용이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연번 8번하고 9번 그다음에 10번까지 정부 입장은 수용입니다.

○소위원장직무대리 임오경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용 곤란인 부분이 하나 있으니까 이 부분만 제가 말씀드리면 되겠네요.

이거 타당성조사 실시 이후 그러면 2027년에는 반영이 되는 겁니까?

○국가유산청차장 최보근 예, 춘천시에서 이 부분 타당성조사를 하고 내년도 예산에 신청을 하면 검토해 가지고 준비가 된다면 내년 예산에 반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직무대리 임오경 춘천시와 협의를 잘하셔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유산청차장 최보근 알겠습니다.

○소위원장직무대리 임오경 다음, 박재유 수석전문위원께서는 심사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재유 이어서 10페이지입니다.

연번 11번은 창덕궁 달빛기행 사회적 배려 대상자 초청 행사를 재신설하기 위해 5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11페이지입니다.

연번 12번은 국가유산 디지털대전환(정보화)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유산 AI 대전환 및 AI 데이터 구축·개방 사업을 위해 25억 원을 그리고 국가유산 AI 대전환 및 정보시스템 마스터플랜 수립을 위해 7억 원을 각각 신규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연번 13번은 문화유산연구 전문인력양성 사업 추진을 위해 14억 3000만 원을 신규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12페이지입니다.

연번 14번은 북한에 대한 다양한 문화정보자료를 구축하기 위해 북한 전자문화지도 구축 사업에 3억 원을 신규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직무대리 임오경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유산청차장 최보근 정부 입장입니다.

연번 11번·12번·13번·14번 사업까지는 정부 입장은 수용이고, 마지막 15번 북한 전자문화지도 구축은 수용이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전자문화지도 구축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북한 유산에 대한 정보를 많이 확보를 해야 되는데 현재 남북관계가 경색된 상황에서 북한 전 지역의 유산에 대한 자료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그 지도 구축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소위원장직무대리 임오경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수 위원 11페이지에 12번, 13번 있잖아요. 필요한 사업이다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마는 이 사업들이 이번 추경에 이렇게 들어가야 될 이유나, 그러니까 12번 좀 설명해 주고. 13번도 국가공인 인증제도 설계가 지금 추경에 들어가야 될 사업인가 이런 의문이 들거든요.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국가유산청차장 최보근 먼저 12번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국가유산 데이터를 AI 학습용 데이터로 바꿔서 AI를 통해서 우리 국가유산에 대한 정보가 많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인데 지금 AI 기술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좀 시급하게 이 사업을 추진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이번 추경에 제기가 됐고 정부는 수용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13번 문화유산연구 전문인력양성사업의 경우에는 지금 발굴조사 현장에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또 사실 대학교 학생들이 발굴조사 현장에서 직접 학습을 할 수 있는, 실기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되게 중요한데 올해 추경이 편성된다면 현재 대학교에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발굴 현장에 직접 가서 교육을 시켜서 바로 취업할 수 있도록 그런 여건을 만들어 주는 데 있어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수용을 하게 됐습니다.

○**김승수 위원** 아니, 여기 지금 설명 자료를 보면 사업 내용이 그게 아니잖아요. ‘국가공인 인증제도 설계’ 이게 뭐냐는 거예요. 이게 추경에 들어가야 되는 거냐, 국가공인 인증제도 같으면 진짜 여러 가지 치밀하게 연구하고 사전계획을 세워서 본예산에 가야 되는 것 아니냐고 얘기를 드렸던 거고.

12번 같은 경우에도 어쨌거나 저는 국가유산청 의견에 동의한다 하더라도 그 정도 설명 가지고 예산 부처에서 추경에 넣어 주겠나…… 조금 더 시급성이라든지 긴박성, 이번 추경에 안 하면 이렇게 이렇게 늦춰져 가지고 다른 것하고 보조를 맞출 수 없다든지 그런 설명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13번은 지금 전혀 다른 설명을 하셨어요, 차장님.

○**국립문화유산연구원장 임종덕** 문화유산 실무형 인재양성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대학에서 실제 이론 수업만 중심으로 대학 교육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현장에서 경험을 쌓을 시간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수준별 맞춤형으로 현장 연계를 해서 발굴 현장에서 연구 경험을 쌓고 발굴 경험을 쌓아서 청년들의 취업, 일자리 찾기와 연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승수 위원** 아니, 똑같은 설명을 하는데 ‘국가공인 인증제도 설계’, 어떤 인증제도를 설계한다는 거예요?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국립문화유산연구원장 임종덕** 일정 프로그램을 이수하게 되면 발굴 현장에 바로 투입했을 때 현장에서 할 수 있는 실무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만든다는 말씀이고요. 약 30여 개 대학에 관련 학과가 있습니다. 그 과에서 배우는 것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표준화시키는 방법을 말씀드리는데.

○**김승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국가공인 인증을 하려고 하면 사전절차나 대상 교육기관이나 이게 죽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 인증제도를 설계하기 위해서는 이런이런 소요비용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에 얼마 증액이 필요하다고 얘기해야 되는데 지금 그런 내용에 대한 설명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국가유산청차장 최보근** 죄송합니다. 제가 설명이 좀 부족했고요.

국가공인 인증제도를 이번에 바로 만든다는 것은 아니고 인증제도를 만들기 위해서 사전에 필요한, 그 설계를 위해 사전에 필요한 조사라든가 연구를 하겠다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승수 위원** 그게 14억이나 들어가는 거예요?

○**국가유산청차장 최보근** 그 인증 설계 부분은 저희가 1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승수 위원** 그런 부분이 좀 구분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으니까 지금……

○**국가유산청차장 최보근** 이 설계만 14억은 아니고요. 모든 사업 포함해서 14억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설계는 1억입니다.

○**소위원장직무대리 임오경** 12번에 국가유산 AI 대전환이 있고요. 25억 증액이 있고 또 하나는 그 밑에 국가유산 AI 대전환 7억 증액, 같은 사업이지요?

○**국가유산청차장 최보근** 예, 밑에 있는 7억이 25억에 포함되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25억 사업을 수용하는 것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직무대리 임오경** 예.

14번 북한 전자문화지도 구축 관련해서 수용 곤란이라고 하셨는데, 태권도 공동등재 등 남북교류를 더 활발히 해서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태권도 공동등재를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어떻게 노력하시는 거예요?

○**국가유산청차장 최보근** 어쨌든 태권도가 세계유산에 등재될 수 있도록 저희는 이번에 신청 대상에 포함을 시켰고요. 다만 북한은 이미 태권도 등재 신청을 했기 때문에 통합해서 이 부분을 함께 하는 부분은 유네스코에서 판단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직무대리 임오경** 유네스코에서 판단하게 하고 우리는 접촉 없이 그냥 우리 대로만 한다?

○**국가유산청차장 최보근** 저희도 그런 필요성을 계속 유네스코에 설명도 하고 설득도 할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소위원장직무대리 임오경** 27년도에는 해당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유산청이 이 부분에 있어서도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유산청차장 최보근** 예, 잘 준비하겠습니다.

○**소위원장직무대리 임오경** 다른 위원님들 의견 없으십니까?

○**조계원 위원** 아까 12번요, 사업이 분명히 다른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국가유산 AI 대전환 및 AI 데이터 구축·개방 사업하고, 7억 사업은 국가유산 AI 대전환 및 정보시스템 마스터플랜(ISMP) 수립 사업인데 이게 어떻게 같은 사업이에요?

○**국가유산청차장 최보근** 그 25억 사업 내에, 내역을 보시면 마스터플랜(ISMP)를 수립하는 게 7억이 들어가 있고요. 나머지는 기존에 있는 국가유산 관련된 데이터를 AI가 학습할 수 있는 개방형 데이터로 만드는 부분, 이것을 개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예산 사업이 또 있습니다. 그것을 합해서 지금 25억이 되어 있습니다. 7억이 그 25억 내역에 들어가 있습니다.

○**조계원 위원** 그러면 그 두 개를 굳이 따로 할 필요 없잖아요. 알았습니다.

○**이기현 위원** 아까 태권도 문화유산 공동등재와 관련해서 정부의 입장은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남북관계의 골이 깊어서 어디로 갈지 모르는 최악, 마지막 저점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국제관계도 급변하고 있고 또 북한과 한국이 공유할 수 있는 것이 몇 가지 안 됩니다.

물론 태권도라고 하는 우리 한국의 전통무예가 역사적 배경이 그렇게 길지 않기 때문에 유네스코 문화유산에 등재되는 문제 관련해서는 타 국가 또 이사국들의 동의를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유네스코도 정무적 판단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유네스코가 단순히 문화유산의 보존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그것을 통해서 세계문화에 기여하고 세계평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분명한 자기 목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런 정무적 틈을…… 저희가 그냥 ‘이번에 남북 공동등재를 관계국들이 논의해 줬으면 좋겠다’, ‘우리 입장도 당신들의 논의에 따르겠다’ 정도로 말기지 않고 적극적인 입장을 좀 보여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남북에서 공동등재 신청을 한 태권도가 공동으로 등재된다고 하면 남북관계에 있

어서 큰 전환점이 될 개연성이 높습니다. 또 태권도는 세계에 2억 명 이상의 수련자들이 있는 대한민국이 배출한, 어떻게 보면 K-컬처의 원조와 같은 그런 스포츠이기도 합니다. 큰 문화적 자산이지요. 이 자산이 유네스코 문화유산에 등재되는 것 이상의 정치적 의미 그리고 세계사적인 의미도 있기 때문에 청장님한테도 말씀드렸는데 저는 유산청이 더 적극적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이렇게 올려 놓고 ‘북한도 올렸으니까 남한도 안 올릴 수 없으니까 그냥 올렸다’, ‘대한민국도 올렸다’ 이 정도 자세가 아니라 굉장히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말씀 부가의견으로 드립니다.

○국가유산청차장 최보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직무대리 임오경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국가유산청 소관에 대한 심사를 종료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중 국가유산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우리 소위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사항의 자구 등의 정리에 대해서는 소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는 정리되는 대로 바로 위원님들께 송부해 드리겠습니다.

국가유산청 나가셔도 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국가유산청차장 최보근 감사합니다.

○소위원장직무대리 임오경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속개를 할까요, 아니면 소소위에서 나머지 보류사업을 다루도록 하는 게 좋겠습니까?

김승수 위원님 의견 주십시오. 소소위에서 다루도록 할까요?

○김승수 위원 예.

○소위원장직무대리 임오경 보류된 건에 있어서는 소소위에서 여야 간사님들이 논의해서 최종 마무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20시44분 산회)

○출석 위원(8인)

김승수 김재원 박수현 이기현 임오경 정연욱 조계원 진중오

○청가 위원(1인)

민형배

○출석 전문위원 및 입법심의회관

수석전문위원 박재유

전문위원 김용규

입법심의회관 김충섭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 김영수

제2차관 김대현
기획조정실장 김정훈
체육국장 이선영
정책기획관 이준호
예술정책관 이용신
지역문화정책관 김용섭
문화산업정책관 임성환
콘텐츠미디어산업관 최성희
저작권정책관직무대리 최영진
해외홍보정책관 이은복
관광정책관 강동진
체육협력관 임영아
국가유산청
차장 최보근
기획조정관 채수희
유산정책국장 이길배
문화유산국장 윤순호
자연유산국장 김동대
역사유적정책관 이종훈
국립문화유산연구원
원장 임종덕